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
강화 전등사 수목장
대한불교 조계종 전등사 032. 937. 0125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1월 17일(음력 11월 29일) 수요일 (주간) 제 611 호

‘선문염송’ 등 세계에 내놓는다

조계종 영역 · 출판사업 추진

조계종이 한국불교의 정수가 담긴 전통사상서들을 영역해 세계에 알린다.

조계종원은 중국, 일본불교와 차별화된 한국불교사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부터 3년 동안 매년 10억원씩 총 30억원을 들여 ‘한국전통사상서 영역 · 출판사업’을 추진한다고 1월 10일 발표했다.

번역서는 의상대사의 <화엄일승법계도> 진각국사의 <선문염송> 보조국사의 <간화결의론> 태고국사의 <태고화상어록> 서산대사의 <선가귀감> <선문촬요> 경허선사의 <경허집> 성철선사의 <백일법문> 등 고대와 근 · 현대를 아우른 대표적인 사상서 23권이다.

조계종은 올해 6권을 번역하고 이 가운데 한권을 영문판으로 출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집행위원장 승원 스님(기획실장), 사무국장 원철 스님, 상임연구원 2~3명,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를 2월께 설치한다.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7권을 책으로 묶어 각 국 대사관, 한국문화원 등 재외공관과 1000여 세계 주요 대학에 배포할 계획이다.

조계종은 이 사업을 통해 한국불교가 세계적으로 보다 알려지고 한국학 발전, 전통문화 진흥산업 내실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3%의 힘 세상을 바꾼다

참여불교재가연대 ‘1만가족 공동체운동’ 본격 전개

수입 · 시간 · 능력나누기…매일 100원 저축 · 남 위한 1분 기도 등

보시(布施). 보살의 실천 덕목인 육바라밀(六波羅密) 가운데 제1 덕목이다. 자비의 마음으로 다른 이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을 말한다. 대승불교에서 보살은 물질적 보시인 재시(財施)와 부처님 가르침을 나누는 법시(法施), 모든 공포심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무외시(無畏施)를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요즘 보시는 불공이나 불사를 할 때 일정한 금전이나 물품을 내는 것으로 의미가 한정되기도 한다.

참여불교재가연대(이하 재가연대)가 김동건 상임대표의 신년사를 통해 올해부터 ‘1만 가족공동체운동’을 본격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1만 가족공동체운동은 일상적인 삶에서 회향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0년까지 1만 가족을 회향운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재가연대가 새로운 유형의 ‘불교대중문화운동’을 펼치는 배경에는, 올해 불교계가 자기혁신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일구는 선구자가 되느냐, 아니면 사회적 열등생으로 전락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고민이 짙게 배어있다. 지난 해 말 조계종의 한 교구본사주지가 구속수감 됐듯 일반 사회는 불교계에 도덕적 책임의식 뿐만 아니라, 종단과 불교, 한국사회 미래를 아우르는 통합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해 국민들에게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가연대는 불교시민단체들이 먼저 자기성찰과 혁신을 이뤄 제도권의 변화를 견인하는 동력이 돼야 한다는 판단으로, 재가불자들이 가장 쉽게 습관화 할 수 있는 수행인 ‘보시’에 초점을 맞췄다. 생활수행, 봉사와 회향, 리더십이 어우러지는 참여불교운동의 한국적 모델을 개발 · 보급해 새로운 불교생활문화운동의 초석을 놓겠다는 생각이다.

이 운동에 동참하는 일반 재가불자들은 하루 100원씩을 매일 저축해 이웃을 위해 회향한다. 적립된 기금은 특정 분야나 단체에 지정 기탁할 수도 있다. 일반 재가불자들은 또 하루 1분씩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작은 실천을 한다.

특히 재가불자 지도자들은 참여하는 문화를 독려하기 위해 수입의 3%, 시간의 3%, 능력의 3%를 나눈다. 재정적인 후원 외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이웃을 위해 회향한다는 의미다. 재가불자 지도자들은 이 외에도 유산기증운동을 통해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킨다.

재가연대는 이 운동을 불교계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기업이나 단체도 동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제 공은 승가를 비롯해 조계종 및 불교계 주요 종단으로 넘어갔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재가자들의 몸부림에 화답을 할 때가 된 것이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문화재 관람료…신중한 검토

1월 1일부터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되면서 단독징수를 시작한 사찰의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조계종 총무원은 1월 12일 긴급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매표소 위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립공원지역에 무상으로 편입된 1억1000만평의 사찰토지에 대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교구본사주지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검토하는 스님들의 표정이 심각하다. 관련기사 2면 사진=고영배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청암사율원 3월초 개원

비구니율원으로는 두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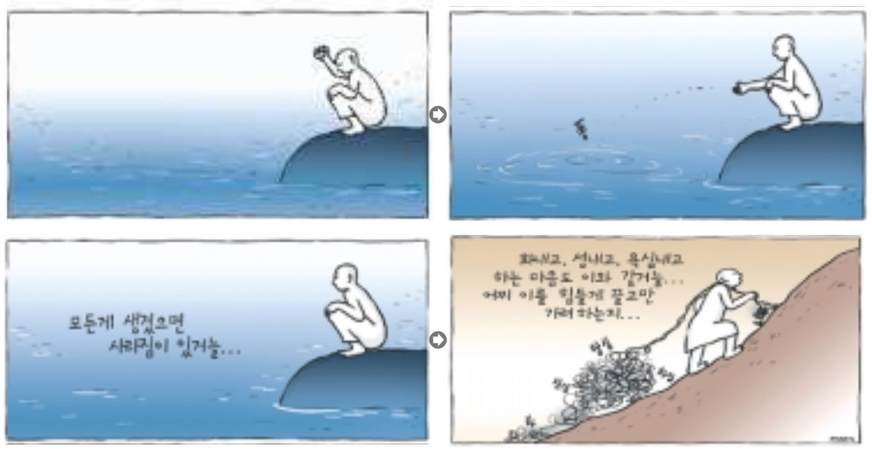
김천 청암사(주지 상덕)가 3월초 비구니 율원을 개원한다.

청암사는 현재 교육원에 율원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신청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어 이달중으로 교육원 실사를 거쳐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암사 율원은 180여 평 규모로 지난해 건립했다. 모집인원은 학년별 7명이며, 율장연구와 율사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I Love Buddha / 생겼으면 사라짐이 있거늘

용정운(www.buddhaillust.org)



금주 28면 발행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현대불교’ 언제나 앞서갑니다

새로운 읽을거리 새로운 지식정보 새로운 감동

생활속의 신행 도반 현대불교신문이 지면 구석구석 기쁨과 감동을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 갑니다. 2007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로 정한 ‘현대불교’가 새로운 읽을거리로 더욱 알차게 지면을 채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연중캠페인-새싹불자를 키웁시다
현대불교가 어린이 청소년 포교 캠페인으로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현실적인 ‘숙제풀기’에 나섭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지면을 매주 2페이지 운영하며 다양한 정보와 읽을거리를 제공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뛰놀 수 있는 즐거운 공간이 ‘현대불교’에 있습니다.
<캠페인 종합 안내 14면>

■인물經 세상鏡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경전’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삶보다 숭고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다른 이야기로 삶의 경전을 쓰는 인물을 통해 세상을 비춰(鏡)봅니다.

■선지식을 찾아서
‘현대불교’ 창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은 코너 ‘법석’에 보다 다양한 선지식들을 모시겠습니다. 지면을 통해 전해지는 선지식들의 생생한 육성 가르침은 커다란 울림으로 남아 참사람의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詩畵로 떠나는 암자기행
짧지만 긴 여운을 남기는 시, 작지만 지워지지 않는 잔상으로 남는 그림. 시와 그림을 한 눈에 감상하며 암자의 정취를 맛볼 수 있습니다. 미당(未堂)의 추천으로 등단한 장인성 시인의 암자를 주제로 한 시편과 대한민국 문인화대전 초대작가 이상배 화백의 그림이 매주 고즈넉한 암자로 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산 스님의 ‘사찰 음식의 모든 것’
최근 건강식으로 크게 각광받는 ‘사찰음식’은 재료 하나하나와 만들고 먹는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수행입니다. 그러나 점차 전통 사찰음식이 사라지고 있어 그 보존과 계승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산 스님(본명 김연식)이 사찰음식 본연의 정신과 유래, 특징, 만드는 법 등을 독자에게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정산 스님은 40여전부터 범어사를 비롯 많은 전통사찰에서 비법을 전수받은 사찰음식 연구와 보급의 ‘원조’입니다.

■조선왕릉에서 불교를 읽다
‘숭유억불’로 규정되는 조선의 통치이념. 그 단면에는 불교에 대한 억압과 숭상이 공존했습니다. 왕릉은 굳어버린 역사가 아니라 살아 있는 역사의 현장이고 언제나 귀를 열면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소설가 이우상 씨가 온 마음을 열고 조선 왕릉에서 불교 이야기를 읽고 사진작가 최진연 씨가 왕릉의 아름다움을 렌즈에 담아 전합니다.

■우리나라 불교음악 이야기
한국불교음악사를 인물, 합창단, 통사 등으로 나눠 각 분야별 전문가가 심도 있는 불교음악의 역사를 전해줍니다. 불교언론 최초로 한국불교음악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숨은 이야기까지 전해줄 것입니다.

불교의 뿌리 초기불전,
초기불전연구원이 옮기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에 뿌리가 있듯이 불교 2600년의 전개에도 그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를 거부하고 나무가 살아남을 수 없듯이 뿌리를 모르는 불교는 역사를 아는 이 시대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빠알리 삼장은 불교 만대의 뿌리요 그래서 모든 불교의 표준이 될 수밖에 없는 부처님의 원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초기불전연구원은 이러한 **빠알리 삼장의 한글완역**을 발원하여 2002년에 설립되었으며, 지금 열과 성을 다해 빠알리 삼장의 완역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원음이 우리의 말과 글로 이 땅의 자손만대에 전승되어, 한국불교의 튼튼한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초기불전연구원의 빠알리 삼장 역경불사 [3차 5개년 계획]

■ 제1차 5개년 계획 (2005년 ~ 2009년)
2005~6년 : 디가니까야(장부) 전3권으로 완역출간
2006~7년 : 앙굿따라 니까야(증지부) 전6권으로 출간 진행중
2007~8년 : 상윳따니까야(상응부) 전6권으로 출간예정
2009년 : 맛지마 니까야(중부) 전4권으로 출간예정

■ 제2차 5개년 계획 (2010년 ~ 2014년)
① 율장(위나야 삐따까) 및 논장(아비담마 삐따까) 출간예정
② 쿳다까 니까야(소부)의 장로게, 장로니게, 우다나(감흥어경), 이띠웃따까(여시어경) 출간예정
③ 빠알리-한글 대사전 출간예정

■ 제3차 5개년 계획 (2015년 ~ 2019년)
① 나머지 쿳다까 니까야(소부) 출간예정
② 논장의 주요 주석서 출간예정
③ 빠알리 고유명사 대사전 출간예정

※ 그 외 한역 아함경들을 빠알리 삼장의 언어적 이해를 토대로 새롭게 번역하고 북방불교의 토대인 《아비달마 구사론》 산스끄리뜨 원전 번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기불전연구원 출판도서 안내

디가 니까야(長部, 길게 설하신 경) (1 · 2 · 3)
각묵 스님 옮김 / 신국판(양장)
제1권: 616쪽 / 제2권 600쪽 / 제3권: 688쪽
정가: 각권 30,000원
(초판 2006년, 2쇄 예정) * 제3회 보현학술상 수상

앙굿따라 니까야(增支部, 숫자별로 모은 경) (1 · 2)
대림 스님 옮김 / 신국판(양장)
정가: 각권 30,000원 (초판 2006년)
제1권: 664쪽 / 제2권: 656쪽
* 3 · 4 · 5 · 6권은 2007년에 출간예정임

청정도론(위숫디막가) (1 · 2 · 3)
대림 스님 옮김 / 신국판(양장)
제1권: 536쪽 / 제2권: 584쪽 / 제3권: 536쪽
정가: 각권 30,000원 (초판 2004년, 2쇄 2005년)
* 본원의 자부심. 제13회 행원문화상 역경상 수상

아비담마 길라잡이(아비담맛타 상가하 역해) (상 · 하)
대림 스님 / 각묵 스님 옮김 / 신국판
상권: 490쪽 / 하권: 408쪽
정가: 각권 15,000원 (초판 2002년, 5쇄 2006년)
* 어려운 논서임에도 5쇄까지 출간한 본원의 베스트셀러 불서

네 가지 마음챙기는 공부(대념처경 및 주석서)
각묵 스님 옮김 / 변형신국판 280쪽
정가: 10,000원
(초판 2003년, 개정판 2쇄 2006년)

들숨날숨에 마음챙기는 공부(출입식념경 및 주석서)
대림 스님 옮김 / 문고판 152쪽
정가: 6,000원
(초판 2003년, 개정판 1쇄 2005년)

• 책주문: 054-743-8579, 052-271-8579 (초기불전연구원) 초기불전연구원 홈페이지: http://cafe.daum.net/chobul (초기불교와 아비담마에 대한 자료가 풍부니다)

국립공원 내 사찰경내지 "제외시켜 달라"

조계종 본사주지회의, 국립공원 해제 요구 · 역사문화보전지역 변경 등 촉구

문화재관람료 징수문제가 사회적 파장(본지 제610호 1면 기사 참조)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조계종이 정부당국에 사찰을 국립공원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초강수 카드를 내밀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여론이 악화되자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앞당겨 소집한 조계종은 1월 12일 열린 회의에서 "국립공원 해제를 요구한 장성 백양사의 결의를 지지하며, 사찰 소유지를 국 · 도 · 군립 공원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결의했다. 또 국립공원에 포함돼있는 전통사찰을 역사문화보전지역으로 변경, 소관부처를 환경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조계종은 사찰 경내지가 국립공원 부지에 무상 편입돼 수행환경 침해와 재산권 행사를 제약 받아 온데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까지 요구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 매표소 위치와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사찰 소유토지,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의 역사문화보존구역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뜻을 모았다.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된 1월 1일부터 속초 신흥사와 인제 백담사가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유보하고 있고, 4곳의 사찰은 이미 매표소를 사찰 입구로 변경했다.

특히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정부가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오도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찰이 1억1000만평에 달하는 사찰 소유토지를 공원부지로 무상 제공해 국립공원제도 정착과 운영에 막대한 기여를 해왔는데도 정부당국은 마치 국립공원 구역이 국공유지인양 홍보하고 있다는 것.

이 밖에도 불교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문화재보수 예산의 16.4%만을 지원 받고 있다며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조계종이 이같은 공식 입장을 정함에 따라 정부당국과의 협의 등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당장 16일로 예정된 관람료사찰주지회의에서 매표소 이전 문제와 문화재관람료 인상 문제 등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결정한다.

17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하는 이치범 환경부 장관에게도 교구본사주지회의와 관람료사찰주지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10일 신년인사차 예방한 이정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는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 받았다.

한편 백양사는 1월 7일 열린 고불총림 림회에서 국립공원에서 사찰토지를 제외시켜 줄 것과 백암산 성지 탐방객에 대한 무료 주차공간 제공, 탐방객을 위한 남창지구 추가 개방 등을 결의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수행으로 입재하고 나눔으로 회향하자"

20~21일 포교전진대회

불기 2551년 조계종 포교전진대회가 '수행으로 입재하고 나눔으로 회향하자'는 슬로건으로 1월 20~21일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다.

이번 포교전진대회는 불기 2551년 조계종 포교원 및 각 포교 · 신도단체들이 사업과 포교원의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대회에서는 '수행'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통도사 강주 해남 스님의 수행 특강이 열리며, 108배, 통도사 부도탑에서 금강계단까지 3보 1배가 진행된다.

남동우 기자

제32기 조계종 행자교육

3월 6일부터 직지사서

조계종 제32기 행자교육이 3월 6일부터 28일까지 23일간 김천 직지사에서 진행된다.

조계종 교육원은 1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행자교육원 운영위원회를 열고 32기 행자교육 일정을 확정했다.

남 · 여 행자 260(남 174, 여 86)명이 입교하는 32기 행자교육을 진행하는 임원에는 해인사 율원장 무관 스님이 유나, 조계종 교육부장 법장 스님이 요주로 위촉됐다. 박봉영 기자

태고종 22일 신년하례

선암사서 종단발전기원법회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1월 22일 12시 종정 혜초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종정예하 신년 하례회와 함께 종단발전 기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원로회의 의장 일우 스님, 승정원장 남파 스님을 비롯 총무원장 운산, 중앙종회의장 인공, 사정원장 법장 스님등 종단 간부스님, 선암사 대중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대권후보'들의 佛心잡기 시작

이명박 · 박근혜 · 손학규 등 종단 '발길'





올 12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주자들의 발길이 불교계로 향하고 있다.

1월 8일 이명박 前 서울시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한 것을 시작으로 11일 손학규 前 경기도지사가 신년인사차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했다. 앞서 1월 9일 박근혜 前 한나라당 대표도 천태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들은 대선을 의식한 듯 정치 · 사회 · 경제에 대해 '어려움' '난국' '위기' 발언을 쏟아냈지만, 지관 스님과 정산 스님은 "건강하라" "불교공부하라" "지혜로 국민 뜻 모으라" 등의 덕담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이명박 前 시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지관 스님에게 "부산에 갈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때 범어사 주지스님 등을 만나 풀겠다"는 요지를 설명하고 불교계에 일고 있는 '반(反)MB 정서'에 대한 고심을 털어놓았다(사진 위). 이에 지관 스님은 불교공부를 더 하라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고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전했다.



민생의 어려움과 경제적 위기에 대해 오랜 시간 설명한 손학규 前 도지사에게도 지관 스님은 "대립과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고 덕담만을 건넸다(사진 가운데).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올해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꺼낸 박근혜 前 대표에게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데 힘써달라"고 주문했다(사진 아래).

김원우 · 박봉영 기자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중앙종의회 의장 도정 스님, 감사원장 춘광 스님이 9일 관문사에서 열린 기념사업회 현판식을 봉행하고 있다.

'상월대조사 탄신 100주년 사업회' 현판식

'상월원각대조사 탄신100주년 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가 2011년까지 4년간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1월 10일 서울 관문사에서 중앙종의회 의장 도정 스님, 감사원장 춘광스님 등 천태종 스님과 신도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업회 현판식을 개최했다.

기념사업회는 상월대조사 유적 성역화사업, 학술 출판 사업, 문화예술사업, 홍보 기획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 상월대조사의 업적과 유훈을 선양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종단 위계질서 바로잡겠다"

조계종 호법부장, 마곡사 주지 문제 등 엄정 조사 · 처벌 방침 밝혀

조계종 호법부장 심우 스님이 공주 마곡사 주지 구속건과 부산 마하사 지종 스님 입적과 관련해 종단의 위계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조계종 호법부장 심우 스님은 이례적으로 1월 10일 종단 주간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교구본사인 마곡사 주지가 구속되고 마하사 스님이 불미스럽게 입적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종단의 자정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호법부는 종단의 기강을 바로잡아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뿐만 아니라 "호법부가 너무 강하게 나간다며 걱정하는 분들도 있으나 종단의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불가피하다"며 "옷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종헌종법에 어긋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종헌종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법부 3차 조사중 마곡사 주지가 구속된데 대해 심우 스님은 "검찰에서 밝혀진 내용 외에도 승가대중과 종단의 위상을 떨어뜨린 점은 피해갈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이라며 "호계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1월 22일 이전까지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월 29일 입적한 지종 스님 건과 관련해서도 마하사 주지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쳤으며,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우 스님은 종권과 교권을 수호해야할 호법부가 종단내 불미스러운 사건을 처리하느라 종교편향 등에 힘을 쏟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속내를 표현했다.

앞서 9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김희욱)는 마곡사 주지 구속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위해 제3의 조사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교단자정센터는 논평문을 통해 "총무원, 중앙종회, 출 · 재가 불교단체 등 범 종단으로 조사 기구를 구성해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엄정하게 조사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봉영 · 남동우 기자

'불교문화해설사 보고서' '불교와 사회' 등 발간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이 <불교문화해설사 활동현황 설문조사 보고서>와 <불교와 사회>를 발간했다.

<불교문화해설사 활동현황 설문조사 보고서>는 문화관광해설사와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포교사단 소속 사찰안내팀 포교사들의 활동실태를 함께 조사해 교차분석을 통해 장단점을 비교 ·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들을 토대로 필요한 사항들을 각 사찰, 교구본사, 종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나눠 그 과제와 역할들을 정리했다. 또 최근 문화재관람료 등으로 이슈가 있는 사찰 관람료에 대한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됐다.

남동우 기자

신년하례회 봉행

미륵종, 김해 관음정사서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1월 8일 경남 김해 총본산 관음정사에서 신년하례회를 봉행했다.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미륵종 총정 연화 스님을 비롯 원로원장 연봉, 총무원장 송정, 교육원장 정업, 중앙종회의장 지은 스님, 전국의 종무원장과 종도 150여명이 참석했다.

하례식에서 총무원장 송정 스님은 "올해 종단의 교육을 책임질 승가대학을 개원하고, 전국교구별 승려 합동교육과 신도들에게는 미륵10선법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성 명 서

눈 내린 길을 발자국을 어지러히 남기며 가지마라. 뒤에 따라가는 자의 길이 되나니. 서산대사의 <선가귀감>

승가대중에게 조심스럽게 이 글을 올립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장 제주도 23교구 관음사는 저희들의 행정적, 정신적 본사입니다. 본디 출가본사는 아니었지만 하염없이 가는 세월 속에서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제주도 지역의 승가대중으로 자리잡은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런데 그 23교구 관음사가 문제 사찰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주도 교구가 사고 사찰이 되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행정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배후에서 수렴청정하며 모든 권리행사를 하려는 회주 중원스님의 독선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총무원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주지(용주스님)는 지난 4년간 서울의 한 사찰에 주로 거주하고 월보시만 받아갈 뿐, 관음사는 중원스님께서 회주 중심제라는 특이한 사법을 만들어서 파행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이 지속되다보니 2006년 9월에 주지선출 산중총회와 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후보등록을 받아주지 않아 의도적으로 치루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음사측의 행위가 잘못됨을 인정하여 재선거 명령을 내리자 2006년 11월 29일 다시 산중총회를 붙여놓고 똑같은 방법으로 후보등록조차 받아주지 않아 본사 주지와 종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총무원은 종헌종법을 어기고 제주불교 승가대중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준 명자 전 주지 용주스님의 주지임기가 끝나자 그를 직무대행자로 다시 임명하였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공명정대하게 산중총회를 열어 본사주지를 뽑고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하라는 총무원측의 깊은 배려가 있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그 직무대행기간이 끝나감에도 23교구는 아직도 주지선출과 종회의원 선거를 치루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제주불교를 어지럽히고 승가대중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큰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 종단은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 23교구 제적승 및 제주불교 승가대중들은 존경하는 총무원장 스님이하 종단의 소임자 스님들께 파사현정의 틀을 세워주기를 간절히 발원하며 소망합니다.

이제 총무원은 제주도 불교가 어느 한 승려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종헌종법을 어기고 제주불교를 짓밟는 해종행위를 하는 사람을 더 이상 비호해서는 안됩니다. 총무원은 제주도 교구가 사고 사찰을 만들어 관망만 하지 말고 제주불교가 하루 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올바로 지도하고 관리감독하여 모든 호법역량을 발동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그리하여 제주지역의 스님들이 포교와 수행에 전념하여 제주불교가 발전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지역이 될 수 있기를 저희는 두손 모아 정례합니다.

첫째 : 23교구 산중총회와 제14대 중앙종회위원 선거를 파행으로 몰고 간 교구 선관위원장(현공스님), 현 직무대행(용주스님), 회주 중심제라는 사법을 만들어서 선거를 파행으로 몰고간 회주(중원스님)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둘째 : 현 관음사 집행부 체제에서는 어떠한 선거도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중용의 소임자를 임명하여 주십시오.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정상화를 위한 재적승 및 제주지역 조계종 말사 주지 모임대표

불기 2551년 1월 혜운 · 진우 外 합장

호 소 문

거룩한 삼보에 귀의하오며 종단의 큰 스님들께 호소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제주지역에서 신행생활을 하는 불자들입니다. 제주 한라산 관음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본사입니다. 제주지역의 불자들은 여러 종파를 초월하여 관음사가 저희들의 정신적 귀의처입니다. 그러나 관음사는 언제부터인가 제주지역 불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원성과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십여 년 전 중원스님께서 관음사 주지로 임명받아 오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주지역의 많은 불자들은 이제야 제대로 된 스님이 오시는구나 하며 크게 기뻐하며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실망을 넘어 절망과 원망으로 불자들의 가슴에 상처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린불자들의 요람이었던 연화유치원을 없애버렸고, 대불련, 법우회 등 여러 신행단체 사무실을 폐쇄하여 길가로 내몰았으며 그쪽 스님들 눈밖에 나면 온갖 고통과 수모를 당하고, 심지어는 법적 고발조치까지 당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자라는 자긍심을 잃고 다른 종교로 개종까지 하는 사태를 빚었으며 지금 제주불교는 희망을 잃고 큰 상심에 잠겨 있습니다. 물론 저희에게도 문제는 있었겠지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어느날 부처님과 인연이 있어 불교도가 되었다는 것이겠지요. 저희들은 이제껏 스님들께서 좀 더 잘하시기만을 빌고 발원할 뿐, 대체로 무관심으로 방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스님은 누가 뭐래도 삼보의 하나이므로 재가자가 절집의 일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부끄러운 행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불행하게도 제주지역의 불자들이 종단의 큰스님들과 사부대중에게 호소하는 것은 이제 한라산 관음사는 어느 한 스님의 안위와 욕심을 위하여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3교구본사 관음사는 승려 몇 사람을 위하는 절이 아닙니다. 제주불교와 나아가서는 제주전지역의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구원의 도량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음사는 아직도 진실과 정의가 막혀 어둠의 터널 속에 있습니다. 본사 주지스님과 중앙종회의원 하나 선출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왜 조그만 제주지역 23교구만 문제을 일으키고 불자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지요? 제주지역은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아무리 작은 소리로 쉬쉬하고 있어도 금새 온 동내에 소문이 퍼져버린 곳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저희 불자들을 비꼬아 말합니다. "너희 불교는 아직도 자유당시절의 촌티를 못 벗고 있는 거 같다." 그럴 때마다 불자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힘이 빠집니다.

종단의 큰스님이시여!

이제 제주지역 불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심과 원력 보리심을 키울 수 있는 감로수를 부어 주십시오.

불기 2551년 1월 10일

제주불교거사림 (사)제주도 불교청년 연합회
관음사 자비회, 대불련 제주동문회, 제주불교법우회

“캄보디아 오지로 ‘귀농’ 해
‘새마을운동 신화’ 쓰겠다”
김용연·송계영 부부, 고아원·교육 사업에 여생 바치기로

최근 공중파 방송을 통해 ‘타이거 박’의 이야기가 소개되자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통상산업부 차관을 역임했던 그는 은퇴 후 여러 곳에서 와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농부로 변신, 여생을 필리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불교계에도 ‘타이거 박’ 못지 않은 사람이 있다. 주인공은 김용연(61·혜림) 송계영(61·혜림화) 부부. 부부가 여생을 캄보디아에서 회향하기 위해 1월 15일 출국했다.

남편 김용연 박사(농학)는 KT&G 중앙연구원 생물자원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해 오다 2006년 12월 31일자로 퇴임했다. 수원포교당(주지 성관) 거사회 회장이기도 한 그는 여생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준비했지만 무언가 허전했다. 열심히 살았지만 처자식을 위해서였을 뿐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그런 그를 캄보디아로 이끈 것은 아이들의 눈망울이었다. 지난해 9월 캄보디아에서 본 현실은 말 그대로 지지리 궁상이었다. 높은 문맹률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며 그는 한국전쟁 직후 우리의 삶을 떠올렸다.


캄보디아에서의 봉사활동을 위해 1월 15일 출국한 김용연 송계영 부부. 부부는 여생을 캄보디아에서 회향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망울은 살아있었다. 그는 그 아이들의 눈망울에서 희망을 발견했다.

김 박사 부부가 캄보디아로 ‘귀농’할 뜻을 밝히자 여기저기서 반대했다.

환갑 나이에 오지에서 고생할 것을 염려해서다. 특히 울면서 반대하는 자녀들을 설득하는 데만 4~5개월이 걸렸다.

김 박사 부부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대표 성관·효림)의 BWC(Beautiful World of Cambodia) 고아원 및 교육시설 사업에 뛰어든다. 특히 인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식 ‘새마을운동’을 펼칠 생각이다.

농학박사인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해 현지에 맞는 농법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캄보디아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인층이 많아져야 한다는 점에 착안, 지식인 양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30여년 전. 지방의 유지였던 아버지가 달랑 수의 한 벌 걸치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불교에 귀의했던 그는, 거사회 회원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출국했다.

“우리가 부처님 가피로 잘 살아오고 있지만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국가인증프로그램 획득
파라미타 24개 분야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의 ‘문화재모니터활동 외 24개 프로그램’이 국가에서 증명하는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으로 인증 받았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일정기준 이상의 형식적 요건과 특성을 갖춘 청소년 활동이 정당한 절차로 성립되었음을 국가에서 증명하는 것이다.

문화재모니터활동은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구 불교문화 및 역사문화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자원봉사활동이다.

2007년 파라미타의 문화재모니터활동은 학기 중 주5일 수업제에 대체해 진행되며 조계사, 우정총국, 경복궁 등 3곳의 문화 유적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02)723-6165

노병철 기자

“봉사 참여할수록 노후 즐겁다”
시용 스님, 노인자원봉사자 200명 연구…원광대서 박사학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천태종 교무국장 시용 스님(오산 황덕사 주지·사진)의 원광대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논문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밝혀졌다. 논문의 설문은 2006년 9월 27부터 10월 21일까지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장 빠른 강원도 지역 춘천 동해 원주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참여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자원봉사에 참여한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고(76.25%), 과거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다음(69.09%)이며, 자원봉사 경험이 없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게(69.75%)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노인중 종교적으로는 원불교 유교등 기타종교인의 생활만족도가 77.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가톨릭 76%, 불교 70.49%, 개신교 67.63%, 무교 67.91%순이었다.

봉사방법으로는 여자 노인의 경우 노력봉사를 가장 많이 했다. 남자 노인은 차량지원 질서 학습지도 상담 교통지도 순으로 봉사방법을 선호했다.

시용 스님은 “노인의 자원봉사가 생활만족도를 높인다는 사실이 검증됐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포교의 지평 넓히기 나섰다
포교사단, 교육관 개관·각종 신규사업 확정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양성홍)이 교육관을 마련해 수행과 교육에 박차를 가한다.

포교사단은 1월 7일 서울 성북구 대원암 내에 마련된 교육관에서 개관식을 봉행했다. 교육관은 약 200평 넓이의 공간에 다목적 교육관(수행관)과 강의실, 소회의실, 사무실, 합창 및 의식연습실 외 기타 활용 가능한 부대시설(조리 및 세면)로 구성돼 있다. 교육관은 필요시 24시간 개방되며 각종 수행과 기도, 교육 목적 외에도 각 분야별 워크숍(세미나), 정기모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02)927~0588~9

한편 포교사단은 이날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불기 255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통과



시켰다(사진).

주요 사업으로는 △포교-지역사찰과 지역사회 연대활동(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화포교 사업 확대) △조직-포교네트워크 구축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업무 지원 △교육-포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 실시 △기타-지역별 단위사업 지도 등이 확정됐다.

남동우 기자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강원불교련 신흥사서 신년하례법회 봉행

강원불교연합회(회장 정념·월정사 주지)는 1월 9일 속초 신흥사 설법전에서 불기 2551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신흥사 회주 무산,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김진선 강원도지사, 손학규 前 경기도지사 등 1000여명이 참석한 법회는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기원법회를 겸해 열렸다. 법회는 삼귀의에 이어 신흥사·낙산사 연합합창단 찬불가로 시작됐으며 태고종 강원교구 포교원장 법선 스님의 기원사, 정념 스님의 봉행사, 천태종 삼운사 주지 월도 스님의 발원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법회에서 무산 스님은 “모든 불자와 국민의 마음을 모아 2014평창동계올림픽을 국민축제로 만들어야 하며, 연말 대선도 국민들이 주인노릇을 잘하는 국민축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법문했다.

남동우 기자

“미디어센터 역할수행 불교방송의 새 비전”
이사장 종하 스님 취임사서 밝혀

“불교방송의 지방국은 물론 나아가서 영상매체와 활자매체도 함께 하는 경영을 구상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불교방송 제5대 이사장 종하 스님은 1월 8일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열린 취임식(사진)에서 취임법문을 통해 “불교방송 발전의 제2기의 문을 활짝 열어 21세기 공중파 방송에 걸맞는 불교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종하 스님은 또 “불교방송도 자체 사옥을 건립해 우리 한국 불교의 명실상부한 미디어센터로서의 역할을 해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하 스님은 1997년 발생한 불교방송 경리부정사건과 관련 “본인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 발생한 사건이어서 지금도 저의 가슴에 아픔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서울 흥천사 토지 불법매매
조계종, 진상조사 착수

조계종 사찰에서 종단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토지를 매매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조계종 호법부장 심우 스님은 1월 10일 서울 흥천사 주지였던 ㅈ 스님이 지난해 7월 H주식회사에 흥천사 소유 토지 7필지 15305㎡(4630평)를 100억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호법부는 직후 흥천사 토지매매 관련 서류일체와 주지 직인, 통장 등을 압수하는 등 조사에 들어갔다. **박봉영 기자**

금강산 신계사서 세미나
종단협 인권위, 20~22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지원 한상범)와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 신계사에서 법회 및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첫째 날 세미나, 둘째 날 신계사 및 법기암터 참배, 셋째 날 만물상·삼일포·해금강 관광 등으로 진행된다. **남동우 기자**

성도재일 불자화합축제
대전 비구니청림회

조계종 대전 비구니청림회(회장 영진)는 1월 26일 오후 2시 충남대 정심화홀에서 제21회 성도재일 불자화합 대축제를 연다.

부처님 되신날(성도재일)을 기념해 열리는 이날 법회에서는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이 법문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지리산자연의학교실 강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26일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는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인드라망 지리산교육원(실상사 귀농학교)에서 지리산자연의학교실 1월 강좌를 실시한다.

김희윤 녹색대학 자연의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및 운영위원의 강의로 진행되는 강좌는 △자연의학 개요 및 기초이론 △자연의학의 인체관 △음양오행의 기초 △진단, 장부와 경락 △경락 경혈의 이해 △취혈(혈자리 찾기) 실습 △자연의학 실습 등으로 이뤄진다. 접수마감은 1월 24일까지. (063)636-3776 **남동우 기자**

스리랑카 복지타운 총괄 담당자 공개모집

조계종은 스리랑카 현지에서 복지타운 건설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를 선발한다.

지원자격은 영어 혹은 스리랑카어가 가능한 자로서, 스님은 구족계 수지자, 재가자는 불자여야 한다. 근무기간은 2007년 1월 말부터 6월 이전까지. 1월 11일부터 17일 오후 2시까지 사회부 국제팀(02-2011-1830)으로 접수하면 된다. **남동우 기자**

봉 청림회 성도재일 불자화합 대축제 행



대전지역 비구니 청림회 (회장 영진스님)는 불기2551년 부처님 되신날(성도재일)을 기념하는 대법회를 준비하면서 매년 새로운 모습의 대법회 준비와 수준 높은 공연을 준비하고 후학들에게 작은 정성을 전달하는 큰 불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21회를 맡는 성도재일 대법회는 승가원 이사장이신 종범 큰스님을 모시고 대한불교 조계종 대전지역 비구니 청림회스님들의 원력으로 봉행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07년 1월 26일 오후 2시
◆장 소 : 충남대학교 정심화홀
◆법 사 : 종범스님 (승가원 이사장)
◆주 최 : 대한불교 조계종 대전 비구니 청림회
◆후 원 : 동학사 승가대학. 백제불교. 대전시청불자회. 충남도청 불자회 대전 5개구청 불자회. 경찰 불자회. 운전자 불자회 대전지회. 현대불교신문사 대전. 충북지사
◆문 의 : 042)541-1505,222-7090
◆공 연 : 김영동 외 12명
◆장학금 전달 : 보문고교 10명 / 충남대학교 포교 지원금


지도법사 : 종범 큰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대전 비구니 청림회 회장 영 진 합장

“화합·상생으로 종교간 갈등 풀자”

불교교권수호협, 23일 부산 KBS홀서 ‘종교평화 기원 불교수호대법회’

“어리석은 청년들이 기도한다고 불교가 무너지겠는가? 그들의 어리석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참다운 종교관을 키워주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주인이 주인노릇을 똑바로 못하니 남의 집을 함부로 넘보는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불자들이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고 결속력을 보여줘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6년 6월 4일 벡스코에서 열렸던 개신교 청년단체 기도회에서 ‘사찰이 무너지도록’이라는 기도 문구를 사용하며 구체적인 사찰명까지 거론하는 불상사가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한 부산교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그러나 부산불교계는 침묵하지 않았고 엇갈리는 의견들을 모아 부산불교계 출재가가 대대적으로 참석하는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개신교 청년단체를 향한 공개 항의 및 사과 요구는 물론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을 고심해왔다.

불교교권수호협의회(상임대표 정각) 주최로 1월 23일 오후 3시 부산 KBS홀에서 열리는 불교수호대법회도 부산불교계의 이 같은 노력 중의 하나다. ‘종교평화’를 대전제로 열리는 대규모 불교수호대법회는 타종교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일부 몰상식한 이들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부산불교계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며, 더불어 불교계 내부의 정진력을 새롭게 다지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부산불교계의 움직임은 그동안 수많은 훼불사건이나 교권침해 사례를 접하면서도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던 불교계가 이에 대응하는 전담기구를 만들고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나선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호법단 구성 및 3000배 정진기도
반야심경 사경 발원문 작성 사업도
3월에도 발심대법회 개최 예정

23일의 행사는 부산불교계 행사 중 최대 규모인 500여명의 스님들이 참석하는 것을 비롯, 5000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종교편향과 불교탄압 및 훼손 사례 전시, 교권침해 · 불교탄압 사례 발표, 영상물 상영, 참회정근, 호법단 발대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불교중흥과 교권수호를 위한 호법단 발대식. 신행단체 또는 사찰 신도 108인으로 구성될 108호법단은 2월 2일 교권 수호를 위한 3000배 용맹정진기도를 하게 되며, 각 사찰별로 호법단을 꾸려 지속적으로 교권수호와 불교중흥을 위한 기도회를 봉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권수호협의회는 교권 수호 움직임이 단순히 개신교 청년연합의 기도회에 대한 대응으로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매일 반야심경 1회 사경과 발원문 작성, 불교수호 기도금 모금, 교권침해 사례 모음집 발간 등의 사업을 꾸준히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권수호협의회 상설화를 추진 중이며 호법단 3000배 기도회향과 사암연합회 기도 등의 열기를 이어 3월 중으로는 발심대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이러한 교권수호의 열기를 2007년 봉축 법요식에 맞춰 불교중흥의 기틀로 삼겠다는 각오다.

한편 2006년 6월에 열렸던 기도회에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냈던 이명박 前 서울시장이 1월 23일 범어사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의 청년들은 이명박 前 시장의 범어사 방문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051)866-3386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그림 속 불보살도 미소 짓네!

범어사, 불우이웃돕기 선서화展 열어

초의 선사 그림 첫 공개 눈길



묵향에 더해진 선향(善香)이 부산시청 전시실에 가득하다.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대성)가 1월 12일부터 21일까지 부산시청 제 1,2,3전시실에서 2007 범어사 선서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전 전시회에서 최초로 일반에 공개되는 초의 선사의 그림(사진)을 비롯, 고승대덕의 작품 300여점이 전시실을 장엄한다.

12일 오픈 기념식으로 시작된 이번 전시회는 불우이웃돕기와 장학기금 마련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전시회 자체만으로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300점이라는 작품 수는 물론 초의 선사의 그림, 청담 스님의 글, 경봉 스님의 전신달마, 서암 스님의 그림 등 작품의 가치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전시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전시 이후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기증될 예정인 초의 선사의 그림. 무불, 석정, 일미 스님을 거쳐 오며 소중히 간직돼 오던 초의 선사의 그림은 시대를 지나도 변함없는 불보살의 미소를 간직한 채 일반인의 마음을 붙든다.

이 밖에도 월하, 석주, 일타 스님 등의 선서화와 쌍계사 조실이자 원로의원인 고산, 영주암 조실 정관, 범어사 주지 대성, 선암사 주지 원범, 여여선원장 정여스님 등의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뿐만 아니라 작가 이외수씨, 학정, 정로, 소공거사 등 화단에서 인정받는 거사들의 작품들로 다채로움을 더한다.

특히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이 소장해 오던 작품과 선암사 주지 원범 스님이 10여 년 동안 수집하고 소장해오던 작품들을 흔쾌히 기탁된 것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051)508-3122

천미희 기자

“기도는 국가발전 이끄는 원동력”

법연원, 나라위한 천도기도법회 봉행



(사)법연원(회주 조연)는 1월 11일 부산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나라발전을 위한 천도기도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2004년, 2005년에 이어 3회째인 81일간의 용맹정진기도를 마무리하는 천도대재 회향을 겸한 법회로 50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사진).

(사)법연원 회주 조연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봉행되는 천도기도법회를 통해 개인의 건강 및 가정의 화목은 물론 사회 안정과 경제 성장 등을 서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前 대각사 주지 흥교 스님은 법문을 통해 “기도의 원력은 개인의 삶은 물론 나라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며 “법회 참석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용맹정진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사회를 맑히는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연원은 2000년 일본 탄광 수몰자 위패를 법당에 안치하고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법회를 열어온 데다 장애자, 정신지체인, 정신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옴으로써 이날 법회에서 관련 사회단체 23곳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이날 법회에는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 허남식 부산시장, 손학규 前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종교계, 정계, 재계, 언론계, 사회 각층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천미희 기자

범어사 특색있는 템플스테이
태극권 한지공예 주제로

‘사하촌 주민들과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템플스테이’ 등 여느 사찰에서 잘 시도하지 않는 독특한 프로그램이 많은 템플스테이를 자랑하는 곳이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다.

선찰대본산 범어사가 올해는 ‘전통 한지공예’와 ‘태극권’을 주제로 한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태극권 1차 템플스테이를 연 것을 시작으로 17일부터 19일(태극권 2차), 21일부터 23일(전통한지공예 1차), 26일부터 28일(전통한지공예 2차)로 이어진다.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열리는 이번 템플스테이는 전통한지를 뜯고 찢어서 붙이면서 연필꽂이, 사각접시, 액자, 찻상 등을 만들어보는 시간으로 꾸며지며 태극권 템플스테이는 지도법사 현담 스님의 지도 아래 기본 행공(양생공), 정요 18식(진씨 태극권) 등 동작을 배우게 된다.

특별 프로그램뿐 아니라 스님과 함께 하는 사찰 예절, 108배, 참회 정진 기도 등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대상은 초등부 고학년, 중등부, 일반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은 범어사 홈페이지(www.beomeosa.co.kr)에서 할 수 있다. (051)508-3122-5

천미희 기자

불교기초영어강좌 개설
영남불교대학 27일부터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가 불교교리를 영어로 강의하는 불교기초영어강좌를 개설한다. 조계종에서 실시하는 국제포교사 양성과정 영어시험에 대비하고, 사찰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사찰안내 및 불교교리를 영어로 설명하며, 국제화시대에 영어를 통해 불교를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1월 27일부터 시작되는 강좌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동안 진행되며,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UC Berkeley)대학에서 연수한 조계종 국제포교사 우성연 강사가 강의한다. 강의 내용은 불교용어, 부처님의 생애, 교리, 사찰안내 등이다. 회비는 월 2만5000원이다. (053)474-8228

배지선 객원기자

“여성불자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야”

17일 부산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1주년 기념법회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원장 이영숙)이 창립 1주년을 기념하며 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기금 마련에 나선다.

1월 17일 부산 코모도호텔 희락정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와 함께 바자회를 열고 여성 불자들을 키워내기 위한 역량 모으기를 시작한 것이다.

오전 10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시 창립 1주년 기념법회가 이어지며 밤 9시까지는 불교용품, 한지공예, 도자기, 찻상, 고가구 등의 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은 설립과 동시에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여성 불자들의 지혜로 사회를 이끌겠다는 설립 취지를 확고히 다져왔다.

2006년 3월에는 ‘21세기 여성불자의 사명과 여성불교운동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부산불교여성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일반 회원 모집 등으로 여성불자들의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는 견인차가 되고 있다.

이영숙 원장은 “불교계에서 여성들의 활동은 매우 활발하다. 그러나 그 역할들이 아직도 조직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게 사실이다.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불교발전을 위해 여성들의 지혜를 보탤 수 있도록 여성 불자들의 인재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016)251-3582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국 : (011)571-5316
울산지사 : (052)272-0909

종교평화를 기원하는 불교수호대법회



▣일시 : 2007년 1월 23일(화) 오후 3시
▣장소 : KBS부산홀
▣주최 : 불교교권수호협의회
▣후원 : 부산불교연합회, 부산불교신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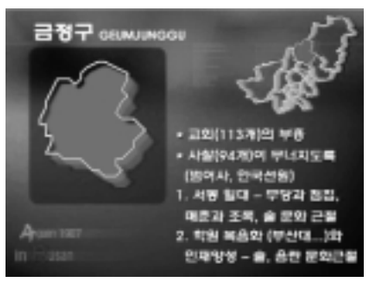
행사프로그램안내
▶ 1부 식전행사 : 문화공연(길놀이,살풀이, 타악퍼포먼스)
▶ 2부 대법회
– 개회선언 – 삼귀의 – 반야심경 – 내빈소개
– 경과보고 – 영상물상영
– 교권침해와 훼손사례발표
– 대표자연설 – 참회정근
– 불교중흥과 교권수호를 위한 108호법단 발대식

행사안내 및 문의 : 불교교권수호협의회
전화 (051) 866-3386 (팩스공용)

후원계좌 : 국민은행 115301-04-004921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모이자! 불교수호 대법회로…

■ Again 1907 in Busan
동영상자료 中



금정구 기도내용

▶ 교회 (113개)의 부흥과 사찰(94개)이 무너지도록(범어사, 안국선원등) 기도

▶ 그외 부산경남지역사찰 모두 무너지도록 기도

108 호법단 모집

■ 2월 2일 범어사에서 부산불교중흥을 위한 3000배 철야정진기도 입재
(108호법단 가입희망자 전화 051-866-3386)

부산 불자들이여…

사찰을 무너지라고 한들 진리가 무너지겠습니까?
다만 붓다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일어섭니다.
불자들이여 모입시다. 불교수호대법회로 !!!

어리석은 자가 바로보지 못함이 고통의 원인이라 하였듯,
바로 알지 못하는 이들을 일깨우기 위해 더욱 정진해야 합니다.
불교수호대법회를 통해 어리석음을 일깨웁시다 !!!

나만 옳고 잘났다는 선민사상은 세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전쟁에 수없는 생명이 죽었습니다.
더불어 살기 위한 세상을 위해 불교수호대법회로 모입시다 !!!

호남 **광주** 미륵사 경기 **광주**에 복지도량 설립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들어 봅시다"

불교복지를 펴고자하는 빛고을 광주 불자들의 원력이 경기도 광주에까지 퍼졌다.

광주 주월동 미륵사(주지 혜법)는 1월 8일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북문 입구에 미륵사 선재원을 설립하고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점안법회에서 혜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선재원 개원과 함께 본격적으로 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혜법 스님이 불교복지를 서원하고 광주 무등산에 미륵사를 개창한 지 10년만이다. 이날 스님은 점안식 내내 눈시울을 적셨다. 지난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기 때문이다. 스님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부모님의 사업실패로 가정이 파산됐다. 7남매의 장녀로 졸지에 소녀가장이 되었고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공부하고 싶었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었던 마음이 불교복지를 펴겠다는 원력이 되었다.

스님은 미륵사에서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모시고 살았다. 음식에 남다른 재주가 많은 스님은 신도들과 함께 불우한 이웃을 찾아가 음식공양을 올렸다.

2004년 초파일을 앞둔 어느날, 그린벨트에 세워진 법당이 불법건물 철거반에 의해 허물어졌다. 또다시 하루아침에 가족이 흩어져야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듬해 공양주보살을 위해 마련해준 음식점이 운영난에 허덕이자 음식점을 아예 법당으로 바꾸었다. 저자거리에 미륵사를 다시 개창한 것이다. 희유하게도 수행환경은 어려워도 스님의 기도와 원력에 감응한 신도들이 몰렸다.

지난해에는 선재원봉사단(단장 구만본)



미륵사 선재원 봉사단이 지난해 12월 광주사직공원에서 노인들에게 떡국공양을 올리고있다.

웰빙식당 운영해 신행 보금자리 꾸려
주부 일자리 창출 앞장…노인 요양원도

을 창설했다.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면 시,공간을 초월해 100여명의 회원이 모인다. 선재원 봉사단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소외된 이웃과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 공양을 올리고 있다. 동짓날에도 소년원, 요양원, 복지관 등에 동지죽 5000 그릇을 공양했다.

미륵사 선재원의 음식은 독특하다. 떡국을 끓여도 울긋불긋 색이 나는 웰빙식이다. 단호박, 흑미, 녹차잎 등으로 갖가지 색을 내기 때문이다.

이번 성도재일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미륵사 살림이 어려워도 해마다 4-5명의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만은 빠트리지 않았다.

이제 미륵사 선재원은 영광군 바닷가에 1만여 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생산활동에 들어간다. 스님의 주특기인 음식을 이용해 주부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금을 장학금과 노인복지 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다음달에는 노인 요양원 기공식도 갖는다.

이번에 개원한 경기도 광주의 미륵사선재원도 본래 음식점이었다. 남한산성 입구에 있는 가든을 사찰로 개창한 것이다.

이곳에서는 정진뿐 아니라 노인들을 모시고 살면서 주부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062)672-0009

이준엽 기자

'행복한 해남만들기' 불자들 앞장

대흥사 · 사암련, 군민안녕 위한 신년기원법회 가져

해마다 새해가 시작되면 해남의 스님과 불자들은 지역 기관장과 군민을 초청해 지역군민의 안녕을 기원한다.

금년에도 해남불교사암연합회와 대흥사는 1월 9일 대흥사 보현전에서 '해남군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신년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해남지역 사암 스님과 박희현 해남군수, 김평윤 군의장, 권세도 경찰서장 등 지역 기관단체장과 신도회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흥사 주지 몽산 스님은 신년법어에서 "누구나 부처님 대하듯 존중할 때 갈등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다 잘 사는 해남이 된다"며 '새해에도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기'를 기원했다.

지역기관 및 단체장들도 "행복한 해남 만들기에 불자들의 동참을 바란다"며 신년 덕담을 폈다. 이어 참석자들은 대흥사 신도회가 마련한 떡국으로 조공을 했다. 이준엽 기자



해남지역 신년하례법회에서 해남 대흥사 주지 몽산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충남동부지국 : (010)3069-3170



서옹 스님 3주기 추모재 백양사서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성오)는 전 조계종 종정 서옹 스님 열반 3주기를 맞아 1월 7일 대웅전에서 추모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추모법회에는 방장 수산 스님, 대흥사 조실 천운 스님, 조계종 前 포교원장 암도 스님 등 문도 스님과 불자 200여명이 동참했다.

방장 수산 스님은 "근세 큰스승인 서옹 스님은 '참사람 주의'를 주창하고 평생 참사람 운동을 이끌었다"고 추모했다.

이준엽 기자

곡성 미륵골에 무각사 '우뚝'



곡성군 미산마을에서 사찰건립을 발원하며 정진하던 성효 스님은 1월 10일 미륵골에 무각사를 창건하고 대웅전 부처님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무각사는 대웅전, 산신각 등의 전각과 요사채 등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13평 규모의 다선정을 지역민과 불자들이 차를 마시며 쉬어갈수 있도록 일반에 개방했다. 이준엽 기자

화엄사서 겨울불교학교 개최
순천 금당절, 110여명 참가



겨울불교학교 입제식을 마치고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오른쪽에서 두번째)과 기념촬영.

순천 금당절(주지 범일)은 1월 9일~11일까지 3일간 구례 화엄사에서 겨울불교학교를 운영했다.

'나는 누구지!!! 나를 찾아 떠나는 겨울불교학교'를 주제로 열린 이번 겨울학교는 순천,여수지역 초등학생 112명이 참석했다. 이번 겨울학교는 촛불명상, 스님과 함께 떠나는 산행,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준엽 기자

생활 속 불교문화

송광사 능허교 엽전 세 냥



송광사 능허교밑 용이 물고 있는 여의주에 엽전 세 냥이 철사줄에 꿰어져 있다.

예로부터 불가에서는 '돈에도 생명이 있다'고 했다. 시주자의 생명이 담겨있기에 허투로 쓰지 않았다.

순천 송광사(주지 영조)에 가면 옛 스님들이 속세의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엿볼 수 있다.

송광사 일주문을 지나면 왼편으로 흐르는 시내를 만난다. 여기를 건너야 부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물과 돌다리, 누각이 어우러져 송광사에서 경치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세속과 불(佛)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는 무지개 형태의 돌다리인 능허교(凌虛橋)이다. 바로 이 다리 아래에 용머리가 놓여있고, 용이 물고 있는 여의주에 엽전 세 냥이 철사줄에 꿰어있다.

이 엽전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져 내려온다.

조선 숙종 33년(1707)경 돌다리를 세울 때로 추정된다. 주지스님은 다리 불사를 위해 예산을 세우고 화주를 시작했다. 무사히 불사를 회향하고 나니 동전이 세 냥 남았다. 돌다리 불사는 끝났는데 남은 돈이 문제였다. 시주받은 금품을 다른 일에 쓰는 것은 호용죄(互用罪)에 속하는 것으로 율장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대중스님들은 돌다리 아래 손이 닿지 않는 용머리에 철사를 꿰어 남은 돈을 매달아 두기로 했다. 훗날 돌다리를 보수하거나 새로 건립할 때 보태 쓰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시주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송광사 스님들의 마음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77년, 송광사 범종불사를 할 때였다. 취봉 노스님이 당시로는 거금인 150만원을 불사금으로 내 놓았다. 이 돈에는 뜻하지 않은 사연이 담겨있었다.

송광사는 6 · 25전쟁당시 큰 화재로 대부분의 전각과 종고루가 소실되었다. 전쟁이 끝나자 중창불사를 하면서 종 불사를 함께 했다. 당시 송광사 주지였던 취봉 스님은 종 불사를 위해 화주한 돈으로 범종을 주조하고, 남은 시주금을 딴 곳에 전용하지 않고 남겨두었다. 그러다가 종이 깨져 다시 종 불사를 하게 되자 불사금으로 내 놓은 것이다.

구산 스님과 함께 송광사 복구를 위해 혼신을 다했던 취봉 스님은 오랜 주지생활에도 사방승물과 개인사물을 엄격히 구분하여 공사를 분명히 했다. 어느 때보다도 사중살림이 어려웠던 시절에 범종불사를 마치고 남은 돈과 20년간의 이자를 챙겨놓았던 것이다.

용이 엽전 세 냥을 물고 있는 능허교 위에는 '날개가 생겨 날아올라 신선이 된다(羽化登仙)'는 우화각(羽化閣)이란 누각이 있다.

한 푼의 오차 없이, 한 생각의 빚진 마음 없이 인과에 분명한 이라야 능허교를 건너 우화등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능허교를 바라보고 있다보면 돈에도 생명이 있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옆구리에서 날개가 나와 부처님 세계로 날아간다는 법음이 들리는 듯하다. 이준엽 기자

"시줏돈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돌다리 불사 끝나고 남은 돈 매달아 둔 것

아프리카에 한국불교를 전하러 갔던 동봉스님께서 2006년 11월 30일부터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101일 국토 대장정 고행정진"**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경기도 광주 우리절에서 출발하여 하루하루의 고행정진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3월 10일 임진각에서 회향식이 봉행됩니다.

국토대장정 목적 과 방법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동봉스님의 고행정진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불교 최초로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진출을 위한 기금조성. 둘째,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동시 평화적 남북통일의 염원이며. 셋째, 가정경제를 비롯하여 사회경제 국가경제 살리기. 넷째는, 삼보님과 시주의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입니다.

고행정진의 방법에 대해서는 출발한 당일로부터 회향하는 날까지 매일 20킬로미터(약50리) 정도를 도보로 걷습니다. 걷는 동안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세간의 다양한 모습과 소리를 들으면서 상담하고 봉사도 합니다. 매일같이 소원들을 모아 아침에는 금강경을 읽고 저녁에는 아미타경과 초발심자경문을 읽으며 기도 축원을 드리며, 중생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민박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와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1차적 방법이므로 도보대장정하는 그 지역에 따라 얼마든 가능합니다.

고행정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 중에 직접 몸으로 정진할 분들은 승속 남녀노소 누구든 가능합니다. 동참기간도 단 하루에서부터 3일간, 5일간, 7일간, 21일간, 또는 전체 기간을 함께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참여하는 불자님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부처님께 기도하고 축원을 합니다.

고행정진기간을 딱 떨어지는 100일로 하지 않고 101일로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함입니다.

우리절 회주 비구東峰正休 합장

010-4800-0882 / kipoo255@yahoo.co.kr / db4676@chol.com

후원입금계좌 : 우리은행 338-058787-13-001(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우리절)

● 정진기간 : 2006년11월30일부터 ~ 2007년3월10일까지 ● 출발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 회향장소 : 임진각

● 후 원 : 태광엠티씨(주) 태광실업주식회사 정산컨트리클럽 HU-CHEMS 휴켐스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우리절 동선회 목련사랑

국토대장정 일정표 (기상상황에 따라 약간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토대장정 고행정진 출발시간 - 아침 08:00

제 8주 1월 18일 - 1월 24일 [153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1월 18일[목]	내사읍고개	-	성전암	24km
1월 19일[금]	성전암	-	진성읍	23km
1월 20일[토]	진성읍	-	진주시	20km
1월 21일[일]	진주시	-	원전면	22km
1월 22일[월]	원 전	-	횡천역	23km
1월 23일[화]	횡천역	-	진 상	20km
1월 24일[수]	진 상	-	광양읍	21km

제 9주 1월 25일 - 1월 31일 [158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1월 25일[목]	광양읍	-	별량면	20km
1월 26일[금]	별 량	-	열가재	22km
1월 27일[토]	열가재	-	보성읍	22km
1월 28일[일]	보성읍	-	장흥읍	27km
1월 29일[월]	장흥읍	-	강진읍	21km
1월 30일[화]	강진읍	-	학 산	26km
1월 31일[수]	학 산	-	목 포	20km

※위 국토대장정 일정표는 현대불교신문에 2주차씩 연속해서 회향 일정까지 게재해 드립니다.

謹賀新年 佛紀 2551年

2007년 丁亥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현대불교신문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본 광고는 현대불교신문사를 응원하는 격려 광고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 흥 사

조 실 천 운
회 주 보 선
주 지 몽 산

사부대중 일동

"사부대중의 염원을 모아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번지
전화 061)534-5502 www.daeheungsa.co.kr

산사체험 '새벽숲길' ◇기간: 매주 금,토,일
◇예불,참선,새벽숲길 산책,독서,산행,사찰예절 익히기, 차마시며 스님과 대화,남도문화 체험
◇접수: 대흥사 홈페이지-새벽숲길 ◇수련원.템플스테이 (061)535-5775

※본 광고는 현대불교신문사를 응원하는 격려 광고입니다

지리산 대 화엄사

주 지 종 삼

사부대중 일동

"사부대중의 염원을 모아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번지
전화 061)782-7600 www.hwaeomsa.org

<2007-겨울 선 수련회>
◇일시: 1월 19-24일(5박6일) ◇접수: 화엄사 홈페이지-산사체험

※본 광고는 현대불교신문사를 응원하는 격려 광고입니다

백제불교 초전가람지

불 갑 사

조 실 수 산
주 지 만 당

사부대중 일동

"사부대중의 염원을 모아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남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8번지
전화 061)352-8097 www.bulgapsa.org

謹賀新年 佛紀 2551年 丁亥年

대한불교 조계종

전법도량 향 림 사

조 실 석천운
주 지 혜 향

광주 광역시 서구 치평동 251-3번지
전화 062)375-7600-2 / 팩스 062)375-7603

◇향림출판사 062)375-7601 ◇광주불교대학.대학원 062)375-7633/(F)375-7603
◇향림유치원.어린이집 062)375-7604-5 ◇향림사 신용협동조합 062)375-7655,7606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현비동산 062)375-4566,4568/(F)375-4522,
자비노인요양원 062)375-5225, 6556/(F)375-7608, 아동보호시설 062)375-7600
◇우산동 종합사회복지관
광주시 북구 우산동 우산주공아파트 3단지 062)266-3851,3853/(F)266-3626
◇천운 어린이집 062)266-3854

謹賀新年 佛紀 2551年 丁亥年

조계산 천 자 암

조 실 활 안
원 주 문보덕화

사부대중 일동

전남 순천 송광면 이읍리 1
전화 061)754-3708

謹賀新年 佛紀 2551年 丁亥年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자문위원 지선 성호 영조 상명 현지. 혜향

회 장 지각
수석부회장 도산
부 회 장 진화 일화 월인 설래장 상운 혜명
감 사 정선 시각

기획실장	무등	재무부장	월룡	문화국장	수연	복지부장	상용
기획국장	일주	호법부장	봉곡	홍보부장	도제	섭외부장	도원
총무부장	무심	호법국장	선각	의전부장	우하	조직부장	원진
총무국장	혜법	포교부장	혜월	사회부장	보각	교화부장	정보
교무부장	진표	문화부장	일명	교육부장	명신	교화부장	도신

광주시 서구 치평동 산 1번지 불교회관
전화 062)376-3223 / 팩스 062)376-3224

일주문



전남발전 기원 신년 하례법회

조계종 광주전남 4교구본사 주지회의 회장 몽산 스님은 1월 18일 오전 11시 무안 광주도청 김대중홀에서 전남발전을 위한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한다.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1월 16일부터 11주간 봉은사 수련원 내 연수원에서 '제2기 간화선 입문프로그램'을 운영한다.(02)511-6070



교육부총리 표창 받아

부산 천불정사 주지 고담 스님은 1월 4일 부산에 대학생 기숙사를 기증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총리 표창을 받았다. (051)583-9233



몰운대복지관장 취임

서봉 스님이 1월 1일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에 취임했다. 그동안 부관장을 맡았던 스님은 합천군청소년수련관장을 역임했다. (051)264-9033



관장 취임 기념 무료대중공양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성산 스님은 1월 11일 5대 관장에 취임한 것을 기념해 지역 장애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대중공양을 열었다. (02)989-4215



청도 운문사 주지에

조계종 제11대 종회의원을 지낸 진성 스님이 청도 운문사 주지에 임명됐다. 진성 스님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역임했다. (054)372-8800



남도대학 제2대 학장 취임

前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노옥섭 회장은 1월 9일 전남도립 남도대학 제2대 학장에 취임했다. 노 학장은 감사원 사무총장과 감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운덕 스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통일기반 조성 공로…춘광 스님 민주평통의장 표창



1월 9일 열린 국민훈장 수여식에서 천태종 前 총무원장 운덕 스님(오른쪽)이 모란장을 서훈받고 있다.

천태종 前 총무원장 운덕 스님이 1월 9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열린 국민훈장 수여식에서 모란장을 서훈받았다.

운덕 스님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은 천태종 총무원장으로 재임하면서 2005년 북한의 개성 영통사를 성공적으로 복원했으며, 북한 돕기운동에 적극 동참해 통일기반 형성에 이바지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은 데 따른 것이다.

운덕 스님은 1966년 구인사에서 상월원각 대조사를 은사로 득도했으며, 1981년 7대부터 2006년 13대까지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천태종 감사원장 춘광 스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수여하는 '2006년도 의장표창' 수상자로 선정돼 표창장을 받았다. 춘광 스님은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국민화합과 남북 화해 협력, 지역사회 통일기반 조성 노력이 인정됐다. **김원우 기자**

"내실 다지며 이웃에 자비 전할 터"

대한적십자불교봉사회 윤수분 신임회장



"대한적십자 불교봉사회가 행하는 오늘의 선행들이 차곡차곡 쌓여 나와 어려운 이웃들의 희망찬 내일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월 11일 대한적십자 부산지사 회관에서 대한적십자 불교봉사회 2대 회장으로 취임한 윤수분(61 · 원만심 · 사진) 회장의 각오다.

윤 회장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봉사를 시작한지 9년째다. 윤 회장은 "앞으로 회원들 상호간의 화합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실천하며 부처님의 자비가 불우한 이웃들에게 더욱 가까이 더욱 깊숙하게 스며들도록 할 것"이라며 활짝 웃었다. **천미희 기자**

국방大 호국성관사 10일 개원

주지에 토진 스님…허길량씨 불상 기증



1월 10일 열린 국방대학교 법당 호국 성관사 개원법회에 2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국방대학교 법당 호국 성관사(주지 토진 · 서울 수국사 주지) 개원법회가 군종특별교구 주지 일면 스님, 성관사 주지 토진 스님, 육군 군종감 이종인 법사, 정동한 국방대학교 총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10일 서울 수색동 소재 법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는 군종특별교구 출범 이후 군법사가 아닌 지역사찰 주지스님을 법당 주지로 위촉한 뒤 처음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토진 스님은 불사비용 2000만원 전액을 부담했다.

특히 이날 봉안된 석가모니부처님 불상은 불모 허길량(대불광불교미술관장)씨가 무주상보시한 것이다. 허길량씨는 지난해 본사가 진행한 군불교 활성화 캠페인에서 군법당에 불상을 기증하기로 약속했었다.

일면 스님은 "국방대학교 법당 개원을 시작으로 모든 군사찰 불사에 후원자와 시공자간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군포교를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군불교총신도회는 1월 7일 미국 메릴랜드주 법주사(주지 허관)에서 미주지역본부 창립 현판식을 봉행했다. **남동우 기자**

법인 설립·서비스 강화 각종 봉사활동도 전개

대구운불련 서상준 회장 취임



"올해 안에 법인체를 구성해 활동범위를 넓히고 운불련 호출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불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대구운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역 개인택시 불자 운전자 모임인 대구운불련(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대구지역회) 서상준(53 · 사진) 신임회장은 1월 6일 취임법회에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서 회장은 대구운불련 복지부장과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1월 총회에서 3년 임기의 11대 회장에 당선됐다.

1월 6일 동화사 통일대전에서 열린 취임법회는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과 개인택시조합 도명영 이사장, 조계종 대구시신도회 장영관 회장을 비롯한 지역 불교 신행단체장 등 내 · 외빈과 회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서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금까지 대구운불련이 봉사신행단체로서 많은 활동을 해왔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법인체를 구성해 사회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봉사지원금도 일정부분 확보하고, 이를 통한 봉사활동범위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시켜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체와 병원 등 지역의 크고 작은 단체와 협력체를 맺어 운불련 호출을 활성화시키는 세일즈맨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배지선 객원기자**

동국대 고복현 교수 타계



동국대 경주캠퍼스 부총장을 역임한 고복현(의과대학 의학과 · 사진) 교수가 1월 6일 급성위장관출혈로 별세했다. 향년 61세. 영결식은 9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의학관에서 거행됐다.

2007년을 뛰는 불자

김 형 남
– 변호사
前 조계종 법률책임전문위원

"불교계 권익 지키기 한 발 앞서 뛰어야죠"



2월 6일 서초동에 법률사무소 열어 불자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에 노력

2004년부터 2년 간 조계종 법률책임전문위원을 맡아 불교 내외의 법률문제를 다루면서 종단 권익과 발전에 기여했던 김형남(43) 변호사. 김 변호사가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김형남 법률사무소'를 연다.

첫 출발은 누구에게나 기대 반 걱정 반이다. 김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굳게 믿는 것이 있다. 바로 부처님이다.

"부처님 은혜를 입었으니 갚아야죠. 종단은 물론이고 더 폭넓게 불교 일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품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김 변호사는 문화재, 환경, 토지 보호 등 불교계의 권익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이 앞장서 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불자들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도 적극적으로 맡을 계획이다. 더 나아가서는 불자들로 구성된 로펌(법무법인 또는 종합법률회사)을 구성해 불교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불교인들은 다른 종교인들과는 달리 법률문제에 소극적이지만 법률적 접근은 분쟁 확대가 아닌 갈등 축소라는 측면에서 인식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을 그냥 둘 경우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접근은 진행되고 있는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거나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김 변호사는 말한다.

김 변호사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84년 고려대 법대 재학 시절 서울 구로구 삼화포교원에서 야학활동을 하면서부터다. 그 뒤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는 연수원 33기 불교 모임인 '다르마 법우회' 회장을 맡았다.

조계종 법률책임전문위원으로 일했던 것도 김 변호사 자신이 원해서다.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각계의 불자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불교 권익 보호에 나설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작은 힘이지만 혼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어떤 변호사보다도 불교 관련 문제에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 변호사의 2007년이 기대된다. (02)535-9994 **한명우 기자**

조계종복지재단, 직할자원봉사단 연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월 9~10일 경북 봉화 청량사에서 조계종직할자원봉사단 팀장연수를 실시했다. 조계종 산하 자원봉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는 51개팀 80여 명의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리더십 교육, 조계종직할봉사단 운영방안 논의, 팀장직 인수인계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선교육 후득도(先敎育 後得度) 제도시행 원년! 태고종 승려로 출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200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한국불교의 동량을 가꾸고 배출하기 25년! 전통불교문화가 여러분의 얼과 숨결로 승화되는 곳,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法緣을 기다립니다.

1. 사정원칙
가. 선교육과정(승가학과)은 출가희망자(행자교육생)만 입학을 허용한다.
나. 선교육과정(승가학과)은 입학사정 시 행자소양심사를 병행한다.
다. 선교육과정(승가학과)은 종단 · 학교가 공히 입학사정에 임하여 인성 및 품행을 엄격 심사한다.
라. 선교육과정(승가학과)과 불교학과는 정규반과 통신반을 선택 지원할 수 있다.
마. 불교 · 범패 · 불교미술학과는 승려 및 재가불자에 한하여 입학이 가능하다.
바. 모든 학과의 신입생은 매년 학년입학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원자 유의사항
가. 본교는 태고종 승려교육 전문기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나. 태고종 승려로 출가득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교육과정(승가학과)에 입학해야 한다.
다. 선교육과정(승가학과) 및 불교학과 통신반은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습한다.
라. 제출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
마. 인터넷으로 입학원서를 접수할 경우 전형료를 소정계좌로 입금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바. 불법 및 부정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는 입학 이후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한다.
사. 필기 · 실기 · 면접고사에 결시한 자와 제출서류 대상자 중 서류 미제출자는 합격대상에서 제외한다.
아. 합격통보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자. 승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종단의 득도수계를 증명할 수 없는 자는 삭발여부를 불문하고 승복을 착용할 수 없다.
차. 승적증명서나 수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재가불자는 나머지 서류만 제출한다.
카. 전형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한다.
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절차에 따른다.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0명	2년제	정규반/통신반
승가학과 (선교육과정)	000명	2년제	정규반/통신반
범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불교미술학과	00명	3년제	정규반

구 분	날 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06. 12. 26(화)~2007. 2. 7(수) 17:00	본교 교학처 · 인터넷 교부 · 접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통지	2007. 2. 9(금) 14:00	개별통지 ·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필기 · 실기 · 면접고사	2007. 2. 12(월)10:00 ~ 17:00	본교 강의실 및 실기실
합격자 발표	2007. 2. 15(목) 14:00	개별통지 ·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 본교 지원자는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2. 1항의 자격미달인 경우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1. 1차 전형 : 서류심사
2. 2차 전형 : 필기 및 실기고사(기초실력평가)
3. 3차 전형 : 면접고사(인성 및 품행심사)
4. 2, 3차 전형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학 과	제출서류	제출방법
공 통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5. 반명함판 사진 3매	1. 본교 교학처 직접 방문 및 우편 이용 또는 인터넷 접수 가능 2. 인터넷 원서교부 및 접수한 경우 원서를 출력해 사진부착 후 여타 제출서류와 함께 본교 교학처로 등기 · 발송 3. 접수처 : 136-823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30-586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승가학과 (선교육과정)	1. 범죄사실경력자료회보서(경찰서 발급)	

1. 불교학과/승가학과 : 50,000원
2. 범패학과/불교미술학과 : 60,000원

1. 교학교육은 불교학의 기본교육(교리/사상/역사)을 비롯해 종학 등 대승교화종단의 위상을 담보하는 제반 교육과 복지 등을 교수하며 기초불교의식을 지도한다.
2. 습의교육은 2개년 3학기 각각 하기와 동기방학 중 각 1개월씩 대중집체교육으로 진행한다.
3. 2항의 수료 직후 각 2주씩 교구종무원에 습의교육을 위임한다.
4. 합동득도수계식은 2학년 2학기 중 종단이 설시한 계단에서 거행한다.
5. 합동득도수계식을 마친 선교육과정 2학년생은 2학기 동기방학 중 종단이 정한 소정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납부기간 : 2007. 2. 20(화) ~ 2.26(월)
2. 납부계좌 : 농협 029-01-130257 동방대
3. 유의사항 : 납부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1. 선교육과정(승가학과) 입학생은 재학 중 학사변동에 이상없을 경우 2학년 2학기 중 종단이 설시한 합동득도수계식에 참가할 수 있다.
2. 선교육과정(승가학과) 졸업생이 여타학과를 다시 입학해 졸업하면 아래 4항의 자격을 부여한다.
3. 선교육과정(승가학과)을 포함한 모든 학과 졸업생에게 태고종 2급 정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4. 출가 · 재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선교육과정(승가학과)을 제외한 여타학과 졸업생에게는 태고종 5년 법랍경력의 선덕법계(출가)와 수교법계(재가)를 각각 품수한다.
5. 범패학과 졸업생에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에서 수료증을 수여한다.
6. 불교미술학과는 각종 공모대전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국가고시) 등에 대비한 특강을 실시한다.
7.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을 부여한다.

※ 자세한 모집요강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문의처 :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136-823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30-586
☎ (02)745-2030~2/FAX (02)744-3461 홈페이지 www.dongbang.org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54> 마음을 챙기면서 공부하라

앞장에서 보았듯이 값비싼 칠보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담아 보시한 것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번이라도 귀담아 듣고 그 가르침을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더 큰 공덕이다. 뒷날 이 마음은 성불(成佛)할 부처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부처될 씨앗만 심었을 뿐 부처가 된 것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자신의 마음을 늘 돌이켜 보지 못한다면 온갖 경전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수행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 그러므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 근본 뜻을 모르고 글이나 외우고 뜻풀이만 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선가귀감> 54장에서는 말한다.

看經 若不向自己上做工夫 雖看盡萬藏 猶無益也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도 마음공부가 익어가지 않는다면 온갖 경전을 다 보았다 할지라도 공부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느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고 기뻐하면 이 가르침은 깨달음의 씨앗이 된다. 그러나 글자를 좀 안다고 하여 자랑을 일삼는 사람, 경을 좀 많이 보았다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 교만한 사람이며 자기를 앞세워 시비 분별이 많은 사람이다. 이들은 자기 생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부처님 법을 삿된 법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도 잘 알지 못하고 어떤 경계에 집착하여 헤어나지 못한다.

<육조단경>에 나오는 법달 스님도 <법화경>을 삼천 번이나 읽고 외웠으나 아만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공부에 진전이 없었으니 이런 공부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 오히려 다른 사람까지도 불법과 멀어지게 하는 큰 죄업을 지을 수 있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此明遇學 如春禽晝啼 秋蟲夜鳴. 密師云 識字看經 元不證悟 銷文釋義 唯熾貪瞋邪見

어리석은 공부는 마치 화창한 봄날에 새들이 지저귀고 깊은 가을밤에 풀벌레들이 우는 것과 같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밝힌다. 종밀 스님은 "글자나 알고 경만 보는 것으로는 본디 깨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글귀나 새기고 말뜻이나 풀어 보는 것은 탐욕이나 성냄, 삿된 소견만 더 일으키게 할 뿐이다"라고 말하였다.

'화창한 봄날에 새들이 지저귀고 깊은 가을밤에 풀벌레들이 우는 것과 같다'라고 번역한 춘금주제(春禽晝啼) 추충야명(秋蟲夜鳴)은 <호법론(護法論)>에서 따온 글로서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 "경을 보는 모습이 겉으로는 번듯한 자세를 갖추었더라도 안으로는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면 경전 속에 있는 검은 글자들만 아무 의미 없이 더듬고 있을 뿐이니, 이것이 어찌 아무런 의미 없이 화창한 봄날에 새들이 지저귀고 깊은 가을밤에 풀벌레들이 우는 것과 다를 것이 있겠느냐? 비록 경전을 백만 번 읽는다 할지라도 또 과연 여기에 무슨 이익이 있을 수 있겠느냐[若形留神往 外寂中搖 則尋行數墨而已 何異春禽晝啼 秋蟲夜鳴 雖百萬遍果何益哉]?"라고 되어 있다.

'글자나 알고 경만 보는 것으로는 본디 깨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글귀나 새기고 말뜻이나 풀어 보는 것은 탐욕이나 성냄, 삿된 소견만 더 일으키게 할 뿐이다'라고 풀이된 '식자간경원불증오(識字看經 元不證悟) 소문석의유치탐진사견(銷文釋義 唯熾貪瞋邪見)'은 규봉종밀 스님의 저서 <도서>에서 인용한 것이니 그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 "만약 자신의 마음을 몰랐다면 드러난 가르침에만 집착한 것이니 부처님의 도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찌 있는 자리에서 진리를 드러내 보려 하지 않습니까? 글자나 알고 경만 보는 것으로는 본디 깨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글귀나 새기고 말뜻이나 풀어 보는 것은 탐욕이나 성냄, 삿된 소견만 더 일으키게 할 뿐입니다. 더구나 아난은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듣고 다 외웠지만 오랜 세월 성인의 깨달음에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연을 쉬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생멸이 없는 무생(無生)을 증득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 주는 이익과 중생을 제도하는 방법이 저마다 그 까닭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자만 귀하게 여길 것은 아닙니다[若不了自心 但執名教 欲求佛道者 豈不現見. 識字看經 元不證悟 鎖文釋義 唯熾貪瞋耶. 況阿難 多聞總持 積歲不登聖果 息緣返照 暫時 卽證無生 卽知 乘教之益 度人之方 各有其由 不應於文字而貴也]."라고 되어 있다.

글귀나 새기는 것은 탐욕 · 사견만 일으킬 뿐
모든 인연 쉬고 마음 돌이키는 순간 無生 증득

부처님을 따라 다니면서 부처님의 법문을 빠놓지 않고 다 듣고 외웠던 제자가 아난이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제자 오백 명이 부처님 말씀을 모아 정리하려고 할 때 처음에 아난은 그 자리에 끼질 못했다. 부처님 말씀을 빠짐없이 다 외우고 있더라도 마음자리의 근본을 모른다 하여 쫓겨난 것이다.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아난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 부처님께서는 가섭을 의지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경전 결집의 최고 우두머리인 그 가섭한테 쫓겨난 것이다. 쫓겨난 아난이었지만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고 잘 생겼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잘 전달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법문을 자주 청하였다. 법문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자 아난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번잡하게 되었다.

그때 선정 속에서 오고가는 인연의 흐름을 그대로 알 뿐 분별없이 오직 진실만을 보는 '발기'라는 스님이 숲 속에서 공부하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스님은 "아난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는 재미에 속아서 자기 말재주에 빠져 바른 길을 벗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자 그를 찾아가 게송으로 일러주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 나무 밑에서 / 열반 위해 그 마음을 써야 하느니
아난이여 부지런히 참선을 하라 / 많은 말을 어디에다 갖다 쓸 건가.
[靜處坐樹下 心趣於泥洹 汝禪莫放逸 多說何所爲]

이 게송을 듣고 아난은 온몸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여태껏 부처님 말씀만 녹음기처럼 외우는 것을 공부 잘하는 것으로 알았던 아난은 정작 부처님 말씀의 근본 뜻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충격을 받은 아난은 그때부터 열반이 무엇이고 마음자리의 근본이 무엇인지 생사를 걸고 정진하였다. 어느 날 밤잠을 자지 않고 정진을 하다 잠시 쉬려고 옆으로 눕는 도중에 홀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서산의 제자 청매(靑梅) 스님도 "마음을 돌이켜 그 근본을 보지 않으면 아무리 경을 보아도 이익이 없다[心不返照 看經無益]"라고 하였으니, 모름지기 부처님의 제자라면 경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 마음가짐을 단단히 챙겨야 할 것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니까야(Nikāya)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가 최근 '흥미로운' 신행결사를 출범시켰습니다. 한글니까야독송회가 그것인데요. 이 모임은 한역본(漢譯本)이 아닌, 팔리어본을 직접 우리말로 옮긴 초기 경전, 즉 <디가니까야> <맛지마니까야> <쌍윳따니까야> <앙굿따라니까야> <쿳다까니까야> 등의 5부 니까야를 장장 7년에 걸쳐 읽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의 생생한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의욕과 원력이 대단합니다.

니까야(Nikāya)란 부류(部類) · 부파(部派)로 번역됩니다. 석가모니 입멸 후 약 100여 년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경장(經藏)으로 집대성됩니다. 이후 교단이 여러 부파로 분열되면서 각 부파마다 성전을 갖게 되는데, 남방상좌부의 경장이 니까야입니다.

5부 니까야는 한역아함경에 상응합니다. <디가니까야>가 <장아함경>, <맛지마니까야>가 <중아함경>, <쌍윳따니까야>가 <잡아함경>, <앙굿따라니까야>가 <증일아함경>에 상응합니다. <쿳다까니까야>는 <법구경> <본생담> 등으로 한역돼 있습니다.

이들 니까야에는 불교의 중심사상인 사제(四諦) · 팔정도(八正道) · 십이인연 등의 교리가 일관되게 서술돼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의 교훈이 되는 내용이 풍부하고 부처님의 인간미까지 느낄 수 있어 부처님 가르침의 원형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73>

뇌 과학

며칠 전에 서울대학교의 뇌 연구실을 방문하였다. 연구실은 20평 남짓한 공간인데, 원숭이 다섯 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다. 모두 두개골 수술을 받아서 정수리로 관이 나와 있는 상태였다. 이 관에 장착된 도선은 뇌의 전기신호를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눈동자가 움직일 때 뇌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동물을 포함한 인간의 시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오염을 막기 위해서 원숭이는 청정실에 격리된 채 살아간다. 이런 실험 결과로 인간의 뇌질병을 이해하고 치료하게 된다면, 실험의 대상으로 죽어간 원숭이를 포함한 수많은 동물은 보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이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특히 인간의 과학이란 무엇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일까. 서양 과학의 전통 즉 엄밀한 수학적 측정에 의해서 가설을 법칙으로 만들고 백명이 실험을 해도 같은 결과를 도출하고 또 앞의 일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현대과학자들은 인간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첫 걸음은 역시 인간의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를 이해하는 것이다.

20세기는 인간의 유전자 맵을 완성하는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의 세포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모두 읽어내고 각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던 엄청난 일이 생명과학, 컴퓨터 그리고 나노 과학의 힘으로 빠른 시간 내에 완료되었다.

놀라운 것은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 쌍의 수가(이 쌍의 배열 방식에 의해서 우리의 모습이 결정된다) 30억개 정도나 된다는 점 그리고 우리와 다른 모양을 가진 쥐, 침팬지가 사람과 각각 10% 그리고 1.2% 정도 밖에는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과학자들은 또 뇌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뇌의 각 부분의 역할과 작용을 지도를 보는 것처럼 상세하게 알고 싶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난관은 살아있는 사람의 뇌 세포를 채취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쥐의 뇌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해서 최근 쥐의 뇌 지도를 완성했다(www.brainatlas.org). 이 지도에는 쥐의 뇌 세포 내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어떤 분자물질을 만들어 내고, 이 물질의 역할과 상호관련 정보를 삼차원으로 제공하고 있다.

영혼 영역인 '뇌' 물질 영역으로 점점 내려와
불법이 미래의 과학적 접근에 어떠한 '빛' 줄까…

과학은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인간의 내부를 분자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이러한 진전은 인간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영혼의 영역이던 뇌가 점점 육체의 영역, 물질의 영역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한 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혼합되고 있다.

색과 공을 분리하지 않는 부처님의 법이 미래의 과학적인 접근에 어떠한 빛을 주게 될지 그리고 과학의 추구가 가져다 줄 한계를 부처님 법이 해결할지 알 수 없다. 어쩌면 이것은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불자들의 숙제일지도 모른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월 3일개강

2007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30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김형준교수 · 태원스님(승가대교수)
2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김호귀(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방대학원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7년 1월 2일~ 2007년 1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 학 일 시 불교학과 : 2007년 2월 3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2007년 황금돼지해 경신도통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비법을 얻어 황제가 되어 운명을 바꾸어 출세와 성공에 감춰진 운수대통 경신 천안통 특별 대법회

생명의 근본은 태식에 있고, 운명과 수명은 내마음자리에 있으며 생노병사 해탈법은 경신 도통에 있느니라.

전생빙의와 중음신 해리의 잡신으로 빙의된 영이 나가면 대신 더 큰 신이 들어오는 것을 회원상생할 수 있는 경신도통 전생으로부터 빙의된 영가들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천도, 기도,최면,굿 등 방편으로는 관명천으로 그냥 보낼 수 없으며 관명천으로 보내는 진법계도법의 주문는 있으나 그 누구도 알지못하므로 경신도통을 하지않고는 그 어떠한 주문도 용납되지 않으며 하늘이나 땅이나 일체 조상 빙의영가들이 알아듣고 빛으로 광명세계로 천도되여 가는 주문을 모르기에 경신이란 하늘경 햇빛경 신은 귀신우두머리신이므로 모든 빙의신 중음신 해리신 병마귀신 잡신 천신 만신 색신 수신 화신 목신 토신 금신 구랑신 모든신들을 하늘나라 불사신 광명천으로 경신일 자시에 불러모아 경신일 정오시에 영산대재 범패로 회원상생시키는 천지대도법이 경신도통인 것이다.

● 달마도법 태식법이란??
생노병사를 초월하는 법이며 모든병에 빙이 되어 치료해도 안되는 잡신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을 제도 해탈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재하는 수행법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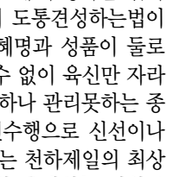
이번 대운맞이로 출세와 명예 경쟁에서 이기고 국가의 문관무관 관록을 엇어 진급 및 정치,경제,문화,사회, 대기업의 총수를 하려면 경신도통 특별기도 동참으로 경영사업, 결혼 못하는 가정, 고시합격을 못하는 가정, 생남발원, 건강 부귀 장수 애혼, 고혼, 후인, 유인, 유명, 무명 선망부모님들께 사정상 49제 못올린 가정

[특별기회] 경신도통 7×7=49제 합동동참금 55만원

전생빙의와 해리로 고통받고 중음신과 삼시구충으로 육신의병, 정신의 병, 잡신에 빙의된 빙의제도법 특법 태일대사 직장

── [특별태일대사 코너] 경신일 당일특별상담 ──

얼굴만보면 짜증나고 해도 안되는 사주팔자를 얼굴상을 바꾸어 팔자 고치는 이벤트. ※대도진인 도법으로 바뀌는 것은 얼굴에 상인고로 광대뼈, 코뼈, 턱뼈, 들창코 및 몸에 균형이 자기띠와 사주팔자가 맞아야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어 부자로 사는법 연예계 및 예술계 지망생, 예뻐지고 싶고, 젊어지고 싶은 지망생 견성도통하려면 조상과 전생부터 내려오는 자신의 업장과 모태유산 살생한 일체영가를 제도해탈만이 도를 통하는 것이고 천장지비로 감춰진 혈단법, 예단경만이 일체영가가 알아듣고 이생애 모든 인연을 끊고 원없는 광명천으로 천도되는 경이고 결혼에도 예단을 주고 받아야 부부가 되는 것이다.



정해년 천안통 법회에 범부나 성인이 혜명을 득도하는 비법인 진법을 도통군자들에게 참된여래의 종자와 주인공인 나를 감추고 있는 으뜸가는 관문을 바르게 수행하는 법과 혜명과 성품이 갈라져있는 참법을 즉시 도통견성하는법이며 영통능력과 말문을 열어 초능력을 혜명과 성품이 둘로 갈라져 혜명은 성품 즉 마음자리를 볼 수 없이 육신만 자라면서 성장하자마자 늙고 병들어 제육신하나 관리못하는 종교지도자, 모든수행자들에게 특별 경신수행으로 신선이나 황제가 되어 만천하를 제도하며 살아가는 천하제일의 최상승법인 것이다.선지식을 비롯 오직 사상 유래없는 견성도통 심령도통 자신도통, 말문도통으로 하늘의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만법을 얻어 만중생을 제도하는 특별대법회

● 입제 : 양력 2007년 1월 25일(음, 12월 7일 목)(해시)
● 해제 : 양력 2007년 1월 26일(음, 12월 8일 금)성도재일
02-821-6622 , 821-7767, 016-239-3110
● 정해년 경신도통법회 1년 동참기도비 60만원(분납가능)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하차. 2번출구 모자원고개 쪽 300m 관음정사 내

웅조달마 진인경신도통회
세계불교 달마중충 본산

BBS 대구불교방송
불교리더를 위한 초청 강연
• 주제 : 불교복지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 강사 : 지현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 날짜 : 2007년 1월 18일 19:00 대구불교방송 7층

BBS 순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조계종 종합민원실을 찾은 화성 홍법사 주지 혜명 스님(왼쪽)과 자원 스님(가운데)이 승적 증명서류를 발급받고있다.

조계종의 얼굴 '종합민원실'



최상의 서비스를 다짐하는 민원실 종무원과 자원봉사자들.



조계사 신행상담실 자원봉사자들이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전화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스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원스톱(One-Stop) 민원처리, 서류 발급 5분이면 OK
전화상담 자원봉사자 배치, 정성과 친절로 서비스
3명으로 업무 벅차…처리결과 회람하는 시스템을

1월 10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종 총무원을 찾은 화성 봉담면 홍법사 주지 혜명 스님. 좀처럼 산문 밖을 나서지 않지만, 이날은 승적증명서와 소속확인원 등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상좌 자원 스님을 앞세우고 모처럼 걸음을 재촉했다. 총무부를 찾아가야 하는데 '초면의 스님들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하나' '어느 종무원에게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나' 이런 저런 생각에 내심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총무원이 입주해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들어서는 순간, 그런 생각이 기우였음을 알았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종합민원실이 있어 총무부를 찾아가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종합민원실로 들어간 혜명 스님과 자원 스님은 "스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하며 인사하는 종무원의 밝은 목소리에 내심 기분이 좋았다. 친절하고 편한 분위기도 좋았고, 예전처럼 여러 종무원이 앉아 있는 사무실에서 '뻘줌하게' 서 있지 않게 된 것도 좋았다.

'증명 발급'이라고 쓰인 민원창구 앞에 앉아 종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발급받고 문을 나서는데 걸린 시간은 5분.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자원 스님은 혜명 스님에게 넌지시 물었다. "종단 참 많이 좋아졌지요?" "그러게. 문턱이 낮아져서 좋네!" 혜명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답했다.

조계종은 그동안 3층 총무부 총무행정팀에서 발급하던 승적 관련 증명 발급서비스 업무를 1월 2일 1층 출입구 옆 사무실로 이전, '종합민원실' 개소식을 열었다. 중앙종무기관 부서는 정책 결정 및 실행에 집중하고, 서비스 업무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질을 높인다는 원칙에 따른 변화다.

증명서류 발급, 신도 등록 업무 외에도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일은 포괄적이다. 종단 전화민원 처리와 교환 업무, 신행 상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시설 및 사용 안내 등도 종합민원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포교원에서 담당하던 신도 등록 업무도 종합민원실로 통합했다. 증명서류 발급은 전화와 우편으로도 가능해졌다.

이를 대하는 스님과 신도들은 달라진 종무행정 서비스를 몸으로 느끼고 흐뭇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10여일 짧은 기간 동안 벌써 종합민원실은 중앙종무기관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중앙종무기관을 찾는 스님과 신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민원서비스를 직접 체험한 스님과 신도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예전에는 각각의 일을 보기 위해 총무부와 재무부, 포교원을 오가야 했던 일 자체가 번거롭고 달갑지 않았는데 '원스톱(One-Stop)' 처리가 가능해진데다가 종단의 긍정적인 변화가 종도들의 입장에서는 기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하루 평균 50여통이 걸려오는 민원전화 처리, 신행 상담 업무는 전문교육을 받은 30여명의 조계사 신행상담실 자원봉사자들이 도맡아 해결해 종단 이미지를 개선시키는데 보탬이 되고 있다. 항의성 전화를 인내와 차근차근한 설명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급증한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전화민원도 이들 몫이다.

그러나 개선해야할 점도 존재한다. 앞으로 분담금 납부 등 업무가 추가될 예정이지만, 현재 배치된 종무원 2명과 보조 아르바이트 직원 1명으로는 지금의 업무만으로도 벅찬 실정이다. 또 민원전화의 경우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처리결과가 업무주관부서에 이첩되거나 회람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종단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업무라는 인식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종합민원실 종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종단을 찾는 스님과 신도들이 자긍심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조계종의 얼굴이라는 책임감과 소명감을 갖고 정성과 친절이 깃든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02)2011-1700

글=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 × 30Cm
2 돈타레 5.6ϕ × 27Cm
5 약쑥향 1호 5.9ϕ × 20Cm
6 약쑥향 3호 4.7ϕ × 13Cm
7 약쑥향 4호 4.7ϕ × 10Cm
8 약쑥향 등초 3.1ϕ × 12.5Cm



▶ 식물성 양초
1 식물성양초 원기둥 7.4ϕ × 29Cm
2 식물성양초 돈타레 5.6ϕ × 27Cm
3 식물성양초 밀 대 4.6ϕ × 26Cm

謹賀新年 佛紀 2551年

2007년 丁亥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성지 월 정 사

정해년 새해 두루 법체청안 하시옵고 만사여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회 주 연암 현해
주 지 퇴우 정념

부 주 지	원 행	기획국장	성 묵
총무국장	적 천	재무국장	법 상
교무국장	동 은	포교국장	자 월
사회국장	관 행	연수국장	천 웅
호법국장	고 견	박물관실장	해 운
원 주	해 공		

월정사 종무원 일동, 제4교구 신도회, 월정사 연합신도회, 거사림회, 청년회, 불교학생회, 어린이자모회, 연꽃합창단, 연꽃유치원 자모회, 강릉 장애인복지관

사부대중일동합장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번지 | www.woljeongsa.org
종무실 : ☎(033)332-6661~5 / 팩스 (033)332-6915

아름다운 우리절 영험있는 기도도량 병풍바위 절

聖主山 聖奉寺(성봉사)

신라천년의 영화와 번영을 세계로 진출하게 한 감포항 입구 1km 전방 성주산 (옛 山城)자락에 위치한 성봉사는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감포주민을 지켜주는 피난처 구실을 한 곳입니다.
현재의 성봉사를 둘러싼 성주산 자락의 **병풍 바위**(약 400미터 가량)는 석회암질로 구성되어서 오랜 세월의 풍화작용등으로 각양각색의 형상을 하고 있어 옛부터 **미륵병풍바위**라고도 불리워졌습니다.
특히 해뜨는 아침과 해질 무렵 오후에 보이는 수많은 미륵불의 형상들이 각각 서로 달라 신령스럽기까지 합니다.

풍수지리적으로는 음기(陰氣)가 아주 발달한 곳으로 남녀의 부족한 음기를 보충하여 음양(陰陽)의 조화를 이루는 **청정기도도량**으로 소문난 곳이기도 합니다.
성봉사의 유래는 1930년 창건주(우산스님)의 혜안과 안목으로 이곳을 **천년기도 도량**으로 만드신 이후 2006년 2월 현 주지(혜연스님)부임이후 경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관광명소로 알리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과 사찰불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경주에서 추령 넘어 감포)에서 수많은 역사적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이 곳이 감포입니다.
(대표적 문화유산 : 감은사지 석탑, 장항리 사적지, 기림사…)

주지 혜연 합장

2007년 1월중에는 매일 해맞이 기도 봉행을 가족과 함께 황토방에서 찜질도 하며 기도할 수 있으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홈페이지 : http://magichome.paran.com/subongsa

자비마을 성 주 산 성 봉 사 경북 경주시 감포읍 전동리 1064-2 전화 : 054)775-2976 / 팩스 : 054)776-2976
장애재단 자비마을 자 운 사 경북 경주시 조양동 527 (도지마을) 전화 : 054)746-7025 / 팩스 : 054)746-7024

※ 자운사 청국장(분말, 환)은 장애인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택배발송)

성도재일 철야정진 기도를 합니다

납월 8일 새벽 수행자였던 싯달타 태자는 모든 번뇌의 사슬로부터 벗어나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대자유를 깨달아 **부처님이 되신 날**입니다.
이 뜻깊은 성도절을 맞아 부처님의 성도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뜻에서 저희 동화사에서는 납월 7일 저녁부터 성도일 새벽까지 봉축등을 밝히고 철야정진 기도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불기2550년 1월 25일(음 12월7일 목) 오후 8시 –
1월 26일(음 12월8일 금) 새벽 3시
◆ 장 소 : 동화사 대웅전
◆ 문 의 : 053)982-0101 www.donghwasa.net
◆ 봉축등 : 1만원 (가족등)
◆ 준비물 : 염주, 절복
(절하기 좋은 간편한 차림으로 동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허 운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종 정 연화대종사
원로원장 연 봉
총무원장 송 정
교육원장 정 업
중앙종회의장 지 은
미륵산악회장 보 성
비구니회장 동 성

■ 미륵종 법인사무국
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900번지
대표전화 055)345-4741

재단법인 일붕선교종

태 길 사

조실 동 봉
주지 법 진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8번지
조령산 태길사(구 흥천사)
전화 043)833-5525

한라산 법 화 사

주지 시 몽

사부대중 일동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 1071
전화 064)738-5220

광 제 사

주지 석 두

사부대중 일동

광주 서구 양동 281
전화 062)365-9955

고려 엘피가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심완식

■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1000-1
전화 052)272-8487/팩스 052)273-3463

"참 좋은 인연입니다.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포교원 반야선원

주지 효 종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1동 93-4(3층)
전화 053)767-3620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회주 능 인

■ 경북 구미시 사곡동 670-1
전화 054)464-4725/팩스 054)464-4735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대 구 도 광 사

주 지 법 성
신도회장 조경래
관음회장 최상만
지장회장 허묘임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1708-6
전화 053)653-8583/팩스 053)656-1843
휴대폰 011-813-8587

행복하고 안 하고는 모두 나 하기 나름

종진 스님 (해인총림 율주)



종진 스님은 계를 받고도 지키지 못하는 불자들에게 "불자답게 되는 첫 걸음은 계를 받는 것이요, 불자다움을 유지하는 것은 계를 지키는 것"이라고 당부한다.

선지식을 찾아서

작심삼일(作心三日).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수많은 결심을 하고, '삼일'만에 그 결심을 깨고 만다. '성불하겠다' '꾸준히 수행을 하겠다'는 거창한 원력도 아니다. '술을 줄이겠다' '담배를 끊겠다'는 명분 있는 결심도 아니다. '하루 삼십분씩 책을 읽겠다'거나 '부모님께 자주 전화 드리겠다'는 등의 생활 속 소소한 다짐들마저 그러하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세운 다짐인데도 실천으로 옮기는 일은 어찌 그리 어렵기만 할까?

지키지도 못할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어떤 것을 다짐하고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합천 해인사로 향했다. 그곳에는 율사(律師)로서 불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해인율원 율주 종진 스님이 계셨다.

"왜 사람들은 마음먹은 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더니 '부지런할 근(勤)'자를 써 보이셨다.

"부처님은 '내가 성불할 수 있었던 것은 부지런함 덕분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것은 그 결심이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굳은 결심과 성공하고 말겠다는 의지 · 실천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진이지요. 기자님은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 결심은 얼마나 굳건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교과서 같은 답이지만 결코 간단한 답은 아니다. 하물며 계율은 어떨까. "불자답게 되는 첫 걸음은 계를 받는 것이요, 불자다움을 유지하는 것은 계를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 계를 받으면서 받들고 지키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더욱 더 뜻대로 되지 않는다.

"종교와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다섯 가지 계율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보다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기준이 되는 것이 계율이지요."

스님은 오계 지키는 일을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에 비유하며 법문을 이어갔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행복은 누가 주는 것도, 그냥 오는 것도 아닙니다. 불자가 계율을 지키는 것은 행복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 가는 일입니다. 계(戒)라는 한자를 풀이해보면 '두 손에 무기를 들고 경비 선다'는 뜻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쁜 생각, 나쁜 행동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계를 무기로 삼아 몸과 마음, 입으로 짓는 나쁜 업을 단속하는 것이 바로 행복을 가꾸는 방법입니다."

다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여쭈었다.

"내가 낚시를 좋아한다고 해 봅시다. 낚시 바늘에 걸린 물고기가 빠져나가기 위해 발버둥 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목숨이 끊어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다른 생명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 고통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죽고 죽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고통을 주는 원인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생하지 말라는 계입니다.

> "내가 다른 생명에 고통 주면 그 고통은 반드시 내게 돌아와"

두 번째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계율을 봅시다. 주지 않는 남의 것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복덕의 씨앗을 자르는 행위입니다. 흔히 가난의 고통을 죽음보다 무섭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활에 만족을 알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베푸는 것이 바로 오계의 두 번째 정신인 나눔의 정신입니다. 세 번째 사음하지 말라는 것은 종교에서 지향하는 깨끗한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부부간에 서로를 믿지 못한다면 가정의 행복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계율은 불망어(不忘語)입니다. 스스로에게 진실하지 못한 거짓 삶을 살면서 어찌 행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현대인들이 가장 지키기 힘들어하는 불음주입니다. 술은 신경을 흥분하게 만들어 정신을 잃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판단력이 흐리면 지혜가 없어져 잘 잘못을 가리지 못하게 되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지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한 경계가 지나친 음주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계는 인과의 가르침에 기초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업자득(自業自得)이고 자승자박(自繩自縛)이지요. 곧 남이 만드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계는 재가불자가 살아가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자신이 행복의 씨앗을 뿌리면서 행복의 열매 거두고 살 수 있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틀'을 지킨다는 것은 여전히 딱딱하고 괴로운 일이다. 즐기면서 계를 지키는 방법은 없을까?

"좋은 일 중에 어렵고 힘들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루 한 번씩 다짐하며 마음에 새기고 몸으로 실천하는 방법 밖에 없지요. 기준이 없이 살면 자기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계를 내 안전을 지켜주는 집안 울타리나 도로의 차선으로 삼고 사십시오."

잘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불자들에게는 이미 잘 살 수 있는 길이 놓여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다. 다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상대방을 존경하세요. 믿으세요. 사랑하세요. 잘못을 보지 말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언제나 행복의 길은 '나'에게 있다. 문제는 그것을 실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다. 그리고 그것은 순전히 '나'의 몫이다. **합천 해인사/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종진 스님은 1940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다. 55년 동화사에서 석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61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했다. 63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하고 70년 지관 강백스님으로부터 강맥(講脈)을, 85년 일우 율사스님으로부터 계맥(戒脈)을 이었다. 1970년부터 8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해인사강원 강주를 지냈으며 1985~98년 해인총림 율원장, 1999~2004년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를 지냈다.
현재 해인총림 율주로 조계종 계단위원, 법계위원, 의제실무연구회 위원을 맡고 있다.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수제화로 제작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상표등록 : 614981호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지압식 깔창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색상 : 회색, 흑색
• 규격 : 215-290mm (키높이 특수제작)
좋은 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방한용 털신
털 깔창
최고의 선물
방한용 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두산위브 맞은편으로 이전)

1월 26일(음 12월 8일) 성도재일…부처님은 어떻게 깨달았나?

네가지 마음챙김 통해 집착 벗어나

사카족의 왕자 고타마 싯다르타가 29세의 나이로 부귀영화를 버린 채 출가수행한지 6년 만에 우주를 아우르는 진리를 깨쳐 부처님이 된 날. 음력 12월 8일(양력 1월 26일) 성도재일(成道齋日)이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도재일의 기원은 중국 송나라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송나라 때 선가에서 12월 8일을 성도일로 정하고 법회를 해왔던 것. 남방불교에서는 베사카(vesākha)의 보름(대개 5월 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하는 이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삶'을 조망하고, '나'를 관찰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갈고 닦아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떤 수행법을 선택할까 고민도 많이 한다. 성도재일을 앞두고, 삶을 고뇌하던 싯다르타 태자가 고통을 해결하고자 출가한 후 어떻게 수행했는지 알아보자.



성도재일에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찬탄하며 나도 부처가 되고자 용맹정진을 한다. 사진은 대구사원주지연합회의 성도절 기념법회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사찰서 철야정진하며 '부처님 닮기' 서원
"수행은 기쁜일"…정진 원력 잇는 날 돼야

홀로 숲 속에 들어가 커다란 보리수 아래 길상초로 자리를 만들어 단정히 앉은 싯다르타는 '이 자리에서 육신이 다 죽어 없어져도 좋으니, 우주와 생명의 실상(實相)을 깨닫기 전에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고 맹세한 채 깊은 명상에 잠긴다.

7일째가 되던 날 나고 죽는 이 세상 모든 이치가 명상에 잠긴 싯다르타의 마음을 환히 빛냈다. 온갖 집착과 고뇌가 자취도 없이 풀려 버리고, 우주가 곧 내 자신이고 내 스스로가 우주임을 알게 된 것이다.

인류의 스승 부처님이 탄생하도록 한 7일간의 명상법은 사념처(四念處, 위빠사나)이다.

<대념처경>에 따르면 부처님은 '깨닫기 위한 하나의 길은 네 가지의 마음챙김'이라고 설했다. 몸에 대한 마음챙김(身念處),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受念處), 마음에 대한 마음챙김(心念處), 법에 대한 마음챙김(法念處)이 바로 그 것이다. 또한 '중생의 정화를 위한 슬픔과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진리, 열반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이 사념처'라고 부연했다.

그렇다면 선정에 드는 자세는 어때야 할까. <염처경>은 '숲 속 나무 아래나 조용한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다리를 포개고 앉은 다음 몸을 바르게 세우고 마음을 가다듬는 것'을 앉는 방법이라고 설한다.

걷기선을 할 수도 있다. '걸을 때 걷는 것을 알라'는 <염처경> 속 부처님의 말씀처럼, 걷기 뿐 아니라 걷고 서고 앉고 눕는 모든 행동이 선정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부처님은 사념처 수행과 함께 중생 근기에 따라 사마타 수행을 가르치셨다. <중지부경>에서 사마타의 중요성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깨달음에 이르는 네 가지 길이 있는데,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 사마타와 사념처에 대한 수행 수순이 틀려지는 것을 설명했다. 사마타를 먼저 수행하고 사념처를 나중에 수행하는 수행자, 사념처를 먼저 하고 사마타를 하는 수행자, 두 가지를 연결해서 수행하거나, 사념처 수행을 하는 가운데 선정에 들어 번뇌와 속박에서 벗어나는 수행자의 분류를 해 놓고 있다.

이러한 네 가지 길에서 사념처를 수행할 때는 세 가지 문인 무상 고 무아 중에서 하나를 관하게 된다. <청정도론>은 '신심과 보시를 많이 한 수행자는 무상의 문인 무상삼매로, 선정을 많이 닦은 수행자는 고의 문인 무원삼매로, 지혜가 많은 이는 무아의 문인 공삼매에 든다'고 설명한다. 수행의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따라하면 모두 한 줄기이다.

각황사 조실 의룡 스님은 "부처님은 낙행주의자"라고 말한다. 수행하는 것이 즐겁지 않고 고통스러우면 그건 수행의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이자,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수행이 아니라는 것. 스님의 말씀처럼 고행을 하던 싯다르타는 그것이 도를 깨치는 방법이 아니라고 깨달았기에 고행을 버리고 평화와 기쁨 속에 7일간의 선정에 들었던 것이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수행법은 사념처 수행이지만 2500년이 지난 현재의 불자들은 사념처 수행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선, 독경, 염불, 주력, 절, 사경 · 사불에 이르기까지 여러 수행법이 불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성도재일을 맞아 부처님이 용맹정진 했던 정신을 되살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 정진의 힘을 높이 세워보자. 어떤 수행법이건 내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 성도재일에는 깨달음을 위한 정진을 하자. 부처님의 깨달음을 찬탄하며 '나'를 찾아 깨달음의 길을 떠나야 한다.

성도재일마다 철야정진을 한지 10년이 됐다는 이정선 보살(60)은 "나이가 들면서 철야정진이 쉽지는 않지만 깨달음을 얻었던 부처님도 이러한 정진을 통해서 성불했다는 생각에 좀더 열심히 하게 된다"며 "밤을 새우며 용맹정진을 하고 나면 그동안 쌓였던 악업이 씻겨나가는 것 같아 무척 홀가분하다"고 철야정진 예찬론을 펼친다.

어떤 수행방법을 선택하든지, 성도재일까지 치열한 구도 속에 피어오르는 법열을 만끽해보자.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 성도재일 정진법회 여는 사찰

사찰	내용	날짜	연락처
서울 조계사	성도재일 정진주간	1월 19~26일	(02)732-2115
	철야정진	1월 25일 저녁 9시~26일 새벽 4시	
서울 봉은사	자비실천 참회 정진기도	1월 19~25일	(02)545-1448
서울 보문사	성도절 철야 참회 정진법회	1월 25일 저녁 8시~26일 낮 12시	(02)928-3797
서울 불광사	성도 광명전야 철야 정진법회	1월 25~26일	
	성도광명일 법회	1월 26일	(02)413-6060
서울 법장사	성도재일 정진기도	1월 19~26일, 25일 철야정진	(02)971-0303
성남 정토사	3천배 철야기도	1월 24일 오후 2시, 25일 오후 2시 · 8시	(031)723-9797
수원 용주사	철야정진	1월 25일 오후 7시~26일 새벽 3시	(031)234-0040
고양 흥국사	철야정진	1월 25일 오후 10시~26일 새벽 4시	(02)381-7970
인천 법명사	경건주간	1월 19~26일	(032)576-9741
양주 육지장사	철야정진	1월 25일 저녁 9시~26일 새벽예불	(031)871-0101
대구 동화사	철야정진	1월 25일 저녁 8시~26일 새벽 3시	(053)474-8228
대구 영남불교대 관음사	철야대법회	1월 25일 저녁 9시~26일 새벽5시	(053)474-8228
영천 은해사	철야정진법회	1월 26일 오후 6시~26일 오전 6시	(054)335-3318
합천 해인사	용맹정진	1월 19~26일	(055)934-3000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詩畵로 떠나는 암자기행 ①

영구산 향일암 장인성 시인

향일암 노스님 새벽염불 소리에
새 한 마리 푸드득 깃을 털고 일어나
바다로 아득히 날아가서는
붉은 햇덩이를 덥석 채 물고
하늘로 솟구치는 남해의 아침

향일암(向日庵): 여수 돌산도에 있는 비구니 암자.
돌문 틈새로 조망하는 일출모습이 장관이다.



그림: 이상배 화백

추위야 물렀거라! 산사로 수행하러 간다

백양사 · 미황사 · 금산사 · 길상사 수행 템플스테이

이번 겨울에도 역시 '나'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수행템플스테이가 마련됐다. 본격적인 수행에 선뜻 동참하기 힘들거나, 직장생활 등으로 시간이 부족한 이들을 위해 마련된 짧은 수행 맛보기 기회.

3박4일간 마련되는 장성 백양사(061-392-7502)의 참사람 동계수행템플스테이가 있다.

1월 25~28일, 2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수행으로 가꾸는 참된 삶-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 동참할 수 있다.

청소년들을 위한 '호국참선프로그램'은 2월 23~25일 밀양 표충사(055-352-1070)에서 열린다. 심우도 등을 보며 마음공부도 하고, 사명대사 <난중어록>도 배우며 호연지기를 기른다.

참 나를 찾아가는 7박8일간의 출가수행 '참사람의 향기'는 해남 미황사(061-533-3521)가 매달 운영한다. 참선 묵언 오후불식, 수행문답 등 철저한 출가수행자의 생활 속에 젖어들 수 있다.

김제 금산사(063-246-3679)는 1월 20~26일, 27일~2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禪-나를 깨치다' 수련법회를 마련한다.

매월 넷째 주 주말 서울 길상사(02-3672-5945)에서 정기적으로 마련되는 '맑고 향기롭게 선 수련회는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일요일 오후 3시까지 꼬박 24시간 동안 진행된다.

강지연 기자





2007 신행단체들의 화두는?

신행·단합은 기본, 봉사는 당연

불교계 신행단체들은 2007년 성향은 '신행은 기본, 봉사는 당연'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봉사의 중요성이 어느 해 보다 부각된 만큼 올해는 친목과 신행생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봉사와 나눔의 보살행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공무원불자회는 지난해 12월 초 저소득층 세대 및 독거노인을 위해 쌀과 김치를 전달했다. 2005년 5월 창립한 이래 성남시 공무원불자회 백미와 금일봉을 불우이웃에게 전달하는 등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에도 역시 백미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매주 토요일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자원봉사에 나서는 **대전시청불자회** 회원들 역시 봉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살이다. 8개조로 나눠 한 주도 거름 없이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어르신들 수발을 들기 시작한 것이 지난해 3월.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갈 생각이다.

2005년 3월 창립한 **대구경북 108여성불자회**는 매주 금요일 독거어르신을 위한 목욕봉사를 비롯해 청소년 시설 대구 등불의 집은 수시로 드나들며 내 부모, 내 자식을 돌본다는 생각으로 청소와 빨래 봉사를 한다.

대구경북 108여성불자회의 목표는 여성불교회관 설립이다. 여성불교회관이 설립될 때까지 큰 발원을 세운 채 내 주변을 살피는 봉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목표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는 1월 26일 태국, 6월 몽골 등 해외의료봉사에 좀더 힘을 보탤 계획이다. 4월에는 구례 화엄사에서 의료봉사를 겸한 수련회도 마련한다.

약사여래의 손길로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는 **선재의료회**는 지난해 12월 봉은사에서 공로패를 받았다. 1999년부터 300회 1만 명 이상의 이웃들에게 약사여래의 보살행을 실천한 것과 강원도 수해복구 현장에서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불교 및 봉은사의 위상을 크게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선재의료회는 서울역 봉은사 석왕사 등지에서 회원들이 조를 짜 매주 내과 치과 등 진료를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찾는 만인의 병원인만큼 올해도 자신의 건강은 뒷전으로 한 채 회원들이 최선을 다해 무료진료를 펼칠 계획이다.



경찰청불교회와 경찰병원불교회는 합동 의료봉사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1일 남양주지체장애인협회에서 무료진료에 나선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지역사회에 '힘' 보태며 포교…조직강화도
병불련 해외봉사 · 약사회 장학사업 '기대'

경찰청불교회는 지난해 경찰병원불교회와 함께 합동 의료봉사를 시작했다. 남양주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를 찾았는가 하면 충북경찰청 불교회와 함께 마곡사에서 합동 의료봉사를 벌이기도 했다. 올해도 합동 의료봉사를 통해 전국 각지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 봉사할 것이 기대된다.

일산병원 불자들은 병원 내에서 운영되는 불교대학에서 교리 공부를 하며 신심을 다지는 한편, 인근 소외계층과 독거어르신을 위한 생필품 지원 등의 봉사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전문의들은 중앙신도회와 함께하는 불교의료지원단 '반갑다 연우야'를 통해 어르신 개안수술을 준비하고 있다.

성북승무사무소불자회는 봉사모임을 만들어 2006년 1월부터 매월 2차례 선재동자원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탑골공원 등에서 무료투약 봉사 등을 해 오던 **불자약사보리**회는 기존의 봉사 외에도 올해 승가대 학인스님 장학금 모금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인재양성 만큼 중요한 불사는 없다는 생각에 회원들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이밖에 단체 위상 세우기에 나선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와 청소년 포교 원력을 세운 **전국교사불자연합회**의 활동도 주목된다.

공불련이 올해 주력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대표 신행단체로서 내실을 기하는 것이다. 공불련의 단위조직이 213개인데도 불구하고 전남북 지역에는 단위불자회가 없는 곳이 많다. 전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1기관 1불자회 갖기 운동을 전개할 방침. 법회도 좀더 재미있고 활발하게 운영해 포교 수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는 청소년 포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리강좌를 마련할 생각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울산시 공무원 불자회
자원봉사 우수동아리 선정

울산시 공무원 불자회가 2006년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 평가 결과 우수 동아리에 선정됐다. 울산시가 2006년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을 평가한 결과 공무원 불자회가 남부소방서와 함께 우수 자원봉사 동아리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 평가는 17개 동아리, 사업소 등에서 연인원 1089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인시설 등 24개 시설과 어려운 이웃 58세대에 대해 총 102회 연4666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 불자회 외에도 최우수 동아리에는 미나회, 장려에 온산소방서 중부소방서 등이 선정돼 50~2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광진구청 불자회 창립

광진구청 불자회가 1월 11일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새 걸음을 디뎠다. 창립준비를 꾸준히 해온 불자회는 지난해 11월 총회를 통해 김성래 광진구 능동 동장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앞으로 광진구청 불자회는 정기법회, 전통사찰 순례법회, 기초교리 강좌 등을 통해 불심을 다질 계획이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전 일주향 올리며 (상)

김남식 부산광역시 강서구

종일토록 먹물 옷을 입고서 찌푸려져 있던 하늘이 오후가 되자 자욱한 흙내음과 함께 소나기로 바뀌었습니다. 때 아닌 봄 가뭄처럼 메마른 대지에 나리는 단비는 모든 이로 하여금 참으로 환한 웃음과 기운이 나게 만듭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전생의 일을 알려면 금생에 받는 것이 그것이요. 내생의 일을 알려면 금생에 짓는 것이 그것'이라는 참으로 지극한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더욱 절실히 다가오고 있는 듯하답니다.

'누에가 자유로운 나비를 위해 고치라는 고통과 시련을 감내한다'는 말로써 나 자신을 위장한 채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되는대로 살아왔습니다.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며 '나비가 되기 전의 고치'라고 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아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문제인지 직시하지 않은 채 현실도피라는 방패를 내세워 가지 않는 세월 탓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 모습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준 새롭게 변해버린 세상에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답니다.



비교적 부유한 가정의 '우등생'
중학교 입학 후 어두운 그림자가…

지난 날 온갖 탐욕에 젖어 허튼짓을 일삼고 이기심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제 인생의 모습입니다. 종래는 스스로를 탓하는 것조차 망각한 채 지내기까지 하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지요. 제가 처한 현실의 원인을 오로지 다른 사람들과 세상 탓으로 떠넘길 뿐 내 탓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진실을 오도한 채 오만을 떨던 저는 나에게 상처가 날 것이 두려워 남에게 먼저 상처를 주곤 짐짓 모른 채하곤 했습니다. 남을 해하면 결국 그것이 곧 나의 상처로 되돌아오리라는 것을 미루어 헤아리지 못했던 아둔함으로 중무장했던 것이죠.

그런 저에게 부처님의 고마우신 복덕이 남아있었던 것일까요? 부처님은 무명에서 허덕이고 있던, 남에게 상처를 입히며 자신을 보호하려했던 어리석은 저에게 진정어린 참회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명의 끝없는 나락에 떨어져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제 몸과 마음을 참회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부처님. 또 그 고결한 가르침을 만나게 된 인연복덕에 대한 고마움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누구일까? 도대체 이 놈은 어떻게 생겨 먹은 놈이기에 지금 이렇게 앉아 참회랍시고 아파하며 또 다른 번뇌 망상의 구름 속에 눈물짓고 있는 것일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뇌하며 하루하루 해답을 찾고자 노력해봅니다.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우주에 충만하시어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대자대비 부처님께 마음 다해 돌아가 의지하며 감히 기원 올립니다.

세상 어느 부모든 자식을 대하는 마음은 한결같으시겠지만 제게 어머니는 더욱 특별합니다. 이토록 어리석고 불효막심한 저를, 세상사람 모두 손가락질하며 냉대하여도 자식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그저 포근히 감싸주시는 어머니. 당신 스스로 마음속 고통을 감내하며 이 못난 놈, 행여 고생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 걱정해주시는 어머니. 언젠가 접견장에서 흰머리가 많아졌다는 저의 말에 오늘은 염색을 못하여서 그렇다고 애써 웃음지으시던 어머니. 당신의 안위보다 이 못난 놈 마음 아플까 싶어 다독거려 주시던 어머니.

지금쯤 접견을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숯검정이 되어 버렸을 가슴 위로 눈물이 가득하시겠지요.

중생의 소망 따라 그 몸 나투시는 부처님. 어리석고 불효막심한 이 중생이 감히 두 손 모아 합장해 봅니다. 부디 이제는 더 이상의 힘든 일과 고난이 없이 평안해지시기를, 저 마음속 숯검정이 부처님 명훈가피에 힘입어 녹아질 수 있기를, 일심으로 발원하며 눈물과 함께 어리석은 지난날을 회상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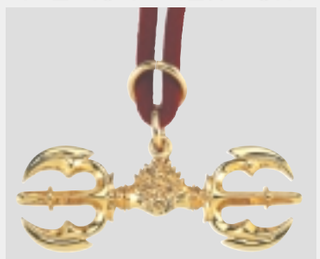
제가 태어난 곳은 서부 경남의 제일 끝자락인 거창이랍니다. 지금은 고속도로도 생기고 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깜깜 벽촌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궁벽한 시골이었습니다.

저의 집은 그래도 읍내에 있었기에 그나마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다지 크진 않지만 농장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읍내에서 조그만 의류업을 하셨지요. 그 영향으로 저의 어린 시절은 유복한 가정에서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우등생으로 부모님 어깨에 힘을 실어 드리는 것이 큰 즐거움이기도 했었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어둠과 밝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셨던가요.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쯤 우리집에는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자동차용 삼고금강저

사고를 예방하고 화를쫓는 영험!!



안전운행의 선물!
삼재소멸의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 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 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삼고금강저다. 칼날이 두개달린 이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3개씩 있는 삼고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5개씩 있는 오고금강저가 있는데 각각 사용하는 뜻이 다르다.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금강의 지혜로 안전운행하며,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승리하는 뜻을 지닌 삼고금강저를 자동차에 걸고 다니시면 된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발송해 준다.

●순금금니로 제작 가격38,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삼재소멸 삼고금강저 밸트



삼재소멸 선물!
건강의 선물 !

삼고금강저밸트는 정해년 삼재가든 처사 (남성)님들을 위해 항상몸에지니고 다닐수 있게 제작된 밸트로 삼재소멸특별축원불공을 마치고 출시된 밸트입니다. 2007년부터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에 해당되는 처사(남성)님들께는 삼재를 소멸하는 뜻깊은 선물이 될것입니다. 삼재라 하여 삼재가든 모든 사람이 안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삼재기간중에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 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 건강자동밸트는 고급 천연소가죽에 멜토에너지와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실용신안 등록 밸트로 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기능성 고급밸트로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삼재가 끝나는해 말일날 삼재소멸 금강저밸트는 흰종이에 싸서 기도하시고 산속에 묻으시면 삼재는 모두 끝납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불광사에서 보내드립니다. 가격:75,000원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화제의 지갑

600년만에 온 황금돼지 해 선물은 지갑!
새로하는 정해년 새지갑으로 평생부자!



남성용金나노중지갑

여성용銀나노 장지갑

옴마니반메훔 福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역경학적으로 일반돼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돼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향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돌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운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언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 불공**까지 마친 옴마니 반메훔 복지갑은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하는 팔길상보병과만사형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金 · 銀나노 처리 까지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론조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이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훔 지갑을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중지갑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정해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막아!

닥쳐올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2007년 정해년은 600년만에 찾아온 재운이 넘치는 황금돼지해지만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삼년간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시작하는 어려운해로 2007년에는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법하지 말고 일을 벌리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큰활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쫓으며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납치, 강도, 살인,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금강저는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가로5Cm 폭2Cm 순금금니하여 가방또는 지갑속에 넣고다니면 안전하다. 삼재소멸축원기도를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가격35,000원

(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영어도 절 생활도 서툴지만 재밌어요”

강화 연등국제선원 ‘청소년 다도 및 참선 체험 영어캠프’ 현장


향공수련


입제식 기념사진


다도실습


참선수련

연등선원은 미래 한국불교의 주역인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불교문화를 영어로 체험하게 하는 기회 제공은 물론 자립정신과 협동심 배양을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청소년 영어캠프’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영어로 주지 스님이 뭘까요?” “abbot.”

“법복은요?” “buddhist custom.”

강화 연등국제선원(선원장 원유)에서 1월 8~12일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청소년 다도 및 참선 체험 영어캠프’ 첫날. 영어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22명의 남녀 초 · 중등생들이 영어 지도를 맡은 릴리(미국 · 26)선생님의 질문에 유창하게 대답한다. 4박 5일(2차 1월 15~19일, 3차 22~26일, 4차 27~3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영어캠프는 참선 및 다도 체험, 향공(香功, 베트남 불가 기공술), 발우공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영어캠프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봤다.

출발 전 걱정반 기대반

1월 8일 오전 11시 조계사 앞. 영어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초 · 중등생들이 연등국제선원 영어캠프 행 버스 안에 서먹서먹하게 앉아 있다. 릴리 선생님이 버스 안에서 22명의 참가자들에게 4박 5일 간의 일정을 영어로 간략히 설명한다. 어떤 아이들은 걱정이 역력한 눈빛이고 또 어떤 아이들은 산사에서의 영어캠프가 기대되는지 릴리 선생님에게 “외국인 선생님은 몇 명인지?” “어떤 프로그램이 재밌을지?” 등 이런저런 질문공세를 퍼붓는다.

“어디서 왔느냐?” “I don’t know”

연등국제선원에 도착한 아이들은 점심공양을 한 후 오후 2시 오리엔테이션에 들어갔다. 오리엔테이션은 아이들의 수준별 반편성을 위한 것. 영어지도 자원봉사자 크리스(독일 · 26), 조(캐나다 · 27), 로라(스웨덴 · 25)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영어실력을 체크하기 위해 “어디서 왔느냐?” “이름이 뭐냐?” “취미는?” 등을 영어로 물어 본다.

정지만(역삼초교6)군은 쑥스러운지 고개를 연신 저으며 “I don’t know(잘 몰라요).”를 연발한다. 박서희(야탑초교3)양은 ‘취미는 독서고 장래희망은 선생님’이라는 내용의 자기소개를 원어민 수준의 영어실력으로 발표해 갈채를 받기도 했다.

> 참선 10분 만에 “그만 해요!”
> “축지법 알려달라” 조르기도
> 5일의 체험 학교생활에 ‘적용’

가부좌 틀고 힘들지만 꾹 참고 참선

“참선은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의 하나이며 세상을 밝히는 마음공부입니다. 자! 이제 눈을 지그시 감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보세요. 숨은 천천히 배로 들이마시세요.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 지는 게 느껴지나요?” 러시아 출신 일조 스님이 아이들에게 참선을 지도하는 모습은 부드러운 가운데도 엄중함이 느껴진다. 마냥 장난꾸러기만 같았던 아이들의 얼굴에서도 사뭇 진지함이 묻어난다. 아이들이 가부좌를 틀고 참선에 들어 간지 10분이 지났을까. 그새를 못 참아 다리가 저려오고 숨쉬기가 답답하다며 “그만 하면 안 되요?”라며 이번 영어캠프의 막내 최소영(당현초교2)양이 울먹인다. 일조 스님은 “가부좌가 힘들면 양반다리를 하라”며 20분만 더 견뎌볼 것을 권유한다. 30분간의 참선이 끝난 후 “어땠느냐?”고 질문하자 강민수(우신중3)군은 “힘들지만 할만 하던데요 뭘. 옆에 있는 친구가 저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지 않으려고 더 꾹 참고 했어요”라며 해냈다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

베트남 기공술 향공(香功) ‘인기 짱’

이번 캠프의 ‘인기 짱’ 프로그램은 단연 ‘향공’. 향공은 베트남과 중국의 불가비전 기공술로 연꽃이 피는 것을 형상화한 일종의 심신 수련법이다. ‘연꽃잎 흔들기’ ‘용꼬리 흔들기’ 등 총 16개 동작으로 구성돼 있다. 향공을 연마하면 마음을 안정시켜 주고 집중력 강화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향공 지도를 맡은 베트남 출신 운풍 스님은 “기공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부터 충실히 배우려는 자세다”며 “이러한 마음가짐은 4박 5일간의 영어캠프를 마친 후에도 학교 공부 등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장난기가 발동한 김태현(명진초교6)군은 “장풍 쏘는 법과 축지법을 알려 달라”며 운풍 스님을 조르기도 해 강의장엔 한바탕 웃음바다가 일기도 했다.

글 · 사진/강화도=노병철 기자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과학탐구와 날씨
용인천문대에서는 1월 18일 초 · 중등생을 대상으로 기상청 견학, 별자리 강의, 별자리 관측, 행성 탐험 입체 영상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02)577-3856

국립극장 문화학교
국립극장 문화학교에서는 청소년(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야금병창, 고전무용, 판소리, 민요 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1월 31일까지. (02)2277-3431

어린이 허준교실
허준박물관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허준교실’을 연다. 1월 18일과 25일 두 차례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한의학 유물 관람, 동의보감 체험(총명환, 한방 과자 만들기) 등으로 진행된다. (02)3661-8686

강남대성 무료 윈터스쿨
온라인 입시 사이트의 대명사 ‘마이맥스터디(mimacstudy.com)’에서 무료 윈터스쿨을 연다. 이번 윈터스쿨은 언어 · 수리 · 외국어 · 통합논술로 구성된 수험생 대상 강좌로 총 7주 분량이다. 또 1월 한달 동안 ‘도전 100만원 장학금’과 ‘2008 대입 상담’ 행사도 실시한다. 1544-2300

청소년 스키캠프
서울시립 금천청소년쉼터는 1월 18일부터 20일 양지리조트에서 ‘청소년 스키캠프’를 실시한다. 금천청소년쉼터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참석 가능, 무료. (02)3281-8200

동아리 모집
노원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문화 · 예술적 소질을 계발하기 위해 ‘청소년 동아리’ 회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밴드, 댄스, 비보이, 응원 등이다. (02)3391-4141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51로 연락주세요.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캠페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현대불교 연중 캠페인 전개

‘현대불교’가 2007년 ‘새싹불자를 키웁시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1996년 ‘새싹불자를 키웁시다’란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했던 현대불교가 다시 같은 주제의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 현장이 여전히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방치하고는 불교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올해부터 어린이 포교 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새싹 불자 키우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현대불교’ 역시 불교의 미래를 밝게 열겠다는 각오로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캠페인 전용 지면 두개면 마련
‘현대불교’는 매주 2페이지씩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지면을 운영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활기찬 법회 현장과 각종 활동 현장을 소개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만화, 칼럼 등의 연재를 통해 학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 종립학교에 ‘현대불교’ 보내기
현재 불교계 종립학교는 30 곳이며 총 학급수는 750 개에 이릅니다. 가장 가까운 포교당인 종립학교 교실마다 ‘현대불교’를 보내 어린이 · 청소년들을 불교와 보다 친근하게 인연을 맺어주고자 합니다. 또 각 종립학교의 교장 · 교감 선생님과 교법사, 도서관, 불교 동아리 등에서도 ‘현대불교’를 매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종립 중고교생 논술 경시대회
논술이 입시의 최고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종립 중고교생들의 논술 기량을 높이고 불교의 교리와 사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논술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하는 논술 경시대회를 개최해 종립학교 학생들의 학업을 돕겠습니다.

■ 수험생을 위한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험 압박감에 시달리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특별 이벤트’를 마련합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자비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강의해 주목받고 있는 마가 스님(천안 만일사 주지)이 2월 10일과 11일, 24일과 25일 등 네 차례에 걸쳐 ‘자비명상’을 진행합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불자님들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문의 02-2004-8237)

■ 희망의 템플 스테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사찰에서 며칠 묵으며 각종 문화와 수행을 체험하는 것은 인생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현대불교’는 방학을 이용해 보다 알차고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열겠습니다.



성적이 쑥쑥 오르는
10분 명상 기공

집중력 최고…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

1. 명상 · 기공 왜 필요한가

2005년 3월, 토요휴업일이 시작된 이후 지난 2006년까지 1만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우곡선원의 청소년 명상(참선)교실에 참여했다. 처음 청소년들에게 명상(참선)교실을 운영하면서 '길 없는 길'을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참여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호응, 학부모님들의 따뜻한 격려로 지금까지 무난히 이끌어 올 수 있었다.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교육활동 영역은 무엇입니까?'라는 설문조사를 해보면 교사나 학부모들 대부분 인성지도라고 대답한다. 그렇다면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 사람다운 사람, 사람다운 성품을 기르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인성에 관한 지도 내용이나 방법은 학교나 교사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점심시간 차가운 도시락을 덜덜 떨면서 먹고 따사로운 햇볕을 벗 삼아 모여든 창가의 자리다툼도 이제는 옛 추억이다. 지금은 교실마다 난방시설과 급식제공, 컴퓨터 보급으로 예전 보다 훨씬 편리하고 쾌적한 첨단 수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한 달에 두 번 실시되는 토요휴업일! 초 · 중 · 고교생들은 무엇을 할까?

우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한 결과(초등학생 2410명과 중학생 1818명, 고교생 910명 등 4338명을 대상 실시/2006. 9)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사에 따르면 "토요휴업일에 주로 무엇을 하느냐" 라는 질문에 친구와 논다가 25.7%, 컴퓨터게임을 한다 17.5%, 가족 친척과 지낸다가 16.2%, 공부나 숙제를 한다가 11.2% 로 조사됐다.



겨울방학을 맞아 1000여명의 초 · 중 · 고등학생들이 우곡선원에서 운영하는 명상(참선)교실에서 심신수련을 하고 있다.

날숨호흡 등 생활화하면
세상 이해하는 마음 생겨

놀토 등 적극적인 시간 활용
심성계발 기회 삼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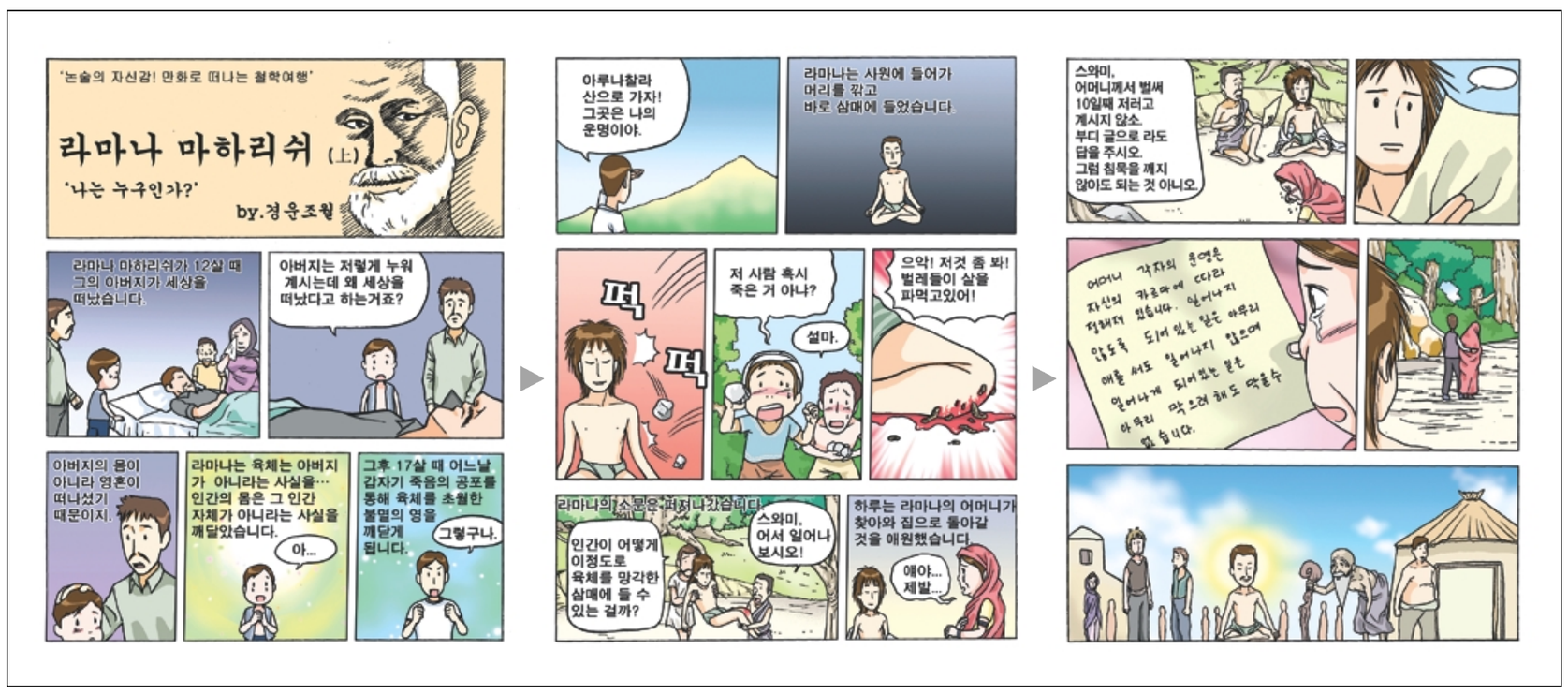
토요휴업일이 처음 실시될 때부터 예상됐던 결과지만 검증된 청소년지도프로그램의 부족으로 토요휴업일은 말 그대로 놀토가 되었고 현재도 마땅히 청소년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회단체와 참여 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우곡선원에서는 이러한 교육과제에 대한 연구 끝에 청소년 명상(참선)교육이 학생들에게 내면의 변화를 주고 건전한 가치관과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 지는 최선의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는 확신아래 본 교육원에서의 토요휴업일 청소년 명상교육은 물론 한꺼번에 1천여명이 동참하는 명상(참선)수업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명상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날숨호흡과 삼지법 · 눈씻기 · 선기공체조 · 참품세로 자신을 관찰 교정하고, 만다라 명상, 자연명상 실습으로 우주와 하나가 되어 보기도 하며, 고정관념의 정화 · 자연보호활동 등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마음가짐과 주의집중력 기르기 · 토론 및 독해지도로 자기 주도적 학습력 향상을 도모했다.

우곡심성개발교육원의 '마음동산 꾸미기 명상프로그램'에 동참한 이후로 학교생활이 즐겁고 학업성적이 향상되었다는 소감문과 영재선발 시험에 뽑혔다는 다수 학생들의 수줍은 자랑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명상(참선)이 학생들의 인성계발은 물론 학습능력 향상에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면서 정해년에는 이러한 명상교육프로그램이 널리 활용되어지기를 기원한다. 다음호부터 총 5회에 걸쳐 구체적인 명상방법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 필자 김혜경 선생님
부산 대연중학교 교장
(사)우곡선원 교육지도자불자회 회장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 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sasiman@daum.net)

'황금 돼지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에는 새로운 불교문화의 초석을 다지게 될 세계적인 스님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스님은 '새시대의 정치 · 교육의 초석' '새로운 세계의 정신문화의 바탕' 등의 자질을 겸비해야 함은 기본이겠죠? (금장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아이디 은우)

댓글-불교매니아: 은우님 말씀에 백번 공감하는 바입니다. 정말 정해년에는 불교계를 이끌어갈 새 시대 새 스님의 탄생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인이에요. 겨울 불교학교 너무 재미있었어요! '공명조 이야기' 노래에 맞춰서 율동 했던 것 집에 가서 엄마 아빠께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가족 얼굴에 모두 웃음꽃이 피었어요. 종 모양 풍경에 물고기가 달려있어서 불나지 말라고 현관문에 달아놨고,
편선지에는 얼른 편지를 써서 엄마께 드렸어요. 엄마는 제가 옥천암에서 만든 편지라서 더욱더 기뻐했어요. 엄마는 그 편지를 보고 웃음이 피었어요.
키스게임이랑 영어게임, 절대 음감 게임, 가위 바위 보 게임 등. 또 눈썰매장 갔던 것, 보고 싶었던 운산스님을 만난 것이 기억에 남아요.
우리말 반야심경을 울 오빠는 벌써 다 외운 듯이 맨~~~~~날 입에 달고 살아요.
앞으로 어린이 불교학교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 (옥천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아이디 재인)

댓글-김지선: 꺄~우리 재인이 어쩜 쌤보다 더 글을 잘 쓰니~*^^* 재미있었다니 쌤두 보람보람~~이번주 일요일에 절에서 보자~~^^
-지혜: 귀여운 재인이~ 재미있었다니 너무 다행이당! 앞으로도 예쁜 재인이 얼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감기 조심해!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영양만점 다이어트식품
100% 천연
산야초 오곡조청 인진쑥조청
◈ 산야초 오곡조청 한 숟갈에는 한끼 공양의 영양분이 농축 되어 있습니다. 오곡 (쌀, 수수, 조, 검정쌀, 옥수수)과 엿질금(100% 국내산)만을 써서 몸에 이로운 산야초 달인 물과 함께 정성껏 삭혀 만든 전통식 조청입니다.
옛날, 병약한 어느 스님은 오곡조청과 생수만을 드시고 백일 기도정진하여 지병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기도정진할 때, 여행 다닐 때, 빵 · 떡 드실 때 속을 편하게 하고 든든한 요기가 되어주는 영양간식!
산야초 오곡조청은 불자님들의 좋은 인연입니다.
영양만점 다이어트식품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위장, 간, 어혈에 좋은 인진쑥조청 1.2kg = 58,000원
산사조청원의 명품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6년근 산도라지로 만든 山寺 약도라지 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 주문전화 :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정선 동강의 자랑 長壽청국장
동강 백운산 토종
長壽
청국장분말
청국장환
된장/간장
강원도 정선 동강 백운산 발 청정 지역에서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 생산한 대두 100%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콩으로 만든 長壽 청국장 분말과 환
▶청국장이 우리몸에 좋은 것은 조상 대대로 각 문헌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고 현재에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 개발하여 논문이나 책자에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좋아야 좋은 청국장 분말이나 환을 만들수 있기에 長壽 청국장 분말이나 환은 정선 동강앞 청정지역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여 조상님들의 재래방식 그대로 가마솥에 적정온도로 삶아 황토방에서 숙성, 네시틴 균이 죽지 않는 40℃에서 장시간 건조하여 분쇄한 것이 長壽 청국장 분말입니다.
▶분말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암반수를 이용하여 환을 만들어 희석이 잘되므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량생산이 아닌 소량 생산을 고집하며, 최고의 품질로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을 만들어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도록 정진하는 동강백운산토종이 되겠습니다.
◆입금계좌 : 농협 315012-51-078352 백승화
주문 및 문의전화
(033)378-4312
010-4634-4311
청국장 분말 1kg 35,000원
청국장 환 500g 25,000원
된 장 1kg 12,000원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저서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천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천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출간>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낱낱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발우공양

개원하시는 스님, 인등을 교체 하시려는 스님
이제 인등 전면에 설치하십시요! 화려하고 장엄합니다.
오행 관음인등 출시
인등을 밝히는 의미는 성불의 시작이며
탐,진,치 삼독심으로 얽힌 무명을 소멸하고
재앙을 물리쳐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불자님 다니시는 사찰에 매년 새해에 꼭 인등을 밝혀
업장소멸하고 만사형통 누리소서…
오행 관음인등의 장점
인등실제크기 : 가로7.5Cm 세로13Cm 입니다.
사용장소 : 각사찰 및 철학원,그외 인등을 밝히는 모든곳
복잡하던 전선이 없고 열의 발생이 없으며 LED전구를 사용하여 수명이 반 영구적이고 전력소모량이 적고 아답터 1개로 130개의 등을 켤수 있습니다.
고정식 인등이 아니고 탈,부착이 자유로우며 녹,적,황,백,청색의 빛은 부족한 오행을 보강해 주며, 점등시 주,야에 디자인이 아름답고 장엄합니다.
본 제품은 실용실안 출원 제20-2006-0028648호 입니다.
오행 관음액자
오행관음은 불자님 가정에 액운을 막고
불심을 증장하여 무량복덕, 만사형통을 기원합니다.
각 가정에 소장하시고 일심발원하여 성불하십시요.
제작 및 판매 불교명품 도경 직통 010-8337-7759

하늘이 무너지면 어쩌지? … 쓸데없는 걱정 말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영화 · 소설 · 각종 통계자료 인용
바른 세상살이 길 안내 친절하게
"마음거울에 내면을 비춰보라"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흥교 스님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출판부
1만5000원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해 본 적이 있는가?'

이 책은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먼 옛날 중국의 기국(杞國)이라는 작은 나라에 이런 사람이 살았단다.

저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쓸데없는 근심을 하는데 낭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근심과 집착을 없애는 방법임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그 다음에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그러면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며, 지금 이 순간을 살자"고 말한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는 책 제목 그대로 저자는 에두르지 않고 처음부터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저자 흥교 스님(사진)은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후 14안거를 성만하고 네 차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지냈으며, 지금은 범어사 전계대화상과 학교법인 원효학원 이사장, 대각회 이사장 등을 맡고 있는 조계종의 명망있는 스님이다.

저자 이력을 소개한 이유는 따로 있다. 이 책을 읽다보면 저자가 문학가인지, 문화비평가인지, 사회학자인지, 과학자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각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모두 5부로 구성돼 있으며, 각 부 이야기는 5~6쪽 분량의 단편들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그 단편 단편들마다 영화나 소설, 각종 통계자료, 인체와 우주에 대한 과학적 지식, 중국은 물론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의 우화나 실화, 심리 · 정신분석 등을 인용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그저 단순하게 부처님 진리가 어떻고, 수행이 어떻고, 조사스님이 어떻고 했다면 '수행지침서' 쯤으로 여길 만도 하지만, 이 책은 그런 천편일률적인 형식을 단호히 거부한다.

"지구가 도는 속도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 자전 속도는 시속 1,660㎞이니…(중략)…공전 속도는 더 어마어마하다. 시속 108,000㎞이니, 초속으로 따지면 29.8㎞ 정도다. 이렇듯 한 순간도 똑같을 수 없고, 한 순간도 멈춰 설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저자는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고정돼 있지 않은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뿐임을 말한다.

또 마음의 실체에 접근하면서는 미국인 과학자 존슨 얀(Johnson F.Yan)과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Roger Penrose)의 정신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예로 제시한 뒤 달마대사의 <혈맥론>을 들며 "마음은 없다"고 정의 내린다.

평상시 이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다면 저자는 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지식 폭식가'임이 분명하다. 만약 이 책을 쓰기 위해 자료를 준비했다면, 어마어마한 공을 들였음이 틀림없다. 분명한 것은 흥교 스님이 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는 것이다. 이 책은 그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1부~3부까지 스물세 가지의 이야기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부처님과 경전, 그리고 조사 스님들이 진리에 대해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독자들에게 이해시킨다.

4부에서는 우주의 첫 번째 부처님 비파시 부처님부터 일곱 번째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그리고 첫 번째 조사 마하가섭 존자부터 서른세 번째 조사 혜능대사까지 모두 40명의 부처님과 조사스님 게송을 40개 장으로 나누어 싣고 있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실재와 본질, 우주의 질서와 실상, 그리고 마음을 게송과 문화 · 사회 · 과학적 접근을 통해 설명한다.

흥교 스님은 책에서 거울이 존재하는 까닭은 이렇게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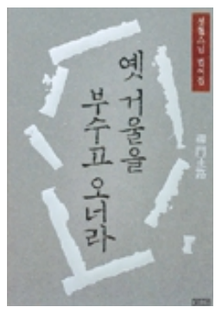
"자신의 겉모습을 살피고 꾸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거울을 통해 자기 내면을 비추어 보는 일이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는 바로 마음의 거울이 될만한 그런 책이다. (02)2004-8246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옛거울'을 부수면…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 개정판…육성법문 감동 재현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성철 스님 지음
장경각 | 1만원

영화의 '속편'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속설이 있다. 같은 제목에 비슷한 유형의 스토리는 그만큼 신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영화와 책을 단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지만, 개정판 책 역시 독자에게 다가가기에는 부담스럽다. 제목을 바꾸고 내용을 조금 보완한다고 해서 기본 골격이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1981년에 발간된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禪門正路)>의 개정판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는 이런 우려를 말끔히 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선문정로>는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새겨두어야 할 수행의 자세와 구체적인 수행방법, 그리고 깨달음의 세계를 다양한 불교 원전을 인용해 제시한 성철 스님의 법어집이다. 하지만 문장 자체가 한문투여서 출간 당시부터 현대인들이 쉽게 읽기에는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1993년 <선문정로평석(評釋)>이 나왔지만 어려움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가 기대되는 것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성철 스님의 강설까지 첨부했기 때문이다.

이 책을 펼치면 매 쪽마다 하단에 초록색 글자로 설명된 각주들이 눈에 띈다. 이 각주들은 어휘 풀이와 문장 해석을 해 놓은 것으로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궁금증을 즉시 풀 수 있게 해 준다. 수록된 각주만도 1380여개에 달해 내용 이해가 훨씬 쉬워졌다.

성철 스님이 1983년부터 해인사에서 사부대중을 대상으로 강설했던 육성 내용을 정리해 수록한 것도 특징이다.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는 세로쓰기에 원문과 평석 구분이 애매한 <선문정로>와는 달리 가로쓰기 형태에 내용을 19개 장(章)으로 나누고, 보는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장을 내용에 따라 다시 절로 구분해 놓았다. 그리고 각 절 내용에 맞는 성철 스님의 강설을 첨부했다.

독자의 이해 돕기를 위한 자료나열에 그쳤다면 밥상에 반찬 하나 더 놓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책을 읽다보면 주석과 강설이 따로 놀지 않고 본문 내용과 융화되면서 우려가 기우였음을 알게 된다.

이 책은 독자에게 '이해'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다. 25년 만에 다시 태어나는 성철 스님의 수행 이야기. 성철 스님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하다. (02)2198-5372

한명우 기자

12연기와 위빠사나의 관계는?

우 소바나 사야도의 '호두마을 법문' 모아



12연기와 위빠사나
묘원 편주해
행복한 숲 | 2만원

위빠사나 수행과 12연기는 어떤 관계일까.

묘원 법사(한국 위빠사나선원장)는 "12연기는 가장 난해하고 심오한 법이지만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혜이며, 위빠사나 수행자가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모르면 사견을 제거하기 어려워 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책은 미얀마 양곤의 쉐민모 명상센터 선원장인 우 소바나 사야도가 2003년 위빠사나 수행처인 천안 호두마을에서 수행을 지도하며 설했던 법문을 편주해자인 묘원 법사가 보완해 내놓은 수행 지침서다.

12연기(十二緣起)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와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는 의미로 존재의 소멸을 설명하고 있는 연기법의 기본 원리를 가장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수행자가 가져야 할 다섯 가지 요소와 수행할 때의 세 가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등 12연기뿐만 아니라 위빠사나 수행을 시작하는 초보수행자에서부터 경험이 있는 모든 수행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 (02)512-5258

한명우 기자

선승들의 행적 · 어록 시어로 다시 쓰다



이뭣꼬
홍희표 지음
종려나무 | 1만원

1993년 <시로 쓴 선사열전>이라는 부제를 단 선시집이 출간됐을 때 독자들은 자못 충격을 받았다. 서사(敍事)를 혹은 화두에 가까운 문답을 직접 인용한 시들은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형태였다.

이 시집은 그 당시의 시로 쓴 선사열전에 몇몇 작품들을 추고해 <이뭣꼬>라는 제목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시들의 대부분에는 공안이나 화두를 방불케 하는 경구들이 끼어들어 있다. 선승들의 정신을 시로 읽을 수 있다는 데 이 시집의 묘미가 있다.

'직지'의 정신 바탕으로 구도 연작시로 묶어



직지의 노래
김동원 지음
북스힐 | 7000원

김동원 시인의 여덟 번째 시집 <직지의 노래>는 '직지'로 상징되는 불교 사상을 노래한 연작시다. 불교적 인식을 통해 창조된 시편들은 선시가 추구하는 경계와 분별을 없애고, 궁극에는 언어마저 지우려는 수행의 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선가의 언어에 가깝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압축되고 비유적이며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다. 하지만 '직지' 사상의 심오함을 안다면, 이를 시어로 표현한 시인의 구도열에 고개가 숙여진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법성게(마음하나에 펼쳐진 우주)	의상조사, 정화, 1만2000원, 법공양
· 종교는 하나다	함상호, 1만8000원, 북인
· 잘사는법99	최정희, 8000원, 우리출판사
· 일본다도의 마음	센 겐시츠, 2만3000원, 다도
·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한암대원, 1만3000원, 현대불교신문사

도서주문 (02)2004-8219

알기쉬운 佛敎 儀式
新刊 通用佛敎儀範 案內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여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딴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1장 송 주 편 | 제2장 예 경 편 | 제3장 전각예경편 | 제4장 불 공 편
제5장 모든법회 | 제6장 방 생 | 제7장 제불보살복장단의식 | 제불보살 파불의식
제8장 점 안 편 | 제9장 이 운 편 | 제10장 수 계 편 | 제11장 고 사 편



編 · 著者
法眞 辛承都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승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內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상최귀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祖師님께 집필하신 의식집이야 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해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1장 시 식 편 | 제2장 장 의 편 | 제3장 다 비 편 | 매 장 埋 葬
제4장 四十九齋 입재(入齋) 삼우재(三虞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제5장 재 공 편 상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니 지장청 영산대재 괘불이운 건회소 영산작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십왕생칠재(預修十王生七齋)
제6장 기 제 사 | 제7장 靈魂結婚壇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 · 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 - 04 - 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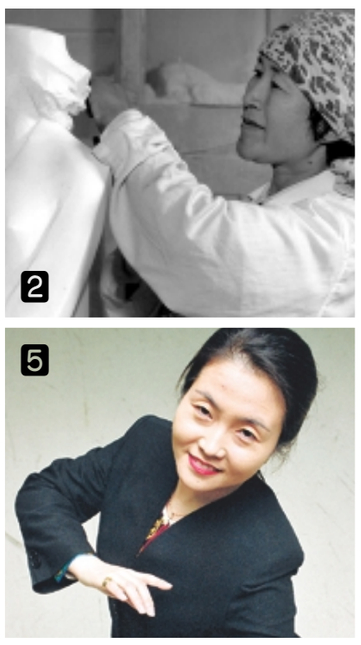
불교문화계 2007년 전망

새로운 시도로 포교 외연 넓힌다

2007 올해 공휴일은 지난해와 같은 66일이다. 만일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총 116일을 쉴 수 있다. 제법 긴 이 시간들을 의미있게 채울 수는 없을까? 그동안 꾸준히 저변을 확대해 온 불교문화계에 눈을 돌려보자. 불교계 단체와 예술가들은 다양하면서도 새로운 시도와 발전을 선보이기위해 새해 벽두부터 머리띠를 동여맸다. 예정된 공연과 전시에는 미리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려넣고 이들의 내적인 성숙을 기대해보자.

올 한해 무용 미술 음악 분야에 걸쳐 예술 단체와 주목할만한 예술인들의 계획을 들어봤다.









1 지난해 11월 구인사서 열린 삼보불교음악협회 주최 '제6회 전국불교음악제'. 2 한기늠 3 구진경 4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5 손재현 6 지난해 7월 스페인서 영산재 공연을 하고 있는 법현 스님.

■ 삼보불교음악협회

삼보불교음악협회는 올해 연주회 일정을 대폭 줄이고 한국불교음악역사관 완공과 찬불가 보급 운동, 반주용 악보 제작 및 캠페인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사장 운문 스님은 "8월말이면 현재 불사가 한창인 구기동 한국불교음악역사관이 완공된다"며 "이 곳에서는 한국 불교음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다"며 상반기 협회 차원에서 불사완공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주력 사업으로 표방한 찬불가 보급운동은 불자들이 주목할 대목이다.

찬불가 2천여곡을 책 세 권에 수록한 삼보불교음악 찬불가집 보급을 통해 전국 사찰의 법회의식에서 찬불가가 올바르게 불려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그래도 전국 20여 지부 합창단이 총출동해 장엄한 음성공양을 7년째 꾸준히 선사하는 전국불교음악제는 올해 9월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다.

불교음악역사관 8월 완공
찬불가 보급 등 주력

■ 한기늠 (조각가)

"불교적 주제를 현대적 해석과 표현방식으로 불교조각계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점이 인정된다."

행원문화재단은 지난해 7월 조각가 한기늠씨(56)를 예술분야 시상자로 선정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지난해 상한가 명성에 힘입어 한 씨는 올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또다른 비상을 시도한다. 한씨의 명성을 전해들은 일본과 유럽 미술계에서 한씨에게 초대전을 열겠다는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한씨는 현재 부산과 제주를 오가며 5월 열릴 해외 초대전 준비에 한창이다. 기존에 선보인 작품들이 돌 안에 인간과 자연을 기념하고 회상하는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면 올해는 수행 체험에서 우러나온 추상화된 불교 조각들을 선보일 작정이다.

한기늠씨는 "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명상과 불교적 소재의 조각 작품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미술계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만큼 올해도 선(禪)과 정(靜)적인 작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행체험 바탕한 작품
해외 전시 위해 분주

■ 구진경 (불화가)

'현대적인 불화가' 구진경 작가(41)는 지난해 불두를 형상화한 실험적 작품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회화, 설치미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불화를 그리는 구 작가의 작품은 마치 흑백의 목판화 같은 느낌이 든다. 컴퓨터 그래픽을 적극 활용한 결과다. 그래서 구 작가의 불화를 대하면 신세대들도 전혀 거부감이 없다. 구 작가는 이런 결과물들을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올해 5월 개인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 주제 역시 '부처님'이다. 전시회에서는 불화 도상을 파격적으로 변형시킨 30여 작품을 선보일 생각이다.

그가 파격의 주제로 삼은 것은 디지털 프린트. 현존하는 예술작품 이미지에 그래픽 작업을 가한 것을 출력해 작품에 그대로 응용했다.

구씨는 "올 한해 불교미술계는 옛 전통을 철저히 고수하려는 움직임과 그 전통위에 다양화된 현대적 기법을 가미한 작품 등 양분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부처님' 주제 전시회
현대적 기법 가미 응용

■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사무실에 걸려 있는 달력은 벌써부터 연주일정으로 빽빽하다. 니르바나는 올해 색다른 시도를 준비중이다. '저자와 함께하는 불교이야기'란 주제로 테마 연주회를 연다. 문화재, 문화, 수행 등 각 주제와 맞는 초대손님을 초청해 주제와 어울리는 레퍼토리로 음악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리는 이 음악회는 △2월 8일 정우택 동국대박물관장 △3월 8일 천문학자 이시우박사 △6월 14일 원성스님 △8월 9일 키즈음악회 △10월 11일 이호신 화백 △12월 13일 본각스님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니르바나는 테마연주외에도 △5월 11일 봉축기념 니르바나오케스트라 제9회 정기연주회 △4월 7일~8일/9월 15일~16일 니르바나 템플스테이 연주회 △8월 16일 키즈음악회 △11월 1일 제5회 소아암 환아를 위한 음악회 등도 개최한다.

강형진 단장은 "현대화된 불교음악이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전문 불교음악을 창작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털어놨다.

저자 초청 테마연주회
전문 불교음악 창작 주력

■ 손재현 (불교무용단장)

매년 창작발레를 선보이며 왕성한 창작열을 과시했던 손재현 동국대 체육학과 무용담당 교수(44)는 새 작품 준비에 어느때보다도 분주하다.

지난해에는 공연할 극장을 잡지못해 2002년 창단이래 처음으로 무대에 작품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손 교수는 올 6월말 공연을 목표로 새 작품인 '전설의 꽃 풍년화' 시나리오 작업에 한창이다. 손 교수가 작품을 구상할 때 화두로 삼는 것은 '넋의 소리' '제망매가' 등 기존 작품처럼 '발레와 불교설화와의 만남' 이다.

손 교수는 올해도 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줄거리에 이야기가 있는 연극적 요소를 대폭 가미한 창작 발레를 탄생시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여기에 손 교수는 무용수들의 복식과 세련된 무대장치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손 교수는 "올 한해 불교무용계에서는 관객과 눈높이를 맞춘 세련된 무대장치와 소품, 흥미로운 극의 전개 등 뮤지컬적인 요소가 혼합된 무용극이 많이 선보여 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설화 배경의 창작발레
복식 · 무대장치로 연구

■ 법현 스님 (동국대 교수)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법현 스님(동국대 국악과 교수)은 8년전부터 해마다 7월이 되면 한국에 없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세계 유수의 페스티벌에 초청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특히 법현 스님에게 남다른 해이다. 소속종단인 태고종이 영산재를 유네스코문화유산에 등재시키는 것을 주력사업으로 선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올 7월에도 법현 스님은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초청 공연을 일찌감치 예약해 놓은 상태다. 이번 공연에서 법현 스님은 범패와 천수바라무, 요잡무, 나비무 등 불교음악과 무용을 선보이게 된다.

법현 스님은 "한국불교무용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올해 불교무용계에는 해외 초청 공연이 많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주일 기자

영산재 유네스코 등재위해
해외공연 더 적극적으로

세계 최고 정신 지도자 고급 과정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도통사 神 치유의통사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 마음조정법 고급 과정모집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도통사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지도자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고 내공 외공을 소유하며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다.

● **神치유의통사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총재 무공 합장



세계지도자협회부총재
국제지도자협회부총재 혜성 합장

불교심리철학	서양 심리철학
사마타 수행법	위빠사나 수행법
조상 천도 해탈 비법	빙의 · 해리 치유 비법
자비손 치유 비법	전생 치유 비법
음성 내공 비법	내생 치유 비법
신선 도인 비법	칠차원 도인 비법
조상영가 보는법	육효 신 비법

지도자고급과정
● 입제일 :
2007년 1월 18일 (목요반)
2007년 1월 20일 (토요반)
14:00 - 18:00 (10회 과정)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 **참선공의식 사례**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돌아가서 한의원,병원,기공,굿,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 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세계최고정신지도자협회 국제참선공지도자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

왕의 무덤, 편히 잠들 수 없는 역사



프롤로그-상

최상의 법문은 죽음이다. 왕은 권력의 정점이다. 권력의 정점에 앉았던 이들의 죽음은 최상의 법문일까. 죽음 앞엔 누구나 숙연해진다. 하찮은 미물의 죽음 앞에서도 경건해진다. 500년 조선 왕조의 영욕을 온몸으로 받다가 이승을 하직한 왕들의 무덤을 찾아간다. 거기에 그들이 있다.

왕은 죽지 않는다. 아니 죽지 못한다. 육신은 소멸되었으나 그들의 행적은 불멸이다. 잊혀지길 원해도 잊혀질 수 없는 시퍼런 역사로 살아 있다. 피를 동반한 야심과 패기로 권좌에 올랐든, 얼김에 떠밀려서 왕이 되었든 불멸의 이름을 달고 높다란 봉분 이불 아래 누워 있다.

누워있는 그들을 깨워 권좌의 영광과 애환을 들어보자. 생존 당시에는 궐문 앞에도 얼씬거리지 못했을 테지만 이젠 발치까지 성큼 다가가 무례한 자세로 술잔을 건네고 담판을 지을 수 있다. 그때 왜 그리 난폭하셨수? 얼마나 재밌었수? 우째 자식이 그리 많수? 창살 없는 감옥이라 얼마나 고독했수? 장검 짚고 곁에 선 무인석을 향해, 근무 똑바로 서시오! 제멋대로 떠들어도 처형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죽음은 최상의 법문이다. 최상의 법문은 자비다.

조선 왕조 518년, 27대 역대 왕과 왕비, 추존 왕과 왕비가 있다. 이들의 무덤을 능(陵)이라 한다. 조선 왕릉은 현재 42기가 있다. 원(園)은 왕의 사친, 왕세자와 그 비의 무덤이다. 13기가 있다. 묘(墓)는 대군, 공주(왕의 적녀), 옹주(왕의 서녀), 후궁, 귀인 등의 무덤이다. 64기가 있다. 신분에 따라 분류한 능, 원, 묘를 합쳐 조선 왕조 왕족의 무덤은 모두 119기다. 분류상 서글픈 역사도 있다. 10대 연산군, 15대 광해군의 무덤은 능이 아니라 묘로 불린다. 회복될 수 없는 업보다.

능의 형식은 분묘 조성 형태에 따라 구분된다. 단릉은 왕과 왕비의 봉분을 별도로 조성한 단독 형태다. 장릉(단종), 건원릉(태조), 정릉(중종) 뿐이다. 쌍릉은 한 언덕에 왕과 왕비의 봉분을 나란하게 마련한 형태다. 삼연릉은 한 언덕에 왕, 왕비, 계비의 세 봉분을 나란하게 배치한 형태로 24대 헌종의 경릉(헌종, 효현왕후, 효정왕후의 무덤)이 유일하다. 동원이강릉은 하나의 정자각 뒤로 한 언덕의 다른 줄기에 별도의 봉분과 상설을 배치한 형태다. 성종 14년(1483) 정희왕후가 세조의 능 옆 언덕에 모셔짐으로써 동원이강 형식을 이룬 광릉이 효시다. 동원상하봉릉은 왕과

능·원·묘 합쳐 왕족 무덤 119기
단릉 등 형태는 권력 성쇠에 결정
연산·광해군 묘 격하 서글픈 역사

왕비의 능이 같은 언덕의 위아래에 걸쳐 조성된 형태다. 합장릉은 왕과 왕비를 하나의 봉분에 합장한 형태로 조선 초 <국조오례의>에서 정한 조선 왕실의 기본 능제다. 삼봉삼실의 삼합장릉은 왕, 왕비, 계비를 함께 합장한 형태로 유릉(순종)이 유일하다.

단릉이든 합장이든 권력의 성쇠,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태조 이성계는 신덕왕후 강 씨를 지극히 사랑해 강비가 죽자 도성 안에 능을 만들었지만(정릉, 현재 영국 대사관 자리) 태조가 죽자 태종은 강비의 무덤을 양주 사한리(현 성북구 정릉동)로 이장해버렸다. 강비를 후궁으로 강등해 능을 묘로 격하시켰다. 죽으면 끝인 게 세속의 이치지만 권력과 연루되면 죽어도 끝이 아니다. 서울 중구 정동과 성북구 정릉동은 그런 사연에 의해 붙여진 지명이다.

영조는 조선 역대 왕 중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다(52년). 영조는 생전에 현 서오릉 자리에 자신의 수묘(가묘)를 만들었지만 영조가 죽자 정조는 그것을 버리고 반대쪽 동구


조선 왕릉의 기본구도가 처음 확립된 5대 문종의 현릉.

릉 쪽으로 가서 능을 조성했다. 그 자리는 100년 전 효종 왕릉이 있었던 자리다. 파묘한 자리에 할아버지 영조를 묻은 것이다. 아버지를 죽인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미웠기 때문이다. 복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신하의 경우 부관참시(무덤을 파서 시체를 토막 내는 형벌)도 있다.

죽어서도 편히 눈 감지 못하는 자, 살아있는 자만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자, 그들의 이름이 왕이다. 권좌에 앉았다는 이유로 그들은 언제나 동시대인과 함께 산다.

어디들 계신가. 21세기에 다시 무덤을 파헤치고 옮기는 일이야 있을까만 참으로 편치 않다. 지명수배가 필요 없다. 그들의 소재는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다. 그래도 권좌는 좋은 거여! 지금도 무수한 잠룡들이 하나 뿐인 그곳을 향해 전력질주 하고 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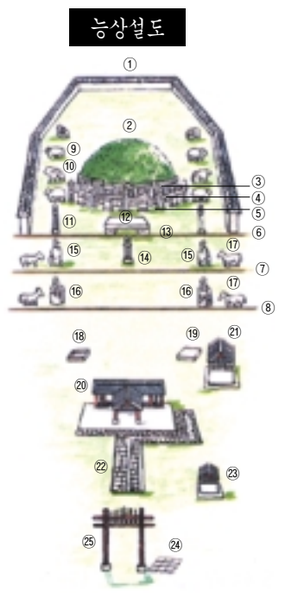
2007년은 1년 내내 '대선정국'이 시대 코드다. 조선 왕릉의 영욕을 통해 정국의 해법을 찾아본다.

글=이우상(소설가) · 사진 =최진연(사진작가)

■ 조선 왕릉 일람

	능호	묘호	형식	사적	주소
1대	건원릉 제릉 정릉	태조 신의고황후 신덕고황후	단릉 단릉 단릉	193호 208호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2번지(동구릉) 개성시 판문군 상도리(북한) 서울 성북구 정릉2동 산 87-16
2대	후릉	정종 정안왕후	쌍릉		개성시 판문군 령정리(북한)
3대	헌릉	태종 원경왕후	쌍릉	194호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13-1
4대	영릉	세종 소헌왕후	합장	195호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83-1
5대	현릉	문종 현덕왕후	동원 이강	193호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2번지(동구릉)
6대	장릉 사릉	단종 정순왕후	단릉 단릉	196호 209호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산 121-1 경기도 남양주군 진건면 사릉리 산65
7대	광릉	세조 정희왕후	동원 이강	197호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247
8대	창릉 공릉	예종 안순왕후(계비) 장순왕후	동원 이강 단릉	198호 205호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 산30-1(서오릉)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 산5-1
추존	경릉	덕종 소혜왕후	동원 이강	198호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 산 30-1(서오릉)
9대	선릉 순릉	성종 정현왕후(계비) 공혜왕후	동원 이강 단릉	199호 205호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35-4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 산 15-1
10대	연산군묘	연산군 부인 신씨	쌍분	362호	서울 도봉구 방학동 산 75번지
11대	정릉 온릉 희릉 태릉	중종 단경왕후 장경왕후(계비) 문정왕후(계비)	단릉 단릉 단릉 단릉	199호 210호 200호 201호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35-4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 산 19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산 37-1(서삼릉) 서울 도봉구 공릉동 산 233-19
12대	효릉	인종 인성왕후	쌍릉	200호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산37-1(서삼릉)
13대	강릉	명종 인순왕후	쌍릉	201호	서울 노원구 공릉동 산 233-19
14대	목릉	선조 의인왕후 인목왕후(계비)	동원 이강	193호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2번지 (동구릉)
15대	광해군묘	광해군 부인 유씨	쌍분	363호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 송릉리 산59번지
추존	장릉	원종 인헌왕후	쌍릉	202호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산 141-1
16대	장릉 휘릉	인조 인열왕후 장렬왕후(계비)	합장 단릉	203호 193호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갈현리 산 25-1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2번지 (동구릉)
17대	영릉	효종 인선왕후	쌍릉	195호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83-1
18대	숭릉	현종 명성왕후	쌍릉	193호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2번지 (동구릉)
19대	명릉 익릉	숙종 인현왕후(계비) 인원왕후(계비) 인경왕후	쌍릉 단릉 단릉	198호 198호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 산 30-1(서오릉)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 산 30-1(서오릉)
20대	의릉 혜릉	경종 선의왕후(계비) 단의왕후	쌍릉 단릉	204호 193호	서울 성북구 석관동 1-5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2번지 (동구릉)
21대	원릉 홍릉	영조 정순왕후(계비) 정성왕후	쌍릉 단릉	193호 198호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2번지 (동구릉)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 산 30-1(서오릉)
추존	영릉	진종 효순소황후	동원 이강	205호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 산 15-1
추존	융릉	장조 헌경의왕후	합장	206호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안녕리 1-1
22대	건릉	정조 효의선황후	합장	206호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안녕리 1-1
23대	인릉	순조 순원숙황후	합장	194호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 13-1
추존	수릉	문조 신정익황후	합장	193호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2번지 (동구릉)
24대	경릉	헌종 효현성황후 효정성황후(계후)	삼연릉	193호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2번지 (동구릉)
25대	예릉	철종 철인장황후	쌍릉	200호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산 37-1 (서삼릉)
26대	홍릉	고종 명성태황후	합장	207호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41-1
27대	유릉	순종 순명효황후 순정효황후(계후)	합장	207호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41-1

능상설도



■ 왕릉의 기본구조

죽은 자의 집이 무덤이다. 왕릉은 왕궁을 옮겨놓은 형상이다. 비록 상징화된 구조물이지만 있을 건 다 있다. 용상, 왕을 호위하는 문무관, 침전 근처까지 접근할 수 있는 내시도 있다.

1. 곡장(曲墻)–왕릉을 보호하기 위하여 삼면으로 둘러놓은 담장.
2. 능침–왕, 왕비의 봉분. 능상(陵上)이라고도 한다.
3. 병풍석–봉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봉분 밑 부분을 두르는 12개의 돌. 병풍석에는 12방위 를 나타내는 십이지신상을 해당 방위에 맞게 양각하였다.
4. 난간석–봉분 주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봉분 둘레에 설치한 돌난간. 가장 높은 기둥을 석주, 석주를 가로지른 돌기둥을 죽석(竹石), 죽석 중간을 받쳐둔 작은 기둥을 동자석이라 한다.
5. 지대석–병풍석의 면석 밑을 받쳐놓은 기초 부분.
6. 상계(上階)–능원은 장대석으로 구분지은 세 단계로 되어 있다. 가장 높은 상계는 왕, 왕 비의 침전인 능침이 자리한다.
7. 중계–문인석과 석마가 세워진 중간 단.
8. 하계–무인석과 석마가 서 있는 하단. 문을 숭상하는 정서를 알 수 있다.
9. 석양(石羊)–능침은 왕궁의 침전인데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신분은 내시뿐이다. 석양은 채홍사 임무를 담당한 내시이기도 하다.
10. 석호(石虎)–능침을 지키는 호랑이 모양의 수호신. 경호 임무를 맡은 내시다.
11. 망주석(望柱石)–봉분 좌우측에 각 1주씩 세우는 기둥. 그 기능에 대해서는 육신에서 분리된 혼이 육신을 찾아들 때 멀리서 봉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표지의 기능을 한다는 설 등이 있다.
12. 혼유석(魂遊石)–일반인의 묘에는 상석이라 하여 제물을 차려놓는 곳이지만, 왕릉은 정 자각에서 제를 올리므로 혼령이 앉아 노는 곳이라 한다.
13. 고석(鼓石)–혼유석의 받침돌로서 모양이 북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
14. 장명등(長明燈)–왕릉의 장생발복을 기원하는 뜻으로 세웠다.
15. 문인석–장명등 좌우에 있으며, 언제든지 왕명에 복종한다는 자세로 양손으로 홀을 쥐고 서 있다.
16. 무인석–문인석 아랫단에 석마를 대동하고 있으며, 왕을 호위하고 왕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뜻에서 장검을 짚고 위엄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17. 석마–문인석과 무인석은 각각 석마를 대동하고 있다.
18. 예감–정자각 뒤 서쪽에 제향 후 축문을 태우던 곳으로, 석함, 소대(소전대), 망료위라고도 한다.
19. 산신석–정자각 뒤 오른쪽, 보통 예감과 마주보는 위치에 설치한 것으로 장사 후 3년간 후토신(땅을 관장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20. 정자각–제향을 올리는 곳으로 황제는 일자모양으로 침전을 조상하고, 왕은 정자모양의 정자각을 조성함.
21. 비각–비석이나 신도비를 안치하는 곳. 신도비는 능 주인의 생전의 업적을 기록하여 세우는 비석이다.
22. 참도(參道)–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 폭3미터 정도로 돌을 깔아놓은 길이다. 왼쪽의 약간 높은 곳은 신이 다니는 길이라고 신도라 하며, 오른쪽의 임금이 다니는 길은 어도라고 하여 약간 낮다.
23. 수복방–능을 지키는 수복이 지내던 곳으로 정자각 동쪽에 지었다.
24. 배위–홍살문 옆에 한 평 정도 돌을 깔아놓은 곳. 판위, 어배석, 망릉위라고도 한다.
25. 홍살문–홍살문은 능, 원, 사당 등의 앞에 세우며, 신성한 지역임을 알리는 문이다.

■ 작가 약력



이우상
- 동국대 국문과 졸업
- 1996년 문화관광부 지정 '문학의 해 기념' 불교문학상 장편소설 당선
- 199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중편소설 당선
- 현 대진대, 동국대 문예창작학과 출강



최진연
- 제6회 대한민국사진대전서 '대상' 수상
- 개인전 11회 개최
- 제41회 한국사진문화상 수상
- 현 대한사진예술가협회 회장 및 최진연 사진연구실 대표.

주요저서: <한국의 성곽> <옛다리-내마음속의 풍경> 등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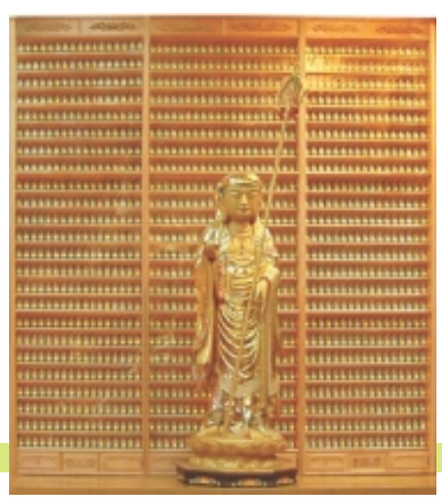
종등 팔각봉축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사찰명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전화 신청 바랍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 상 품
영구위패
LED 인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법당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 FAX 02)737-0696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 1Box(9×4.4) 8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 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영어도 배우고 해외 포교에 뜻이 있으신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조계종 스님)
경남 불교대학 세원사
055)221-7730
016-428-6665

황 금 제 기
신도님께서 황금제기를 부처님께 시주합시다. 조상님께 제사도 금년에는 황금제기로 지냅시다
특허출원 주문생산
• 가액 : 1,2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465-02-403194
• 특허공양 041-544-4441

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살풀이 모든 전통무용
051)557-6682(온천지부)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2개월 완성
물상으로 쉽게 영가를 찾아내어 천도재를 지내게 하며 신도포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051)818-2358(부산)
010-5345-2358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빨빡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사주 명리 구성학 성명 택일
궁합 관상 풍수
무료개인지도,숙식제공
보현사 학산철학원
원장 학산 합장
054)383-4569
016-717-1592

同聲相應하고 同氣相求할 因緣을 맺고자 합니다
(만50세)
017-401-2023

조용한 암자에서 성실하고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5)863-4143
011-392-6885

공양주 구 함
▷연락처 : 원흥사
031)867-3593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경북지역 (천년고찰)
054)533-3474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 135-1번지 만호사(조계종사찰)
▷40대부터
041)567-0391

청정한 나반도량입니다. 천일 기도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55)835-9450
011-9790-1779

참신한 불자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남산
054)748-3530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경기 포천
011-9491-922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침식가능하고 신심있는 보살님(55세 이하)
경주 왕룡사원
017-531-7770

능력있는 스님께서 사찰 소임을 책임감있게 맡아서 하실분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경북, 문경
011-259-5989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울산시내 조용한 사찰임
052)282-8793

가족같이 함께 하실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10-3189-874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창원
출 · 퇴근 가능
010-4813-9707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학업성적 부진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찾아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안식 · 49재 · 천도재 · 불교의식
사물 · 바라나비춤 · 경전 · 명리 주역
학인무료강좌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역 학 개 인 지 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丁亥年 신 수 풀 이
甲子에서 癸亥까지
◆무료공개강의 : 2007. 1월 11일 목요일 오후 4시~
2007. 1월 18일 목요일 오후 4시~
• 장소: 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 1번출구 신한은행에서 남산쪽으로 500m 미주 APT골목으로 50m
달마선원 011-9891-1134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노인전문요양병원 스님 및 불자모심
최고시설을 갖춘 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부설 무량수전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스님 및 불자를 모십니다.(완전무료)
◆ 대상 : 치매, 중풍을 앓고 있는 중증의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인 노인과 스님
◆ 문의 : 053)471-0991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大관음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28숙 특별지도
• 28숙과 풍수와 사주를 배우는 대로 바로 쓸 수 있도록 개인지도 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교육비 55만원 교육기간 : 2~3일
※교육 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 www.reiki.co.kr(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강의
▸전국 제1의 불교대학 · 경전중심 · 체계적인 교육
• 4월 3일(화), 4월 5일(목) – 주간반, 4월 5일(목) – 야간반, 각요일 선택, 주1회
•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인터넷반, 통신반, 도서관,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행자모집 (총무스님) 문의 : 011-9852-0075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1-0337	053)312-8221	054)452-6636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촛불잘밝히는방법 ★ 장사(사업) 잘하는방법 결혼인연
행복을 찾아무엇이든물어보세요
영가천도 · 삼재
업장소멸
왕따 소외감 비만 스트레스 악몽 변비 알콜중독 부부갈등 난폭한성격 원한관계 우울증 심근경색 코고는사람 불공 생일 이사 개업 묘지이장 방생 입학 시험합격 기타
우리말대불정 천수경 능엄신주 지장경 약사여래경
직장인을 위한기도 ★ 가족이함께기도
해석 알고 싶은분 능엄신주 액자 있음 테이프 활용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 자녀 탈선 예방 소년 · 소녀가장 독거노인 돕기 · 남을 위한기도
대학입시기도
사법 · 행정 · 취업
물어보세요 011-817-5496 010-7377-9446 019-434-0878 017-520-7546 010-2331-0354 016-787-3977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철야기도 100일 기도
서울 · 부산 대구 · 마산

(재)세계불교 법왕청 평화재단
대한불교 전통 조계종
本宗은 釋迦牟尼佛을 敎祖로 太古 普愚 國師를 宗祖로 하여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 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로 한다
• 종정대행 : 각암대종사 • 원로의장 : 청산
• 중앙종회의장 : 무원 • 사정원장 : 지원
• 총무원장 : 능인 • 총무부원장 : 허허
본 종단 종지 종통에 뜻있는 종도 및 사암을 모집함
1. 각 사암 등록 및 각 교구 종무원 등록을 원하시는 분
2. 불교무술 자격증 및 단증을 취득 하실 분
3. 승려가 되고자 하시는 분
4. 종단간부 임원직을 맡고자 원하시는 분
– 산하기관 –
(사)세계불교 호국 무술 연합회
(사)호국 불교 단체 협의회
(사)전국 불교 체육인 연합회
◆ 총무원 : 구미시 사곡동 670-1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 문 의 : 054)464-4725, 464-4735 총무원장 010-7302-0077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7. 2. 7부터 (수 · 목반) 토 · 일요일 :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 (1개월 완성)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암침술학회
• 서 울 :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불로화정 (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



오랜 세월 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 15여종의 첨가물을 20년간 발효시킨 강정식품으로 50여년전 법천 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비장된 비법을 전수 받은것 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할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이 회복되며,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밥에 땀이 날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장질환 모든 위장질환이 회복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고대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장생 할수있는 선약을 구하러 우리나라에 직접 다녀 갔다는 전설의 「不老化精」은 MBC방송에서 절찬리에 방영된 사극 「대장금」의 극중 한상궁이 땅속에서 20년간 묻어둔 「감식초」에서 비방한 비법으로 진액중의 진액으로 만든 「不老化精」입니다.
◆ 가격 : 정가 육십만원(2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 2병)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1병 30만원)
농협 705-12-337974 (예금주 : 이준식)
전 화 : (053)257-7032
휴대폰 : 011-1756-9550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9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 양양
● 법당 및 요사: 70평
● 부지: 1,800평
● 가액: 2억 8천

● 위치: 강원(동해안지역)
● 법당: 25평
● 요사: 50평
● 부지: 270평
● 가액: 5억 5천

● 위치: 경남
● 법당: 24평
● 요사: 170평
● 부지: 500평
● 가액: 19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도심속의예쁜포교당

● 위치: 부산광역시 광안 전철역에서 2분거리
● 대지: 약 100평
● 건평: 1,2층 포함 55평
● 가액: 절충

011-345-5155

토 굴 안 내

● 위치 : 부산 기장
● 평수 130평, 삼존불, 요사채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앞 바다, 뒤 산, 경치 좋음
● 가액 : 전세는 3500만원

018-575-8407

사 찰 안 내

● 위치: 순천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243평
● 건물 25평, 요사채 20평
● 가액: 2억 5천만원(절충가능)
주차가능 , 꼭 하실분 전화요망
스님건강관계로 급 양도코져함

017-875-6712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고양시 통일로변
● 대지 125평, 법당 30평
● 옥불, 삼존불
● 1층 단독 요사채 30평 사무실 10평, 방3개
● 가액 : 3억 9천, 절충가능 (은행융자6천5백)

017-232-3389

사 찰 안 내

● 위치: 천안근교
● 부지: 370평산속
● 법당: 20평 한옥
● 요사: 30평 한옥
● 가액: 2억 7천만원

● 위치: 서울
● 부지: 만평
● 법당: 27평
● 요사: 35평
● 가액: 12억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중심가 주위 상가 및 아파트 어시장, 구립시장, 창동, 번화가 도로변
● 대지 28평, 건평 1,2층 56평 현대식 건물, 정면 자연석돌 원기둥, 기와
● 1층 – 주지실, 부엌, 화장실, 공양실
● 2층 – 법당, 전불도량완비, 순금태 조성
● 자신각 영가단 법당 외 별도 조성 단청필 새건물 3년 지났음
● 본점 큰 불사로 이해 사정상 급매
● 가액 : 2억 5천만원. 시설비 : 인연후 조정함

055)243-2315(주지실 직통)

토 굴 안 내

● 위치 : 경상북도 고령 가야산 자락
● 평수: 153평
● 건물: 법당 12평 요사채 20평
● 가액:5천만원

018-541-1890

사 찰 터 안 내

● 위치: 대구 팔공산
● 평수: 약 1400평
● 전기유, 차진입가능

011-810-8402

사 찰 안 내

● 위치: 경상남도 합천 진주에서 30분거리
● 대지: 250평, 법당 25평
● 산신각, 용왕당 있음
● 요사3채(총 70평)
● 가액: 2억 2천만원

055)934-1719
011-9571-1710

천하제일 명당 그림같은 대 도량처

이른 아침 자욱한 안개속에 연화봉들이 즐비하고 갓바위 부처님이 보이시며 어우러진 노승이 정원을 가득 채우고 대구공항 10분, 갓바위 가는 길목

● 755평 급매 6억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부산근교)

● 경남 양산 120평 – 2억 3천
● 부산 철마100평 – 2억 2천
● 경남 김해 2000평 – 5억 5억
● 부산 120평 – 3억5천
● 부산 250평 – 8억
● 부산 280평 – 10억

011-855-6699 (남문)

토 굴 안 내

● 위치 : 전북 남원시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190평(90평은 텃밭으로 사용중)
● 방4개, 후원, 창고, 화장실
● 가액 4,000만원(가격절충가능)

010-6401-4939
010-5631-8439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 서생 간절곶부근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
● 평수: 300평, 건물 2동
● 법당 20평 및 요사채 (방7개, 전통한옥)
● 법당(삼존불)및 산신각 완벽하게 조성. 건강악화로 급 안내

017-578-2815

포 교 당 안 내

● 위치:일산 7층중 5층 114평
● 가액:4억3천만원 (은행융자 2억1천5백포함) 4년전 신축건물을 분양받아 최고의 시설로 하였으며 당시 가격으로 4억8천이 들었으나 사정상 좋은조건으로 급 양도

011-749-455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녕에서 5분거리
● 부지: 550평
● 법당: 20평, 관음전 6평
● 산신각 4평, 요사채 30평(단청필)
● 특징: 심야전기 보일러 , 노송이 어울려져 있는 아름다운 신축 법당(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함)
● 가액:1억 9천 5백만원(절충가능)

010-6727-8890

사 찰 안 내

〈사 찰〉
● 부산시내 바다전망 좋은 절
● 전통기와(포)법당 25평
● 120년 역사
● 요사 2동
● 가액:4억

〈사 찰〉
● 건물 3동, 부지:3만 3천평 (관리지역 7천평)
● 위치:삼랑진
★산세 좋고 물 좋은 정남향터 120년 역사
● 가액:4억

※ 부산시내 암자 사찰 다량확보

사찰전문 부산 연산부동산 직011)560-8522 051)863-666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 송현역 부근
● 평수 75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0만원 시설비 1900만원
● 대형주차장 있음. 즉시법회 가능

010-8577-1317

토 굴 안 내

● 위치 : 전남 순천시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 170평
● 임야 : 900평 임법당, 후원, 방6, 화장실, 차고
● 일체비품구비
● 가액 : 5500만원

010-3686-0150

암 자 (터) 안 내

● 위치: 경상남도 의령군 임금산 밑 엄부혈 명당터
● 평수: 600평
● 가액: 3천 5백만원

010-3189-3525
055)573-783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
● 대지 180평, 건물(슬라브건물) 아래층47평,2층47평,
● 심야전기 보일러 조립식 창고10평,
● 법당완벽 설비, 석축 조경 완벽 갖추었음, 자연우물
● 가액 : 1억 5천5백만원

016-294-0261
010-7355-738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은평구 6호선 새절역 5분거리
● 35평, 법당, 방3개, 주방 욕실 베란다 (동)삼존불, 조각단, 단칠, 내부단청 후불,신중,칠성,지장탱화 종,영단(집기일체), 도시가스난방, 큰 재래시장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 절충가능(최고급 시설)

011-685-8484
02)376-8182

[명리욕지도] 적천수,천미,원서강의
02)906-9986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근방
● 대지: 약 500평
● 대웅전: 20평,산신각: 15평
● 요사: 50평
● 가격절충

011-9516-536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천여중 뒷편
● 건물: 4층에 3층
● 평수: 30평
● 시설완벽, 8년 되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6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7-375-1919

사 찰 안 내

● 대구 수성구 파동 청룡봉 서당골
● 대지 60평
● 법당 단청필, 방6, 화장2
● 보증금 4000만원, 월30만원 양도가 1억8500만원 저렴한가격

011-9357-5677
055)353-446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동두천
● 법당 50평, 요사 50평
● 땅 약 500평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에 월 100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9-477-6674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 평수 : 2,3층 각 30평
● 2층 – 요사, 큰방, 사무실, 부엌, 작은방.
3층 – 법당, 삼존불, 탱화, 지장단, 산신각, 각불탱화.
● 가액 : 2천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3167-1774
032)662-177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모라동
● 건물 4층 4층, 평수45평, 시설완벽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3,0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8998-4597

포교원안내

신축 불사관계로 급 안내함
● 위치: 경기도 안성시 2층 건물
● 법당 10평, 방 2개, 주방 및 화장실
● 옥상 20평 사용가능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650만원
● 특징: 시외 및 고속버스터미널 앞 철학하시는 스님, 법사님, 보살님 최고 위치

017-297-4097
043)221-0579

명 당 터 를 보 입 니 다

● 면적 : 13350평(임) 西向
● 위치 : 경남 고성 IC인접(대전-통영 고속도로)
● 형태 : 陰處로 나무 숲이 꼭대기까지 좋음
● 용도 : 관리지역인 만큼 길, 집등 20%까지 사용
● 기대 : 나뭇잎처럼 생긴 만큼 비구니 스님이나 통큰 여자분께서 잘 활용 했으면 좋겠음
● 가격 : 평당 2만원 이상이나 절충하겠음
● 길은 아직 미비나 290평 사면 해결(坪 10만원 入口) 간벌함으로 지금 재목 선별해서 사용가능

연락처 010-2245-486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시내근교)
● 법당 10평, 요사채 25평 지장보살
● 몸만 들어오시면 즉시 법회가능함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1천만원

054)975-6976
016-849-8889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면
● 대지 92평 정남향
● 방大3 욕실2개 부엌1개
● 금액 : 4천 2백만원

016-671-1568

천하제일 명당 칠갑산을 바라보고

70년전 모신 암벽밑에 부처님이 허공에 웅립하시고 노송이 주위를 가득 채우고 공주 신도시 15분 거리, 칠갑산 가는 길목에 암자

● 대지 212평 (100평 사찰 부지)
● 법당 25평, 요사채 25평,
● 주차장 완비, 급매 1억2천

대원불사 (한국 사찰 컨설팅)
연락처 02)454-3369
H.P 011-775-8709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 시내에서 15분거리
● 대지 120평
● 1층 슬라브, 2층법당 24평 요사채 1층, 산신각 1동
● 가액: 8500만원

011-544-9777

사찰안내(전세)

● 위치 : 부산 금정산 온천장부근
● 대지 100평, 법당 20평
● 요사채 및 공양간 방 9개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 35만

010-4573-2800
051)557-437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평수 : 37평. 3층 건물중 3층(옥상 사용)
● 특징 : 상가, 아파트 지역 (교통편리), 포교지로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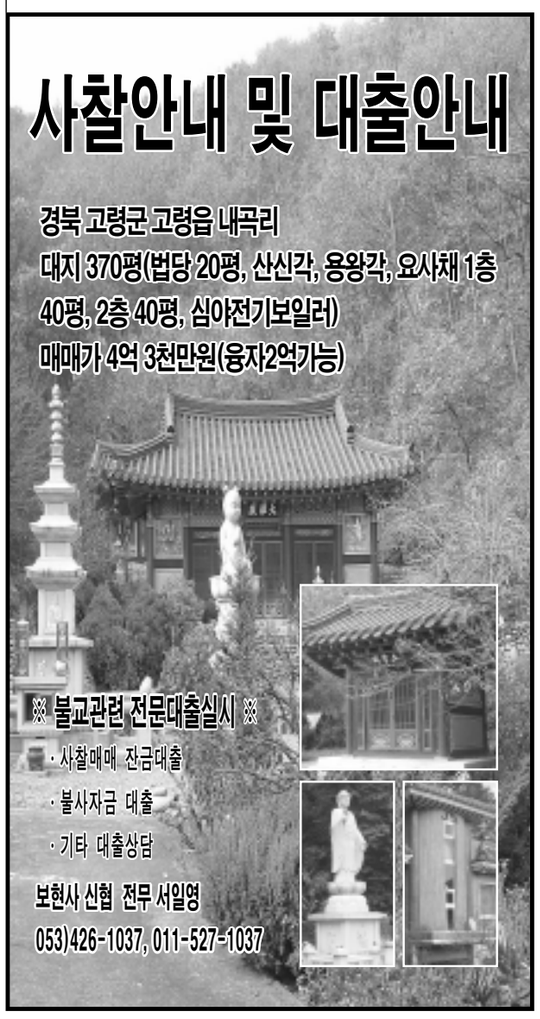
019-656-2766

조 용 한 굳 (임 법 당)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일제 비품 포함
● 대지:62평(평 300만)법당 32평 방2 小2 입구방 4평(다락4평) 공양간 12평 (포장)방문 후 결정(부산 금정마을)
● 가액 : 2억 1천만원(융 6500만 포함)

011-842-6123 (주지 직)

사찰안내 및 대출안내



경북 고령군 고령읍 내곡리
대지 370평(법당 20평, 산신각, 용왕각, 요사채 1층 40평, 2층 40평, 심야전기보일러)
매매가 4억 3천만원(융자2억가능)

골반명가

天一氣功

천일기공은 93년도에 창립되어 14년간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건강법을 전수 해 왔습니다.

소백산 수련원에서 실시하는 「3박4일코스 건강기공강좌」에는 전국각지에서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이 꾸준히 참가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독일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만성디스크(탈출, 협착, 만곡, 측만)요통, 좌골신경통, 관절통, 오십견, 견비통, 팔저림, 목디스크, 요실금, 코골이, 무호흡증, 수족냉증, 위장병, 비만, 불면증, 당뇨, 고혈압, 갑상선, 우울증, 초조불안, 두통, 안짱다리, 생리불순, 생리통, 부인병등을 스스로 치유하는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소주천수련법, 임,독맥소통법, 천지관기법 등 다양한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수승화강의 원리를 모르고 병치료를 논하지말라
※ 사기(음기)를 배출하지않고 어떻게 병을 고치시렵니까?
※ 전화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소백산수련원 (054)637-9810
서울본원 (02)3436-3206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구구초등학교)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접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알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대피요령만 알아도

걱정 없어요

우리집 안전 이렇게 지켜요 ●●●

새해소원으로 첫 손가락에 꼽는 것이 '가족건강'이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병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재해에 대비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올 1월에는 가정 내 안전용품의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대처요령을 익히는 등 가족 안전의 든든한 디딤돌을 놓아보자.





▷ 안전용품 점검하기

소화기 비치장소 알아두어야
구급약 유효기간 지나면 폐기

먼저, 머릿속에 집 구조를 떠올려보자. 우리 집 소화기는 어디쯤에 있을까? 소화기 위치가 단번에 떠올랐다면 '안전파수꾼' 자격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장 안전점검에 나서야 한다.

가정 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용품. 그 중에서도 소화기는 필수 구비 품목이다. 가정용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에 효과가 커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지는 것을 막아준다.

가정에서는 분말 형태로 3.3㎏ 정도의 소화기를 비치해 두는 것이 적당하다.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매장, 전문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분말소화기의 경우 한 달에 한번씩 소화기를 뒤집거나 흔들어주어야 분말가루가 굳지 않는다. 소화기는 습기와 직사광선을 피해 현관 또는 거실 구석에 두고 가족들에게 소화기 비치 장소를 알려둔다.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다. '안전핀을 뽑는다'는 기본 사항은 알고 있지만, 막상 불이 났을 경우 당황해 손잡이를 꼭 잡은 상태에서 안전핀을 제거하려고 하면 안전핀이 빠지지 않는다. 안전핀을 뽑을 때는 소화기를 바닥에 둔 상태에서 안전핀 고리를 잡아당기면 쉽게 빠진다.

아파트의 경우 옥내 소화전의 사용법도 익혀둔다. 소화전함의 문을 열고 호스를 화재지점까지 끌고 가서 늘어뜨린 후 소화전함의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면 물이 나온다.

구급상자 역시 응급상황 발생 시 꼭 필요한 물품이다. 구급상자에는 소독약과 멸균거즈, 탈지면, 핀셋, 체온계, 가위 등 기본적인 구급용품과 감기약, 해열제 등의 약품을 마련해 둔다. 구급상자는 6개월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폐기한다. 보관은 직사광선과 습기가 없는 곳이 좋다. 아이가 어린 집이라면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가 있는 집은 눈에 잘 띄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 대처요령 익히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신고
화재시 출입구 확보하며 소화

화재나 지진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된다. 이때 기본적인 대처요령만 알고 있다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다. 가장 좋은 안전교육은 현장 체험을 통해 사고 대처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소방방재본부 김광진 구조구급과장은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을 받으면 안전의식이 몸에 배어 위급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다"고 말한다.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침착하게 119로 신고 전화를 한다. 가정용 전화기를 두는 곳에 집 주소와 전화번호, 간단한 위치 설명을 적어 붙여 두면 당황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다. 신고 후 불씨가 크지 않아 초기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화기를 사용한다. 이때 출입구를 등진 상태에서 소화기를 사용해야 만일의 경우 집 밖으로 대피할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

불길이 거세고 연기가 자욱하면 수건을 물에 적셔 코와 입을 막고 숨을 짧게 쉬면서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성급하게 창문으로 뛰어 내리거나 다른 건물로 건너가려고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피난시에는 정전으로 멈출 위험이 있는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지진은 우리나라에 흔히 일어나지 않는 재해라 대비도 그만큼 소홀하기 쉽다. 하지만 평소 건축물 관리에 소홀했다면 집이 무너지는 참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진이 났을 경우 보통 크게 흔들릴 때의 진동시간은 1~2분 정도이므로 테이블이나 식탁 밑 등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로 피한다. 가스버너 등의 불은 즉시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한다.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강한 지진이라면 건물 밖으로 탈출이 가능한 통로를 파악한 후 방석 등으로 머리 부분을 보호한 후 대피한다. 건물 밖으로 빠져 나오면 추가붕괴 및 가스폭발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고 119구조대 등 가까운 행정관서에 신고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도움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서울소방방재청

▷ 안전교육은 여기서

가정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힘들다면 가족이 함께 전문 기관이나 시설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

'서울시민안전체험관(safe119.seoul.go.kr)'은 화재 진압실, 풍수해 체험실, 지진 체험실 등 실제와 비슷한 상황을 연출한 공간에서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을 익힐 수 있게 했다.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02)2049-4050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 안전학교'에서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기 쉬운 안전사고의 구체적인 사례와 예방법을 체험해 볼 수 있다. 1588-5869



20. 명대의 음차

명(明, 1368~1644) 태조 주원장(朱元璋)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한때 탁발승(托鉢僧)이 되어 천하를 떠돌아 다녔다. 이런 힘들었던 시절은 백성의 질곡(桎梏)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차농(茶農)들이 조정에 공납하는 단차(團茶)를 만들기 위해 받는 고통과 폐단을 알았던 그는 홍무 24년 1391년 단차의 제조를 금지하는 조서를 내렸다. 더 이상 조정에서 단차를 마시지 않자, 민간에서도 자연히 단차의 제조가 쇠퇴되었고 산차(散茶, 잎차)가 전면적으로 유행했다. 이에 따라 산차를 생산하는 농가가 광범위하게 증가했으며, 다양한 제다법이 출현했다.

한편 다양한 종류의 화차(花茶)가 출현해 생산되었지만 대중적인 상품화(商品化)는 이뤄지지 못한다. 특히 문인들 사이에서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 직접 화차를 만들어 마시는 고상한 취미가 유행해 갖가지 화차를 만드는 방법을 다서(茶書)에 기록하기도 하였다.

명초 주권(朱權)의 <다보(茶譜)>에는 차에 꽃을 첨가하여 향기가 배어들게 하는 방법인 '훈향다법(熏香茶法)'이나 고원경이 <다보>를 수정보완하면서 연화차(蓮花茶)의 제조법을 상세히 기록한 것도 이런 예이다. 단차의 복잡한 제작과 음용에서 벗어나 화차의 출현과 산차를 우려 마시는 방법은 차의 다양한 변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차 문화의 전환기인 명대 차의 특징이다.

단차의 복잡한 제작법 벗어나 다양한 화차 출현
절차 까다로운 예절·접대 피할 것 등 금기사항 생겨

명초(明初) 주원장은 전통문화를 소생시키기 위해 문신들을 관리로 등용했지만 조금이라도 계율에 어긋나면 엄한 형벌로 다스렸다. 이러한 고압정책으로 인해 문인들이 더 이상 뜻을 펼치기 어려워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는 예가 많았다. 이들은 세속적 권세에 합류하고 싶지 않아 거문고, 장기, 시, 서화로 세월을 보내며 자신들의 고상한 이상세계를 구현하려 했다.



문징명의 품다도(品茶圖).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차를 마시며 담론하고 시·서화를 논하는 문인풍의 다회를 유행하게 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주권(朱權), 문징명(文徵明) 등이 있다. 문사들은 차의 특징을 몸소 체험해, 차인들의 청절과 스스로 분발하는 적극적인 정신을 차에 반영하여 자기의 이상(理想)을 표현했다. 차를 마시는 도구에도 아주 심오한 뜻이 담긴 어휘(語彙)를 만들어 내었다. 예를 들어 죽차노(竹茶爐)를 '고절군(苦節君)'이라고 칭하였으며 차를 담는 도람(都籃)을 '고절군 행성(苦節君 行省)'이라 했다.

중국 명차(名茶)는 많은 고사나 전설을 동반하고 있어, 사람들이 끓는 물에 찻잎을 넣어 우려 마시면서 담소를 나눌 때 이러한 고사들은 즐거운 이야기 거리가 되어 오늘날 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중국인들은 차의 명칭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두어 실제보다는 항상 고상하고 우아하게 표현했다. 여산의 운무차는 주원장이 군대를 주둔시킨 적이 있어 황제가 된 후에 더욱 유명해져 빠르게 확산된다.

명 말에 이르러서는 차를 마시기에 적당한 조건으로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알며, 마음가짐이 고상하여 뜻과 신념이 일치하는 다객(茶客)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생겨났다. 또한 시로서 차의 흥취를 도와야하고, 다도에 정통해 차의 색·향·미를 맛 볼 줄 알아야 한다, 다구의 질이 떨어지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절차가 까다로운 예절이나 접대는 피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차의 금기 사항도 생겼났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일시불은 135만원에 공급함※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謹賀新年 佛紀 2551年

2007년 丁亥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박종하
신도일동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519-3
전화 02)582-8609 / 팩스 02)597-3510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회주 월암 이두
주지 현진
신도일동
■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산14-1번지
전화 043)256-6254
www.gwanumsa.org

대한불교조계종
내 원 정 사
주지 현 문
사부대중일동
■ 서울 동작구 상도1동 788번지
전화 02)815-6025

대 각 정 사
주지 해 각
불교교양대학 무료강의
1,3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 서울 강서구 화곡2동 835-3
전화 02)2699-6384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문수불교문화원
회 주 법 홍
주 지 지 원
신도회장 김철윤
김진실행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51-8번지
전화 051)624-3754, 623-3648

대한불교조계종
탑골승방 미타사
주지 원 호
사부대중일동
■ 서울 성북구 보문동3가 51
전화 02) 923-0492

대한불교조계종
백 화 사
주지 일 법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199-2번지
전화 02)381-9103~4 / 팩스 02)381-9105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보림사
회주 묵산 강혜
주지 보관
사부대중일동
■ 서울 성북구 정릉4동 산1-1
전화 02)914-6187, 919-0480

대한불교조계종
봉 국 사
주 지 김월서
신도회장 구광명화
대중일동
■ 서울시 성북구 정릉2동 637번지
전화 02)919-0211~2/팩스 02)919-0216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승가대학
봉녕사 금강율원
학 장
율원장 묘 엄
대중일동
거사림회 · 관음회 · 승만회 · 청년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48번지
전화 031)256-4127/팩스 031)254-3371

현대불교신문의 새출발을 축하합니다
강화 선원사
주 지 성 원
■ 인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692-5
전화 032)933-8234
연요리 전문점
■ 전화 032)934-1944
한증막
■ 032)933-8985
연으로만든 김 외 제품 10가지 판매중

대한불교조계종
수 안 사
회주 세 민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38-12
TEL 02)587-4677 / FAX 02)522-5666
홈페이지 suan.honpy.com

참법도량 청소년수련원
대한불교 조계종
신 흥 사
주지 오성일
대중일동 신도일동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산 42
전화 031)357-2695, 357-3916

안 국 사
주 지 도 안
무주불교대학장 원 행
신도일동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465번지
전화 063)322-3108

한국불교태고종
약 수 암
주지 혜 각
거북마을(노인요양시설)
영탑추모공원(납골당)
홈페이지 www.youngtop.or.kr
■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3리 347-1
전화 031)952-4801

대한불교관음종
영가천도 지장도량
일산 장안사[납골당]
주지 황병진
영구봉안, 관리비 면제, 저렴한비용
현대불교신문 구독자는 더 큰 혜택을 드립니다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38-1
전화 1566-5108
www.jangansa.co.kr

대한불교조계종
정 각 사
주지 광 우
대중일동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277-12
전화 02)742-1231/팩스 02)742-1235

염불만일회
삼각산 정토사
회주 박설산
주지 박응천
신도회일동
■ 서울 종로구 평창동 523-61
전화 02)379-5502 / 팩스 02)379-0843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회주 진관
주지 계호
사부대중일동
부설코끼리유치원
■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전화02)359-8410

대한불교 조동종 종정 주석사찰
삼각산 청련사
주지 지명 덕찬
사부대중일동
■ 서울 종로구 평창동 562-1
전화 02)379-3935 / 팩스 02)379-6938

대한불교조계종
안성 석남사
주지 정 무
매월 첫째주 일요일 중심회 법회
매월 초하루 정기법회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508번지
전화 031)676-1444

108 참회 기도도량
영가천도 지장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여 래 원
회주 지 성
사부대중일동
■ 부산시 북구 화명동 335-1번지
전화 051)337-9998

대한불교조계종
세검정 옥천암
주 지 정 범
신도회장 청련화
사부대중일동
보도각 백불(지방문화재 제17호)
관음보살님의 친견에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 서울 서대문구 홍은 2동 산8번지 세검정
전화 02)395-4031

대한불교조계종
학 림 사
오 등 선 원
조실 한암 대원
주지 경담
대중일동
■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514번지
전화 042)825-1724/시민선원 042)825-0515

금오산 향천사
천불선원장 옹산
향천사 신도회 회장 권대각행
대중일동
■ 충남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 57 금오산
전화 041)335-3556

대한불교조계종
홍 제 사
황 령 선 원
선원장 혜국
대중일동
신도일동
매월 음력 초하루 법회
음 15일부터 10일간 자비도량 참법기도
■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3동 산51-2번지
전화 051)802-0130

대한불교조계종
강화 정수사
신도일동
■ 인천 강화군 화오면 사기리 467-3
전화 032)937-3611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회 주 대궁 종상
주 지 성행
신도회장 김무량화
사부대중일동
부설:정신지체장애인복지시설 녹향원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11번지
전화 031)426-2348,2221/팩스 031)426-3666

북한산 형제봉
옥관음굴 심곡암
봄 → 산꽃축제
가을 → 단풍축제
주지 원 경
신도일동
■ 서울 성북구 정릉3동 산1-1(국민대 버스종점 앞)
전화 02)914-8860
www.simgokdm.or.kr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사무실 이전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대일오피스텔 1014호
전화 02)738-5586 /팩스 02)738-7576

謹賀新年 佛紀 2551年

2007년 丁亥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내 소 사

회주 우암
주지 진원

사부대중 일동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68번지
전화 063)583-3030

大韓佛敎 曹溪宗

雉岳山 龜龍寺

原州佛敎大學

住持 慈光(遠行)

사부대중 일동

우220-831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1029
전화 033)732-4800~3
팩스 033)732-1211
E-mail : guryongsa@hanmail.net

백옥 부처님 천불도량

봉화산길상사

주지 자인

신도일동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신촌마을 8번지
051)973-5224, 3076

(사)대한불교무량종 인천지원

비 룡 정 사

주지 박보산

신도일동

인천시 중구 선린동 57-7
전화 032)763-1237

원제당 한약방

원장 노개식

※ 불자님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 전화상담가능
- 전국무료배송

전북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전화 063)636-2929

불교 지성인의 전당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학 장 무진장
이사장 김재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회 장 김재일
사무국장 구본설
기획실장 문종순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0
전화 02)732-1206~8
팩스 02)732-1207

대한불교조계종

삼 천 사

주지 성운

신도일동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산127-1
전화 02)359-7766
팩스 02)351-3004

현대불교신문 새출발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옥 련 암

주지 각우

신도일동

전북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산1-2번지
전화 011-9724-7781

현대불교신문 새출발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서 울 승 가 사

주지 이지성(中九)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1동 628-3호
전화 02)2292-3418 팩스 02)2282-3418

호 명 산 감 로 사

주지 이지성(中九)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산1번지
전화 031)584-0117 팩스 031)585-5747
카페 주소 cafe.naver.com/kamrosa
또는 호명산 감로사

대 불 광

주지 허길량

신도일동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4-8 대불광빌딩 5층
전화 02)738-1117

부처님 품안 건강한 가정 이루소서

(주)조계종 안양불교 문화원 지장선원 안양불교대학

이사장 심정구
회 주 세 민
주 지 현 호
기도법사 정 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74번지 삼영빌딩 7층
전화 031)444-5935~6

현대불교신문 새출발을 축하합니다

인터넷 법계를 장엄할 불사

'信心 있는 마하넷이 함께 하겠습니다'

- 불교전문 홈페이지 제작 마하넷
  www.mahanet.net
- 불교전문 포털사이트 사찰넷
  www.sachal.net
-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사찰몰
  www.sachalmall.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2
우정에쉐르 501호
문의전화 (02)725-0117~8

불 광 사

주지 지범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리 27
전화 064)767-2580

가 사 야

대표 김용자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3 1층
전화 02)723-9714

대한불교조계종

능인정사 포교원

주 지 법 경
신도회장 정구영
관음회장 대덕화
총 무 대덕성

서울 광진구 자양3동 227-217호
전화 02)455-1080 팩스 02)456-1335
휴대폰 011-701-0140

건국대학교병원 불교법당

아름다운 봉사회

지도법사 법경
사부대중 일동

건국대병원 입원 환우 및 진료하시는
불자님 정성껏 안내 해 드립니다.

*어려운 이웃과 난치병 환우를 위한 후원계좌
(국민은행 776-01-0013-511 능인정사)

서울 광진구 화양동 4-12
전화 02)2030-7963(원내7963) / 팩스 02)2030-7108
휴대폰 011-701-0140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72) 태조산 도리사

아도화상 전법 원력 솔바람이 전하는 듯


도리사 소나무 숲과 좌선대.


모례네 우물.



도리사 '소나무야 놀자' 학교 현수막.

선산 도리사(桃李寺)는 신라불교의 초전법륜지이다. 신라에 불교가 공인되지 않았던 눌지왕 시절에 아도화상이 불법을 전할 목적으로 고구려에서 넘어와 낙동강변의 모례네 집[毛禮之家]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여러 해 동안 전법을 했다. 그 인연으로 모례 장자의 도움을 받아 선산 도리사를 창건했다. 모례네 집이 있었다고 전해오는 도개마을까지는 선산읍에서 낙동강 일선교 다리를 건너 지척이다.

하지만, 옛 일을 전해줄 유물이라고는 돌로 짠 우물 하나 뿐이다. 우물 주위의 식생조경은 세월에 비틀린 향나무 한 그루와 늙은 감나무 몇 그루가 전부이다.

이곳 모례정 옛 터는 백용성 선사가 젊은 날 수행했던 곳으로, 선사의 문도들이 주위의 땅을 매입하여 성역화를 꾸준히 진행시키고 있다. 근래 지어진 아도모례원과 전시관이 성역화의 중간 결과물이다.

아도모례원에서 도리사가 있는 해평면 송곡리까지는 10여분 거리이다. 길은 낙동강 본류와 함께 달린다. 낙동강이 사행(蛇行)하면서 해평면과 고아읍 곳곳에 습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근래들어 이 습지에 날아드는 겨울철새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해평 습지의 철새 가족 가운데 눈에 띄는 진객으로는 천연기념물 제228호인 흑두루미이다. 해마다 10월 중순경이면 수 백마리가 날아와 보름 정도 머물다 간다. 흑두루미는 러시아 아무르강 등에서 번식한 뒤 중국과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 이즈미시나 가고시마현에서 대부분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세계 흑두루미의 약 80%가 일본에서 겨울을 나는데, 그 중 50%가 이곳 해평습지를 경유하고 있다.

산자락 일부와 골짜기를 제외하면 소나무 단순림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냉산엔 소나무가 많다. 도리사의 송풍(松風)하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고 생태적 가치도 매우 높다. 냉산의 소나무는 전형적인 적송이다. 수령이 1백년에 가까운 노송도 있고 어린 소나무들도 있어서 세대교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05년도에 솔잎흑파리를 방제하기 위하여 항공방제를 했고, 올해(2006년)는 미리 재선충 예방 방제를 하였다.

상수리는 몇 가지 참나무 종류 가운데서 마을 산자락에서 많이 자란다. 왕조실록에 보면 흉년에 승군(僧軍)들을 동원하여 상수리를 따서 구황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이곳 상수리나무에도 사람들이 상수리를 따기 위해 돌메로 친 상채기가 남아있다. 눈발이 내린 늦가을이라 대부분의 초본류들은 이미 보이지 않고, 겨우 몇 종류만 안간힘으로 남아있다. 꽃이 핀 것으로는 산부추, 쑥부쟁이, 구절초가 관찰되었다.

산부추는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대개 가을에 꽃대가 올라와 연보라빛 꽃을 피우지만, 더러는 눈발 흩날리는 늦가을까지 꽃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잎은 부추잎과 흡사하고, 뿌리는 파뿌리처럼 생겼다. 산골사람들은 즐겨 먹지만, 스님들은 오신채라 하여 금기시한다. 도리사라는 이름은 아도화상이 절터를 찾던 중 겨울에 복사꽃과 오얏꽃이 핀 것을 보고는 지었다고 전한다. 복사꽃과 오얏꽃은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봄의 전령사이니, 신라불교의 초전법륜지에 잘 어울리는 꽃나무들이다.

하지만, 도리사라는 절 이름에는 또다른, 아도화상의 간절한 전법 소망이 깃들어 있다.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桃李不言(도리불언) 下自成蹊(하자성혜)'라는 글귀가 있는데, 산중의 복숭아나무와 오얏나무 아래는 사람들이 모여 자연스레 길이 생긴다는 말이다. 따라서 아도화상이 많은 이들이 불법(佛法) 아래로 모여들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복사꽃과 오얏꽃을 빌어서 도리사라고 이름 지었을 것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창건 전설에 나오는 복사나무와 오얏나무가 경내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왕이면 다른 나무들보다 복사꽃과 오얏꽃을 볼 수 있도록 조경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도리사 경내에 들어서니 큰오색딱다구리 한 마리가 이 나무 저 나무를 옮겨다니며 나무를 쪼고 있다. 딱따구리 종류들은 나무들의 의사이다. 나무 속에 숨어있는 벌레들을 찾아내 없애준다. 딱따구리가 나무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나무가 불러서 이 나무 저 나무 왕진 다니는 것이다. 소나무 숲이 우점하고 계절이 바뀌는 시점이라 도리사 주변에 서식하는 조류상은 다양하지 못하였다. 박새류와 딱따구리류를 비롯하여 직박구리, 까치, 동고비 등의 조류가 몇 개체씩 출현하였다.

근래들어 불사에 정성을 기울여 구태를 크게 쇄신한 도리사는 고금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보물인 화엄석탑과 세존탑과 사적비는 도리사의 유구한 역사를 증명하고, 태조선원과 극락전은 고색으로 옛 사격을 지켜주며, 적멸보궁과 설선당과 수선당은 오늘의 도리사의 사세를 말해주고 있다. 도리사의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은 선도적이며, 그 결과도 가시적이다. 최근 도리사가 기획하고 실행하는 '소나무야 놀자'라는 프로그램은 환경계몽을 생태교육 차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그러한 컨셉과는 동떨어진 몇 가지 시행착오는 적이 유감이다. 그 중 하나가 주지실(염화실)을 짓느라고 산을 깎고, 많은 소나무들을 베어낸 것이다. 물론 건축허가를 받고 벌이는 불사이겠지만, 아무리 당국에서 허락했다고 해도,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불사를 강행하면 불교에 대한 불만세력을 자꾸만 만들게 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쉼터를 만들기 위해 소나무 숲속의 관목층을 모두 베어내고 수십 개의 의자를 비치하여 마치 공원처럼 조성한 것도 반생태적이다. 시민들의 사찰 탐방은 말릴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민들의 편의만을 위해 사찰 주변을 공원화하는 것은 수행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리사는 성철스님을 비롯하여 현대한국불교의 내노라하는 고승들이 거쳐간 선수행처로서, 예로부터납승들 사이에서는 팔공산 성전암, 비슬산 도성암 등과 함께 경북의 3대 선수행처로 알려져 온 곳이다. 그런 곳인만큼 도리사의 관광지화는 좀더 조심스러워해야 할 것이다.

도리사 경내 안팎에는 갈참나무와 굴참나무 등 늙은 참나무 20여 그루가 포진해 있다. 식재된 조경 목본류로는 태조선원 앞의 불두화와 백목련, 종각 주변의 영산홍과 철쭉, 적멸보궁 앞의 좀꽝꽝나무, 설선당 아래쪽의 남천, 사리탑 앞의 탱자나무 등이 있다.

남천은 매자나무과에 속하는 늘푸른 관목으로, 일본과 중국 남쪽을 원산지로 한다. 기온이 따뜻한 남부지방 사찰에서는 노지 재배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경수로 적합하다. 도리사 남천은 노지에 심은 최북단 남천일 수도 있겠다. 키는 3미터 정도로 자라지만, 도리사 남천은 기후 관계로 키가 작다.

극락전 앞 소나무 숲 속에는 아도화상의 좌선대가 있다. 전설의 좌선대는 도리사가 앉은 형국을 고려했을 때 망탑이나 풍수비보탑의 지대석으로 추정된다. 윗면만 가공한 점이라든지 좌대의 윗면이 사각인 것을 보면 그것이 땅속에 묻혀있었던 석탑의 지대석이었음을 유추케 해준다. 좌선대와 비석이 서 있는 주변의 소나무 군락은 간벌의 시기를 놓쳐서 줄기들이 가늘고 구불구불 휘어져서 재목감으로는 마뜩찮지만, 솔향과 솔바람은 여전히 청량하다.

적멸보궁 방향 하산로 일대에는 주로 조경용으로 심는 외래종 스트로보잣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아쉬웠다. 능선에서 정상에 이르는 구간에서 관찰된 초본으로는 애기나리, 세잎양지꽃, 이고들빼기, 솜나물, 뚝갈, 구절초, 억새, 산거울, 삽주, 맑은대쑥, 일월비비추, 기린초 등이 분포하고 있다.

최근 구미시에서 모례정, 도리사, 청화산, 냉산, 베틀산, 해평습지 등을 잇는 해평권 지역을 문화관광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키로 하였다. 도리사가 앉은 냉산 지역은 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한 삽질이 이미 시작되어 여기저기 생채기가 드러나고 있다.

'환경과 개발이 조화된 녹색환경도시' 건설이라는 미명 아래 저질러지는 반생태적인 개발을 지역불교계가 비판없이 수용하는 것은 수행환경 보전에 역행하는 일이다. 삽질이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도리사에서 비판적인 시각에서 감시하고 또 감시할 일이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모례정 옛 터, 백용성 선사 수행터로 성역화 한창
해평 습지 철새중 천연기념물 흑두루미 진객중 진객
도리사 적송 생태적 가치 높고 세대교체도 잘 돼
'소나무야 놀자' 환경 계몽 펼쳐 지역사회 활동 앞장


천연기념물 제228호인 흑두루미. 사진제공=원우 스님

※ 본 광고는 현대불교신문사를 응원하는 격려 광고입니다



"송광사 사부대중의 염원을 모아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한국불교의 큰 자산으로서 그 중대한 역할을 응원합니다"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 광 사
방 장 범일보성
주 지 영조
사부대중 일동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전화 061)755-0108 www.songgwangsa.org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들고 나는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 놔라!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또 한자리를 하면서 서로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기 위해 자리를 갖췄습니다. 지금 시쳇말로 공부하는 과정을 시(詩)로 한마디 읊겠습니다. 잘 파악해서 들으시고 또 이날까지 가르쳐드린, 가르쳐줬다고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자가발전 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숭상하던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나와 남이 두루 같이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나와 남이 같이 두루 나투는
이름 없는 이름이여,

해산봉은 화산 터져 두루불이 진동하여
이름 없는 이름이 그대로 여여하더라.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말도 아니요, 누가 지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두루 살피고 또 살핌 없이, 자기가 스스로 한 티끌만도 못하고 깨알쪽만도 못한데…, 다 실은 뜻입니다. '또 한 말 다시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읊은 그것은 우리가 제일 첫번에, 들고 나는 모든 것을 주인공(主人空)에 놔라, 맡겨 놔라, 이래서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 결국은 그때에 진짜 관(觀)해야 됩니다. 편안해졌을 때, '주인공, 당신이 있다면 대답해봐.' '당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좌선을 하고 편안해졌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편안한 것이 공부라면 이것은 영 발전이 없습니다. 좌선을 해서 편안하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이만하면 족한 것을….' 한다면 그걸로써 족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공(空)에 빠지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발견했을 때, 내 대답을 내가 들었을 때, 그때는 앞서의 그 습을 다 놨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없어. 그래서 일 단계는 다 놔야 된다. 그 다음에 편안해지면 나를 발견해야 한다.

그 다음에 발견해가지고 진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다시 체험하고 실험을 통해서 생활에 조금도 걸림 없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시 보임(保任)을 하면서 다시 굴리면서, 안으로만이….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고 남 볼 겨를이 없습니다. 아니, 볼 겨를이 없는 게 아니라 남의 잘못, 잘된 것을 말할 사이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건 바보가 아니냐?" 이러겠지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겁니다. '나와 남이 더불어 같이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했습니다. '두루 같이'입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모든 게 두루, '두루 같이 죽는 이름이여.' 했습니다. 더불어 둘이 아님을 알면서 체험하면서, 남한테 잘못했다 잘했다 말할 수 있는 겨를이 없이 안으로 굴려서 안에다 놓고 말을 하면서, 안에다 놓으면서 말을 했어도 말을 한 사이 없이 해야 합니다. 그럼 스스로 그렇게 됩니다. 나를 발견하게 되면 스스로 그렇게 됩니다. 발견했어도 만약에 그 습이 앞을 가린다면 자꾸 내가 잘났다고 하게 됩니다. '내가 제일이다.'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다면 그 '깨달았다'는 거기에서 그만 더 진전을 못하고, 더 계발을 못하고, 두루 물리가 터지지 못한 채 그냥 멈춰버리고 말고 미(迷)해집니다. 해산을 해서 어린애를 낳았는데 갓 태어난 아이가 자라지 않고 어떻게 어른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육조 스님이 십육년 동안을 그렇게, 깨달아서 바리때를 이어받아 가지고도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달마 대사 역시 면벽을 했고, 깨달았어도 그렇게 했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같이 두루 나투는 방법을, 둘이 아니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아주 정열적으로 확고히 알려고 했던 거죠.

생활이 불법이자 진리이자 과학이기도 합니다. 안에서 생각했으면 반드시 바깥으로 나오니까요.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깨달아가지고도 내가 '나'라는 게 없는 공부가 바로 진짜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승을 따라가면서 자기가 배우는 거죠. 자기는 시자로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공부 가르치는 자기로서, 자기는 공부를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합니다. 자기는 놔야 하고 자기는 바로 항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데는 역시 각오가 튼튼해야만 합니다. 앞서 그 '같이 나투고 두루불이, 이름 없는 이름이여.' 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돈오(頓悟)나 점수(漸修)나 물 흐르는 데 붙지 않듯이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활과 부처님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건 정말 오산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생명들과 보이는 세계의 생명들이 둘이 아닌 까닭에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두 분이서 어린애를 다섯을 낳을 수도 있고 한 명을 낳을 수도 있지만 저 짐승들이나 저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낳는 알 수효를 보십시오.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데서도 한생각에 그렇게 수효가 많은, 모습 없는 모습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산 사람들이 감당해나갈지, 그것도 모르는데다가 함부로

> 일 단계는 다 놓아야 된다
> 그 다음에 편안해지면 나를 발견해야 한다
> 그렇게 발견해가지고 진짜 공부를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사람이 귀신짓을 하기 때문에 귀신이 있는 거지 귀신짓을 안 한다면 귀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거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죠.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잊어버리시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을 하겠습니다. 깨달았어도 타의에서, 여러분이 바깥에서 산기도를 간다 또는 법당에서 부처님을 찾는다 또는 무엇을 바깥에서 찾는다고 할 때, 관세음보살이든지 뭐든지, 이름은 상관이 없습니다. 바깥에서 찾기만 하면 잘못되는 수가 많습니다.

정신질환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세 가지 여건이 있죠. 바깥에서 찾는 데서 오는 게 있고, 유전성으로 오는 게 있고, 내 마음속에서 어떠한 쇼크를 받아서 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처리를 하시렵니까, 이겁니다. 바깥에서 찾는 것은 그렇게 타의에서 와가지고 "얘, 난 아무개다." "난 아무개야." "난 네 할아버진데." "난 네 아버지야." "나는 아무 때 죽은 누구다." 이러고 달려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이건 미쳐 죽을, 환장해 죽을 노릇이죠. 내가 여러분을 접해가면서 수없이 겪어왔던 일입니다.

너무 지겨워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것을 딱 뒤집어서 말입니다, '이건 바로 너니까 너한테다 너가 장난을 하는 거니까, 이건 장난하는 그 이름들이 너를 떠보기 위해서 이름을 이거다 저거다 들고 나오는 거다. 바로 그것이 타의에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조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너다, 바로.' 이렇게 얘길 하죠. 그러면 다행히 그걸 들으면 즉시 낫고 그걸 안 듣고 고집을 부리면 낫지도 않죠. 타의에서 온 거는 참 빼득빼득하니 이런 말을 해 줘도 듣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더 뎠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든지 말든지 무조건 심부름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거운 것도 같이 들면 쉬울 것을, 들지 않을 때는 같이 들지 못해서 쉽지가 않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에 그런 걸 조심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살면서 여러 자녀들을 기르시고 또는 부모들을 모시고 살면서 병에 휘둘리는 게 아주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야, 네가 얼마치 남한테 이익을 줬느냐?" 하고 항상 반문합니다. 남한테 말하기 이전에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서 한번 생각해볼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 말보다도 행이 그렇게 됐느냐? 말로는 이론적인 말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행 한 번 그대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은 참작해보셨습니까? 한번 웃깃을 여미고, 우리가 기복으로 나갈 때엔 이득이 없고, 내 몸에도 이득이 없고 내 가정에도 이득이 없고, 나라에도 이득이 없고, 사회에도 이득이 없어요. 이건 하나가 잘못됨으로써 여러 가지가 무너지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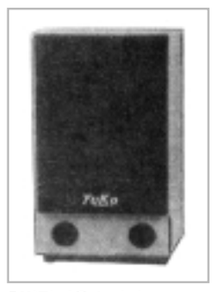
지금 현실에 앞장을 서야 할 지도자들이 과학자들 뒤에 서서 따라가지도 못한 채 근근이 있는 사람도 있고, 따라가는 분들도 있고, 생활로서 "어차피 선은 어려우니까 그냥 생활불교로서 나가자."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禪)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활입니다! 참선은 생활이지, 불법이 따로 있고 참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와선(臥禪)이니, 입선(立禪)이니, 무슨 좌선(坐禪)이니, 이런 것이 이름이지 그 이름조차 없어야 합니다. 뭐 정법(正法)이니, 사법(邪法)이니, 이단이니 이런 것도 전체 몰락 다 버리고 자유권을 얻어야 된다 이 소립니다. 자유권을 얻는다면 계율을 지키는 사람보다도, 지킨다고 지키는 사람보다도 지킨다 안 지킨다를 다 버린 사람이 계율은 더 잘 지켜요. 그리고 행을, 그대로 행을 하고 나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득이 있네 없네, 이득이 있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러겠지마는 그럼 뭣 때문에 이럭하고 공부하려고 애를 씁니까? 나오지 않는 거 무엇 때문에 합니까? 나는 그전부터 천당에 가려고, 아니 그런 데 가려고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도 이렇게 생각했죠. 구더기도 구더기 살림이 있고, 파리도 파리 살림이 있고, 또 개구리는 개구리 살림이 있고, 부처는 부처 살림이 있고, 살림은 크고 작을 뿐이고 미(迷)하고 미하지 않을 뿐이지 똑같아요. 그것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걸. 그래서 나는 살고 죽는 데는 절대 개의치 않았습니다. 또 무슨 승천을 한다 천당엘 간다, 잘된다 못된다, 나를 잘해주시오 못해주시오 이걸 떠나서 말입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지, 지금 어디를 보고서 이렇게 걷고 있는지 이것을 알려고 했던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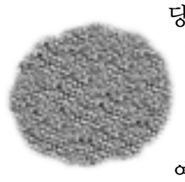
그래서 이 몸 하나를 크게 생각하면 은하계라고도 볼 수 있고 작게 생각하면 어느 혹성 하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석존(釋尊)께서 새벽 샛별을 보시고 깨달았다고 한 말씀이 여러분한테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간도 저 별을 볼 때, 별 하나 나 하나라고 할 때, 하나뿐이 아니라 이 속에 (배를 가리키시며) 은하계처럼 수없는 생명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짝거리면서. 그런데 선장은 누구인 것입니까? 여러분이 한생각을 잘하면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지만, 한생각을 잘못하면 구덩이에 빠질

☞26면으로 계속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법당전용스피커 YM-520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대자암 시방당 선원
가행정진 1년 결사 모집공고
1년 결사 기간
2007년 음력 4월 15일 부터
2008년 음력 3월 15일 까지
◆ 참가자격 : 비구승 및 거사 (삭발염의 방부비 없음)
◆ 모집인원 : 10명
◆ 정진방법 : 수면시간 23시~01시 까지 2시간 (수면시간 외 시간은 용맹정진과 동일함)
◆ 접수마감 : 2007년 음력 2월 15일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번지
계룡산 갑사 대자암
시방당선원 회주 영 파
전화 041)857-5880

보통콩 63일 작업 정성
신비의 약 콩 금단화

당뇨, 비만, 변비, 과음, 숙취 등에 특히 좋다는 검정콩 금단화는 자궁질환 등의 부인병과 위장병 고혈압 등 성인병과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
옻나무와 소나무 액을 채취한 후 한달간 발효시켜 사용하므로 옻의 독성은 남아 있지 않다고, 그 밖의 재료인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 등을 섞어 생즙을 낸 후 옻진 송진과 다시 섞어 액즙을 만든다.
그 다음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 뒤 액즙에 십여일간 담가 두었다가 꺼내어 20여일을 말린다.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63일이나 소요 된다. 콩은 서리태콩을 사용하고 꿀도 반드시 토종꿀 만을 구해 사용한다.
◆ 체험사례
① 혈액순환이 안되고, 손과 발이 냉했었는데 금단화 20정도 먹고 온 몸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 광주 최숙자 님
② 발 뒤꿈치가 피가 나고 갈라졌었는데 7,8개월 금단화를 먹고 난뒤 갈라짐이 없어지고 맨질 맨질해졌습니다. - 평창동 김미자 님
상담문의 02)3437-8282

순모 손뜨개
모자.목도리
한올한올 직접손으로 뜨게질한 어머니정성이 고이깃든 고급 순모 손뜨게모자.목도리세트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코저 합니다.
겨울 나시는 스님 선물용으로도 좋으시고 목도리는 일반 어는 누구에게나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 소재:wool 100%
• 색상:회색
• 길이:170cm × 넓이15cm
• 손뜨게모자 목도리 1set구입시 58,000원
• 2set구입시 106,000원
• 목도리만 구입시 38,000원
도매구입 문의
■ 제조 판매원 : 한새올 승복점
TEL 051)644-6624
H·P 010-4579-6636
http://www.hansaeol.com
입금계좌 기업은행 096-045672-02-016 새마을금고 1315-09-003257-4 (예금주 :배재훈)

내가 나라는 게 없는 공부가 바로 진짜입니다

☞25면에서 계속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 몸뚱이는 누가 끌고 다닙니까? 여러분이 끌고 다니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몸뚱이를 지금 끌고 다니는 겁니다. 선장이 배에다가 지금 자기 중생들을, 자기 부처가 자기 중생들을 배에다 싣고, 지금 여러분도 배에다 싣고 지금 오셨습니다. 오고 간 사이 없이 말입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움죽거린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몸 안에서 어떤 병이 났든지 가난하든지 일이 안되든지 그 모든 일체를 막론하고 내가 여기에서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한생각으로 주인공을 잡았을 때, 깨달았든지 못 깨달았든지 우선적으로 자기 참주인공을 들고 나갈 때에, 거기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고 나갈 때에, 가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잘 이끌어나갈 때 이 몸뚱이에 어떠한 병이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라는 놈도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 죽이는 법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병도 잘 생각하니깐 자기가 죽겠기보다 진리이지만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았기 때문에 지금 과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벌써 삼천년 전에 해놨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좋은 법이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알라.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남을 알지 못하느니라. 병 자체뿐이 아니라 병으로 꼬집어 비유를 들어 말했지만, 일체 만법이 다 거기에서 나오고 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복으로 하면 어째서 공덕이 없다는 건지, 왜 양 무제더러 달마 대사가 그렇게 말했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이 저 뒤에 계신 부처님, 여러분은 자꾸 내가 이렇게 십년, 이십년, 근 삼십년 가깝게 여러분을 접해 오니까, '아하! 이래서 부처님을 조성해서 모셔놓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마디 한다면 처음에는 '그거는 형상이니까' 이러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것도 생각하지 말고 둘로 보지 말라는 얘깁니다. 여기서 (가슴을 가리키시며) 부처님을 볼 때는 부처님과 자기와 둘이 아니에요. 자기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타의에서 어떠한 상대를 만났을 때도 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툰다는 말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고 남 볼 겨를이 없습니다

거든. 전자에 둘로 볼 때는 '내가 너를 이렇게 하면은 파워를 일으키지.' 하는데, 하나로 볼 때는 '아하! 이거 파워를 일으키면 내 가정이 다 없어지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선 파워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걸 전제하고 믿기 때문에 걱정이 하나도 없죠. 어디 옆구리가 쑤셔? '어허, 신호가 왔구나. 네가 끌고 다니는 네 시자를 네가 고쳐! 고쳐가지고 끌고 다녀! 나는 알 바 없다. 너 알아서 해라!' 이러거든. 자기가 형성시킨 것 자기가 끌고 다녀야지 누가 끌고 다니느냐 이거야.

수억겁 광년을 거쳐오면서 미생물에서부터 지수화풍으로 뭉쳐서 이날까지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주인이 바로 누구인 것입니까? 참자기인 것입니다. 수없이 겁을 거쳐오면서, 모습을 바꿔가면서 진화해가면서 나온 그 역사를 볼 때에는 정말이지 보배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너무 아프고 좋고 즐겁고 이런 것을 수차에 걸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뜻이란 말로 형용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보배인 것입니다.

그 보배가 그렇게 능동력 있게 생동력 있게 과학적으로, 지금 내가 생각하면 바깥으로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합니다.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여러분이 배고프다 하는 생각을 했다면 바로 밥을 먹으면서도 그것이 과학이 아니라고요? 인정이 안된다고요? 똥이 마려우면 얼른 가서 똥을 누면서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왜 인정을 안 합니까?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이 뜻이, 팔만 사천 법문이 다, 이것은 과학이니까 나툰다는 말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하면 법신(法身)이고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化身)이에요. 물리가 터진다면 보신(報身)이고, 문수보살도 있고, 보현보살도 있거든. 자기한테 모든 게 있는 거라. 그런다면은 산신(山神)이 따로 없고, 신중단(神衆壇)이 따로 없고, 용왕(龍王)이 따로 없고, 지신(地神)이 따로 없고, 약사(藥師)가 따로 없고, 칠성(七星)이 따로 없고 모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나투면서 잘나잘나 칠성이 될 수도 있고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법신이 될 수도 있고 약사가 될 수도 있죠.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광대무변한 보배를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활용 못합니다. 이 도리를 가르칠 때 여러분이 편안하게 이 도리를 알아서 잘 살라고 그랬지 방황하라고 가르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때 사랑하고 자녀들을 돌볼 때 돌보고 애정을 느끼되 착은 두지 말고 찰나찰나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데에 끊임없는 그 날을, 이렇게 살아나가는 데에 조금도 어김없고 걸림 없이 우리가 해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기 놓으면은 요기서 걱정이고, '우리 남편이 명이 짧다는데, 어디 가보니까, 칠성에다 놓지 않으면 이거 큰 걱정이야. 그러니까 요기다가 놔야 하고 또 어디 가서 보니깐 독성(獨聖)에다 놓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게 돼.' 그러니깐 내가 또 독성한테다, 산신한테다 놔야 돼. 명이 짧다니까 칠성 찾고, 좋은 데로 가려고 또 지장 찾지, 병이 났으니까 약사 찾아야지?

또 요새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방생(放生) 가재요, 방생! 방생이 도무지 뭐냐 이겁니다, 방생이. 예전에 저도 산에서 있어 봤지만 비가 오면 물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이 정맥 동맥이 오르고 내리고 하듯이 합니다. 물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질 때에 그때 미꾸라지니 자라니 뭐 아니 떨어지는 게 없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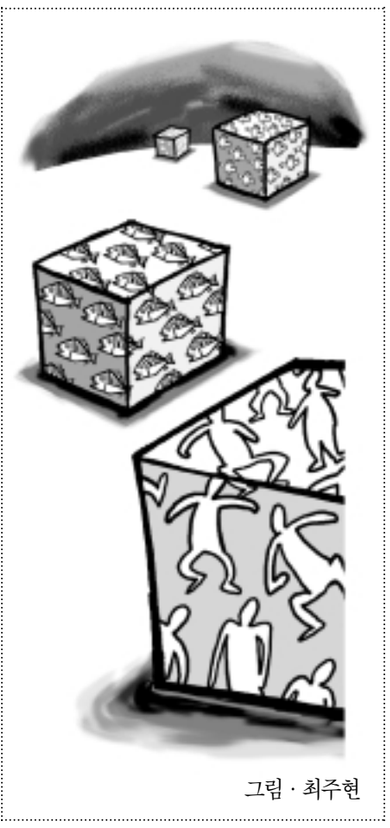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니다, 붕어도 그렇고. 그렇게 마당에 죽 떨어져서 펄펄 뜁니다. 그때에 그릇에다가 그걸 주워담아서 물에다 갖다 넣어주는 거를 방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것이 방생이 됐느냐 하면은, 산 거를 잡아왔다가 여러분이 다시 강에다 갖다가 넣는 거예요. 이게 방생입니까? 놀부 잘 아시죠?

그전에도 그런 말은 했지만,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살림하는 데 괴로움이 많겠습니까? 예전에 8 · 15 해방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죠. 탄광으로 끌려가고 뭐로 끌려가고 그랬다가 8 · 15 해방되니까 탁 놔줬어요. 사람들이 전부 이리저리 자기네 집 찾아가느라고 애를 쓰다가 죽은 사람이 삼분의 이는 됐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형상이지.

여러분이 남의 생명도 아끼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걸 한번, 이 꽃송이 생명도 한번 침착하게 생각해보신다면 그게 다 나옵니다, 연구해본다면. 그 고기들은 진흙에서 사는 게 있고 모래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는 고기도 있고, 남생이도 자기가 살던 고장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다. 고기들에게 물이면 다 같은 물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는 분들도 있겠지마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 집을 찾아가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들 그러다가 지쳐서 삼분의 이는 죽어요, 넣어도. 또 잡을 때 죽고, 잡아다 갖다 놨을 때 죽고, 가져갔을 때 죽고, 넣었을 때 죽고 그럼 뭐 남는 게 있어서 방생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놀부짓 하고도 그것이 흥부 방생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여러분이 가정에 살면서 남편과 자녀들과 재밌게 살면서도 때로는 아침 새벽이면, 도대체 자기 있는 데가 부처님 자리인 것을 가지고, 또 생활이 그냥 부처님 법이거늘 어찌 그저 앉아서, 참선한다고 앉았고 또 염불한다고 앉았고 절을 삼천배나 백팔배 한다고 하고, 또 때로는 뭐 비린 것도 안 먹고 누린 것도 안 먹고 목욕재계하고, 애가 어떻게 되든 남편이 어떻게 되든 그냥 기도하러 간단 말입니다. 불교 신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자기 앞도 못 가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하나 정돈하면서 해나가는 대로 그러한…. 그래 어떠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어쩌다가 방에 들었더니, 벌이 말입니다, 반사된 창문을 문인 줄 알고, 입으로 쪼다보니 몸 떨어지고 입도 떨어지고 입 떨어지니 말도 떨어지더라. 여러분이 아무리 염불을 하고 경을 읽고 온통 야단을 해도, 몸으로써 말로써 그렇게 하는 거는 아무 이득이 없어요.

오직 안으로만 다시 굴려서 놓아야 합니다!

첫째 이득이 없거니와 둘째, 남편이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는데 아침에 마나님들이 좀 재밌게 좀 따뜻하게 해줘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넌 시간 되면 이렇게 하겠지.' 밥이나 해놓으면 그저 그뿐으로 알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오고 가는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의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고달프고 외롭고 바깥에서 어떠한 속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 아내가 슬기롭게 싹 해주는 데 사는 보람을 느끼고 마음을 턱 놓고 나가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머슴이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식모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자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여자는 또 남자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내의 행동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머니의 행도 해야 하고 또 아내의 행도 해야 하고, 나중엔 딸의 행동까지도, 동생의 행동까지도, 친구의 행동까지도 해줘야만이 다복하고 융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조화를 이루는, 이것이 바로 포근한 살림이요 포근한 삶이요 생동력 있는 삶이요 의지력 있는 삶이요 진실한 삶이란 말입니다. 이것저것 빼놓고 불법이 어딨습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불법이라는 것도 없는데요.

제가 차근차근히 얘기는 못 해드려도 알아들으시겠죠, 뭡니다, 저는. 뭐 체계도 없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듣는 분들이 체계 있게 잘 들으세요. 이건 듣기에 달린 겁니다. 한 마디에 열 마디가 거기 포함했다는 걸 아시고, 한 마디 한 뜻에 일체가 거기 다 달려서 돌아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무로 표현을 한다면, 무맛은 한 맛입니다. 그런데 거기 깍두기를 만들어 놓으면, 양념을 했기 때문에 깍두기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무라고 안 그럽니다. 그럼 이 깍두기 한 가지 가지고 착을 둘 겁니까? 무는 숫장아찌도 하고 장아찌도 하고 채장아찌도 하고 깍두기도 하고 김치속도 넣고 무국도 끓이고 그런다는 걸 안다면. 이 깍두기 하나 가지고 착을 두지 않으시겠죠.

지금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 부처님 이름들을 죽 놓고 찾지 말라는 얘기죠. 절할 때도 그렇습니다. 생각을 한 번 착 둥글리면 그냥 하나입니다. (주먹을 쥐어 보이시면서) 하나를 딱 쥐고선 한 번 탁 절하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거기 조상도 부처도 중생도 없이 몽땅입니다.

좀 간편하게 살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셨는데, 공부하다가 좀 어려운 것 같으면 '그분이 그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으면 우리가 편안할 걸 그랬다.' 고 그러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그럼, 먹어보지도 않고? 하하, 아니 맛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단군이나, 또는 석존이 그렇게 가르쳤고 사대 성인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거름으로 삼아서 생각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렇게 무시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제일 무시하지 못할 것은, 자기 몸뚱이가 허무하다는 겁니다, 지수화풍이. 근본적으로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모두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수화풍이 허무하다, 물질들은 전부 허무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허무한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한 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88년 12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통따주기지도사 강좌(2박3일) 안내

1. 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따주기의 특징
-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합니다.
-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키고, 나쁜 피는 사혈합니다.
- 월 1회 따주기로 사전 건강관리
-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 학생지도(고교생, 대학생)
- 신도 포교
- 따주기 사회봉사
- 전통따주기지도사로 활동

4. 따주기로 건강관리 범위
- 뼈 및 수술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분야
- 마음과 육신

5. 강좌 인원
- 선착순 20명(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직접강의)

6. 강 좌 일
- 2007년 1월 20일 (토) ~ 1월 21일(일)

7. 특전
- 18시간 교육이수 후 수료증 수여
- 교재 · 사혈기 및 필수 부항 · 펌프 보시

8. 강좌문의 054)637-3477
(장소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내)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고차원세계의 과학
- 그리고 레이키 -

1.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박희준 회장이 새로이 개설한 홈페이지「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혹은「www.spiritualism.co.kr」의 회원이 되시면 고차원세계의 실상을 과학적인 눈을 가지고 접근해 보실수가 있습니다.
저 세상의 참 모습을 입체적으로 다면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회원이 되십시오. 앞으로 계속 기사를 실을 것입니다.

2. 동서양식 레이키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5만원
단체교육은 매월 1회 토,일요일에 걸쳐서 시행됩니다.
개인교육은 날짜와 시간을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키는 에너지 요법 즉 氣치료법의 총아입니다.
레이키는 교육만 받으면 그날부터 능력자가 될 수 있는것이 특징입니다. 저(박희준)는 1997년 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레이키 교육을 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입니다.

3. 카루나 레이키
교육비 30만원, 교육기간 1일
카루나 레이키는 동서양식 레이키를 배운 다음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음파 에너지를 환부에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4. 박희준 회장 약력
20여년간 건강분야, 불교분야, 정신세계분야의 저술가, 번역가로 활동하여 10여권의 저서와 1백여권의 번역서를 냈습니다.
Spiritualism, 윤회전생, 초능력 문제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던 끝에 그 자료들을 인터넷에 공개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인터넷 : www.Reiki.co.kr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www.spiritualism.co.kr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신수 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역학 개인지도 - 수시접수

효 타 암주지 원 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불자 세상보기

김 용 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의 보릿고개 어쩌나

올 봄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으로 우리 정부의 50만 톤 식량 지원과 20만 톤 비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내외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도 끊긴 상황이다. 작년 여름 수해 피해가 컸던 것도 식량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만성화된 식량 부족에 이와 같은 요인들이 결합하면서 올 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두면 수 백 만의 대량 아사자가 발생했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의 참극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식량난은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민간단체의 긴급 구호가 시급하다.

지난 7월 북한의 수해 피해는 우리 상황보다 훨씬 심각했다. 당시 북한당국이 사망 · 실종자를 2백 명 내외로, 국내 일부 대북 민간지원단체에서 3천여 명으로 발표하는 등 혼선이 있었지만 상당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농경지의 유실과 침수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했다.

대부분의 마을과 농경지가 수해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현실에서 집중 호우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북한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 가슴을 쓰러내려야 하는 현실을 타파하지 않으면, 식량난 해결의 단초는 찾기 어렵다.

구조적으로 식량부족국가인 북한 자체의 생산수단으로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년 2백만 톤 내외의 식량이 부족하다. 북한의 1년 전체 필요 식량은 6백 50만 톤 내외며, 평년작 기준으로 실제 생산량은 4백 50만 톤 내외다. 그 동안 북한은 부족분 중 매년 1백만 톤 정도를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외부의 지원에 의존해 오면서 근근이 버텨 왔다. 그러나 작년 외부의 지원 단절과 수해 피해로 북한이 확보한 식량은 4백 50만 톤을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인다. 보다 심각한 것은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된 식량난에 가중되는 것이기에 더더욱 문제가 크다.

이 시점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가 시급하다. 최근 10여 년 동안 북한은 봄철마다 과거 우리가 경험한 보릿고개를 반복하고 있다. 계절적으로 식량이 가장 부족한 시기가 이때이기 때문이다. 긴급한 것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한 수해피해 지원물자와 대북 식량지원 재개다. 정부는 당시 쌀 차관과 비료 추가지원을 전면 유보하면서, 그 시한을 재개가 가능한 "출구가 보일 때까지"로 정한 바 있다. 핵실험으로 여건은 더 나빠졌지만, 최근 6자회담 재개로 최악의 한반도 위기상황은 점차 벗어나고 있다.

핵실험으로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대북 식량지원은 유용한 소재다. 쌀과 비료 지원 유보조치는 유엔대북제재결의안 1718호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한 조치였기에 식량지원은 지금이라도 가능하다. 당장 유보된 장마복구 지원사업이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연이어 쌀 50만 톤 지원과 비료 지원을 매개로 남북 당국간 접촉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당국 간 관계가 복원된다면, 남북관계 진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북한도 2차 핵실험 강행 중단을 공식 선언하고 6자회담에 전향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여론은 아직까지 냉랭하기만 하다. 그렇다고 해서 뻔히 예견되는 올봄 '2차 식량난'을 뒷짐 지고 있을 수만은 없다. 1990년대 후반 식량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수 백 만의 아까운 목숨을 잃은 민족적 참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불교도가 앞장서 인도적 식량지원의 물꼬를 터야 우리 정부도 나설 것이다. 우리 곁에 있는 북녘 동포들의 올 봄 배고픔에 눈길을 거둔다면, 불자들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행하지 않는 죄행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불자의 눈

문화재관람료 문제 '답'은 정부가 내놓아야

새해 들어 국립공원입장료(이하 입장료)가 전면 폐지되면서 사찰의 문화재관람료(이하 관람료) 징수가 여론의 도마에 오른데 이어 조계종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다.

조계종은 1월 12일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국립공원 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사찰의 토지를 국립공원 지역에서 제척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1억1000만평에 이르는 사찰의 경내지 사실상 국립공원에 무상제공돼 왔으므로 그에 대한 평가와 보상도 요구했다.

조계종의 이 두 가지 요구는 매우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난처한 요구지만 불교계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재산권 행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관람료 징수는 1962년 해인사를 시작으로 시행됐으나 입장료 징수는 1970년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국립공원 지역을 설정하는데 있어 사찰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보상하는 조치도 전혀 없었다. 그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사찰은 입장료와 관람료를 한 매표창구에서 합동징수해 왔다. 그렇게 한 살림을 하는 동안에도 입장료와 관람료를 둘러싼 마찰은 심심찮게 발생했었다. 주로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입장료 인상을 위해 분리징수를 주장하면 사찰은 산문폐쇄 등의 강경 대응으로 마찰을 정리하곤 했다.

사찰은 수행과 신행을 위한 종교 공간이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민족의 공동 자산이라는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종교성과 문화성을 두고 볼 때 사찰의 기능은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 수 없다.

관람료와 관련한 문제풀기는 바로 이 사찰의 기능에서 출발해야 한다.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순기능을 부양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면 어떤 이유로도 그 기능성은 침해될 수 없다. 더구나 사찰이 국립공원 지역에 편입되어 뜻하지 않게 관광지로서의 기능까지 요구받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사찰은 매우 불편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

관람료를 둘러싼 조계종과 정부의 시각차가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문화재 관리를 위한 적지 않은 비용을 마련할 방법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물론 그 '답'은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 조계종은 관람료의 징수를 고수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 듯하다. 입장료가 폐지된 마당에 관람료의 단독징수는 끊임없는 민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라리 사찰 경내지를 국립공원에서 제척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관람료도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정부가 문화재의 수리 보존과 그를 둘러싼 제반 행정비용 등을 충당하는 법적인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조계종이 공원지역에서의 경내지 제척을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강력한 주문에 다름 아니다. 조계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관람료를 둘러싼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민심의 질타를 받지 않고도 슬기로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들었다

화해와 상생

"벗들이 다투면 맞춰 화해 시키고, 허망한 말 전하기를 즐기지 않으면 후생에 친한 사람과 헤어지지 않으며 그 몸이 언제나 사람들의 어른이 되리." 〈분별선악소기경〉

올해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 보수와 진보의 갈등, 분열이 첨예화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런 가운데 양 진영의 대표 주자들이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자리를 함께했다.

지도자들은 "보수 · 진보세력들이 서로 지나치게 갈등하고 대립해 우리 사회는 불안한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한 뒤 화해와 상생을 약속했다.

지도자들은 △다른 생각과 입장을 존중하며 자주 만나겠다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의견 교환 △갈등 대립을 조장하는 언행 자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집단행위는 용납 않겠다는 4가지 다짐을 했다.

이날 신년모임은 서로 한자리에 모여 뜻을 같이했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근 진보와 보수진영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세력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선명성과 선동성을 앞세운 비타협적인 극단론이 다시 제기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보수 · 진보단체 모두 지난 시절 산업화와 민주화 운동을 통해 다같이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서로의 공을 상호 인정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장아함 유행경〉에서 "화합의 시작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며, 서로 공경하며, 자주 모여 강론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다. 나를 내세울 때 화합은 유지될 수 없다. 서로를 공경하며 의견을 모을 때 공동체의 덕목인 화합이 이뤄진다. 결국 화합이 되어야 상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김원우(취재부 기자)

새해 이것만은…

'환경실천 111운동' 전개하자



'우리는 모두 예약자'다. 태어나는 순간 죽음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쉼 없이 그 기차는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그 기차는 여느 열차와 다른 특징이 하나 있다. 승차 순번은 있지만 도착 순번이 없다는 것이다. 먼저 탔다고 해서 꼭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늦게 탔다고 해서 나중에 도착하는 것도 아니다.

어쨌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언제 자신이 탄 기차가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할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종착역에 도착하자마자 저승사자에 의해 끌려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죽음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으며,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지만 예약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종착역에 도착하여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저승사자에게 붙들려 끌려갈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돈도, 재산도, 명예도, 처자식도 아닌 그저 조그만 보따리 하나일 것이다. 자신이 살면서 행한 모든 행위가 담겨 있는 장부책이 들어있는 '업 보따리'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일이란 그 업 보따리 속에 있는 '장부'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따라 값을 치르는 일 밖에 없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스스로 행한 행위에 대한 과보는 부처님 자신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惡因惡果 善因善果'요 '自作自受 自業自得'의 이치는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철칙인 것이다.

2007년이 밝았다.

불자들도 수많은 자기 계획들을 세우고 그에 따라 정진하고 있겠지만, 새해를 맞아 특별히 한 두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장부'를 자주 들여다보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자기 스스로 기록한 장부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장부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저 이러저러한 이유를 내세우며 앞만 보고 달려온 때문일 터이다.

올 해는 그저 관성적으로 밟아대던 과속페달에서 발을 떼고, 가끔씩 주위도 돌아보면서, 자신의 장부를 들여다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다음으로, '환경실천 111운동'을 전개했으면 한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환경을 잘 보전하고, 후대에게 청정국토를 물려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불자 1인 1년 1가지 환경실천운동'을 펼쳤으면 좋겠다.

올 연말 모든 이의 살림살이 장부 '흑자' 기록 발원

장보러 가기 전에 메모하기, 외식할 때 음식을 먹을 만큼만 적당히 주문하기, 친환경수세미 사용하기, 불전에 친환경 공양미 올리기 등 자신의 조건과 상황에 맞게 한 가지씩 정하고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 불자들이 모두 부처님 전에 서원하고, '환경실천 111운동'을 펼친다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리라 생각한다.

모든 불자들이 자신의 살림살이 장부를 자주 들여다보는 가운데, '환경실천 111운동'을 펼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자신의 살림살이 장부에 2007년은 '흑자'라고 자랑스럽게 기록할 수 있기를 발원한다.

정우식(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대한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입종 및 교육안내

◇입종 안내 구비서류
- 본종 입종신청서 (총무원, 지방종무원 비치) 2통 : 요청시 우편발송 가능.
- 주민등록 등본 2통.
- 승적증빙서류 (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2통.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2통.
- 여권용 사진 5매.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2통.
- 사찰 전경사진(내, 외부)

◇행자(예비승) 모집
- 자격 : 신체 건강하고 법적 결격 사유가 없으며, 연령 45세 미만, 학력 고졸이상.
- 특전 : 행자 이수 후 승려교육 수행과 겸해서 본사나 말사에 수행 할수 있음.

◇대승불교 전문대학 교육안내
- 1학년(사미반) : 초발심자경문, 치문, 기본의식, 범음, 범패(타 종단 스님 가능) (본 종단은 사단법인 등록이 되어 있음)

문의 및 접수처 : 대한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총무원
주소 : 부산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 051)527-5431~2 / 팩스 051)527-7733
경남종무원 055)943-6570 / 중부종무원 043)648-8942 / 제주종무원 064)724-0318~9

www.bexpo.org

참가업체 모집

국내 최대규모의 불교전시회

2007한국불교박람회 KOREAN BUDHISM EXPO 2007

2007. 3. 22 ~ 3. 25 서울무역전시장(SETEC)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제이컨벤션
주 관 : 2007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전시품목 : 사찰건축, 사찰유지보수, 불교 및 포교용품, 종단 및 단체,
차 및 식품관련, 첨단포교, 불교장례문화, 불교와 관련된 기타산업
후 원 : 한국종단협의회, 문화관광부, 대한불교진흥원

문 의 : 2007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 TEL. 02-706-3493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2004-8213~9

